

8-1-2011

사회봉사 공동체로서의 교회:명성제일교회를 중심으로

Young Chul Park 박영철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박영철, "사회봉사 공동체로서의 교회:명성제일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1.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CHURCH AS A COMMUNITY FOR SOCIAL
SERVIC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MYUNGSUNG JEIL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YOUNG CHUL PARK

AUGUST 2011

사회봉사 공동체로서의 교회

- 명성제일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권문상 교수

박영철

2011년 8월

Abstract

Church as a Community for Social Service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Myungsung Jeil Church

Young Chul Park

Doctor of Ministry

2011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church must be the salt and the light of the world. But it seems that the Korean church today has failed to be the salt and the light of the world. Rather, people in the world blame the church for being selfish, untrustworthy, and so on; the Korean church has losing its influence and reputation in the world. In order to restore its influence, trust, and reputation among people in the world, this ministry focus paper argues that a local church must be a social service community that serves its neighbors.

This paper consists of six chapters. After the introductory chapter, chapter 2 explores a biblical foundation of social service. Chapter 3 describes the current state of social service ministry of the Korean church. Then, it theologically in general and ecclesiologically in particular insists that the church must be a social service community.

Chapter 4 describes the pastoral vision of the Myungsung Jeil Church and its various social service ministries. It also presents other churches' social service ministries as good models. After scrutinizing and evaluating the Myungsung Jeil Church's current social service ministries and examining issues of today's society, chapter 5 suggests some alternative social service ministries that the Myungsung Jeil Church can do as a social service community.

Chapter 6, the concluding chapter of this paper, summarizes the study.

This paper is based on library and field research.

Theological Mentors: Moon Sang Kwon, Ph. D.

Yeasun Eum Kim, Dr. SocSci

Seyoon Kim, Ph. D.

감사의 글

바쁜 목회생활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이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고, 게을렀던 탓에 1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면서 뒤늦게나마 논문을 완성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을 마치면서 본 연구자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게 되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보다 좋은 미래 목회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가지게 된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본 논문이 완성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지도해주시고, 여러 가지 보는 관점과 방향을 제시하므로 연구과정의 의미를 깨닫고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지도교수인 권문상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적으로 늘 배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신 김태석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목회와 신학에 있어서 거대한 배경이 되어주시므로 도움을 주신 김세운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 목회를 위해서 또한 논문의 완성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명성제일교회 당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서 기도와 격려로 도움이 되어준 아내 김복희 사모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던 풀러신학교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함께 동역하는 본 교회 부목사님들과 교역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계수리 교회와 명성제일 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11년 8월 박영철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과 범위	4
제 2 장 사회봉사의 성경적인 근거	6
제 1 절 구약에 나타난 사회봉사	6
1. 사회봉사의 어원	6
2. 사회봉사의 보편성 문제	7
3. 사회봉사적 근거	9
가. 사회봉사 개념의 네 가지 기초	10
나. 법과 제도로서의 사회봉사의 근거	12
4. 맺는말	15
제 2 절 신약에 나타난 사회봉사	16
1. 사회봉사의 어원	16
2.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회봉사	16
가. 복음의 선포와 선포된 복음의 실천으로서 사회봉사	17
나. '약자에 대한 배려'로서 사회봉사	19
다. 하나님 나라의 계시로서의 사회봉사	22
3. 초대교회에서의 사회봉사의 위치	25
4. 맺는말	26
제 3 장 봉사 공동체의 신학적 탐구	28
제 1 절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28
1. 교회성장주의	29
2. 세상(지역사회)과 소통이 없는 교회	30

3. 교회공동체의 갈등과 분열	32
4. 맺는말	35
제 2 절 봉사공동체의 교회론적 고찰	35
1. 공동체의 정의	35
2. 사회봉사를 위한 공동체성	37
가. 도덕성이 있어야 함	37
나. 개방성이 있어야 함	38
다. 역사적 모델	38
3. 교회의 표지로서 봉사공동체	39
가. 하나님 나라의 표현으로서 봉사공동체	40
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현으로서 봉사공동체	42
다. 성찬적 공동체로서 봉사 공동체	44
라. 선교학적 표현으로서 봉사 공동체	48
4. 삼위일체적 교회로서 봉사공동체	52
가. 십자가 아래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53
나.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에서의 봉사 공동체	54
다. 성령의 새로운 창조 안에 있는 교회	55
5. 타인을 위한 존재로서의 봉사공동체-본회퍼를 중심으로	56
가. 타인을 위해 고난 받는 교회	57
나. 세상을 섬기는 교회	59
6. 맺는말	59
제 4 장 명성제일교회의 사회봉사	62
제 1 절 명성제일교회의 목회 비전	62
1.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	62
2.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	63
3. 가정과 심령이 복 받는 교회	64
제 2 절 명성제일교회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과 평가	64

1. 노인대학에 대한 평가	64
가. 노인 대학 현황	65
나. 설문 조사를 통한 평가	65
다. 노인 대학을 통한 목회적 변화와 평가	66
라. 문제 제기	66
2. 아버지 학교에 대한 평가	68
가. 아버지 학교의 의의	68
나. 아버지 학교의 특징	69
다. 설문조사를 통한 조사 결과	69
라. 아버지학교의 치유 상담적 효과 및 교회의 변화	70
마. 맺음말	71
제 3 절 모범적 사례로서의 타교회 봉사	71
1. 독립교회	72
가. 독립교회의 사회봉사 목적	72
나. 독립교회의 역사와 지역 환경	73
다. 독립교회의 사역	73
2. 안산 다문화 교회-국경 없는 마을	74
가. 다문화 교회의 목회 비전	75
나. 국경 없는 마을의 개념	75
다. 다문화 교회의 사역	76
3. 광염교회	77
가. 광염교회의 역사와 주변 상황	78
나. 광염교회의 목회 비전	78
다. 광염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역	78
4. 영등포 광야교회	80
가. 영등포 광야교회의 현황 및 목회 비전	80
나. 광야 교회의 사회봉사 사역들	81
5. 맺음말	82

제 5 장 대안적 사회봉사의 제안	83
제 1 절 우리 사회의 진단	83
1. 고령화시대의 진입	84
가. 고령화 시대의 노인 건강	85
나. 노년기의 여가 활동	85
다. 평생 교육으로서의 노인교육의 필요성	86
라. 한국 노인교육의 현황 : 복지위주의 노인교육	87
2. 다문화 사회의 진입	88
가. 다문화 사회의 원인	89
나.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요구 사항	90
3. 남북통일 시대의 진입	91
가. 남북한의 이질성 문제	91
나. 통일 시대의 탈북민의 역할과 현황	92
다. 맺음말	94
제 2 절 명성제일교회 사회봉사의 반성	95
제 3 절 명성제일교회를 위한 사회봉사의 방향 제안	97
1. 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봉사의 방향 제안	98
2. 통일 시대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100
가. 탈북민 쉼터	100
나. 탈북민 홈스테이 프로그램	101
제 4 절 대안적 봉사 공동체로서 가족교회 공동체의 탐구	102
1. 가족교회 공동체의 정의	102
2. 가족교회 공동체의 효용성	104
제 5 절 다문화 사회에서의 한 대안으로서 가족교회 공동체의 고찰	106
1. 다문화 사회에서 국가의 정책-기독교와 비친화적 현실	106
2. 한국 교회의 대응	107
3. 맺음말	108
제 6 절 남북한 통일 준비시대의 대안공동체로서 가족교회 공동체 고찰	108

제 7 절 맺음말	112
제 6 장 결론	114
부록	117
참고 문헌	123
Vita	12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본 논문은 먼저 본 연구자가 시무하고 있는 명성제일교회의 사회봉사 현실에 대한 인식과 반성을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두 가지 동기에 의해서 본 논문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는 외부적인 동기이다. 한국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고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봉사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 사회봉사를 끝까지 지속적이고도 열정적으로 감당해야 할 봉사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탐구하는 것이다. 매년 마다 발표되는 한국교회의 신뢰도 조사는 우리에게 충격과 함께 많은 의문점을 가져다주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점과 “그렇다면 왜 그럴까?” 하는 의문점이다. 작년 조사 결과로는 18.4퍼센트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했다. 천주교를 가장 신뢰하고, 다음은 불교였고, 마지막으로 개신교였다. 우리는 매년 시간이 갈수록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괴리되는 현상이 왜 나타나는 것일까?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요사이 기업들조차 달라지고 있다.¹⁾ 이윤 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 정경 유착 등으로 인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보여주었던 기업들이 이제는 자선을 의치고, 사회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들의 80퍼센트가 제품 구매를 결정할 때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고려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한국의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의 CEO들이 모여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윤리 경영 서약식을 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시대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투명 경영을 선포하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서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주된 목적은 이윤 추구하고 소비자 확보를 위하는 것이다. 그러

1) 정원범, *사회선교, 목회, 21C*, (서울: 한들출판사, 2006), 5.

나 소비자부터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섬기고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기꺼이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영적으로 앞서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교회는 어떠한가? 사회를 향해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선도해야 할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과연 한국 교회는 이 시대 또는 미래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신학자 칼 라너(Karl Rhaner)는 “무신론주의가 생기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기독교인이다. 입으로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생활 모습으로는 복음을 부인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질 수 없게 만든다”²⁾고 기독교인들을 향해 뼈있는 경고를 하고 있다.

두 번째 동기는 명성제일교회의 내부적인 요인이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듯이 본 교회도 봉사 인원의 고갈로 인해서 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회봉사가 분명히 필요하고, 선한 사역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많은 인원들이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봉사, 식당 봉사, 구역장 사역, 남녀 선교회 모임 등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성도들은 이런 봉사를 더 귀중한 사역으로 생각하고 비중 있게 다루게 된다. 물론 이런 교회 내의 봉사도 중요하다. 교회 자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배와 친교라고 하는 교회론적 타당성과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사회봉사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 사회봉사는 교회 자체를 운영하고 움직이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고, 사회봉사의 대상이 설정되어야 하고,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동기에서 본 논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사회봉사 공동체로서의 봉사인원의 고갈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론적인 대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가운데서 명성제일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봉사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 교회가 하고 있는 사회봉사를 나열하면 노인대학, 알파, 아버지 학교, 아기 학교, 공홀사역(장애인 교회 방문 및 노숙인 식사 공급), 영어 강습반, 탈북민 사역 등이다. 이런 몇 가지의 사회봉사에 대한 문제점과 미비점들을 분석하고 보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2) 박종삼, *사회선교, 목회, 21C* (서울: 한들출판사, 2006), 21.

첫째, 백화점식 점포 나열식의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색을 갖추기 위한 봉사가 되다 보니까 깊이 있고 헌신적인 봉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둘째, 따라가기 식의 봉사라고 할 수 있다. 타교회가 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타교회가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본받고 따라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 지역에서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 현실에 부합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셋째,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우리의 실정과 현실 인식을 토대로 해서 진정한 사회봉사란 어떤 봉사인가? 사회봉사의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고찰하므로 해서 사회봉사의 당위성을 도출하고 '봉사공동체'의 신학적 근거와 교회론적 근거를 탐구 하므로 해서 사회봉사가 봉사 공동체적 근거에 의해서 진정성 있게 바르게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진정한 사회봉사로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까지 해오던 것이니까 라든지, 다른 교회와의 경쟁이 봉사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이제 경제, 사회의 전반적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봉사하는 공동체를 새로운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회봉사는 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고, 사회 변혁의 주체세력으로서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 위에서 사회봉사의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보고 그에 기초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목회적으로 구현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오늘날 세상 속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섬김이라는 것이다. 상업적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섬김이라는 단어는 매우 생소하고 어색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섬김이라는 개념이 매우 자연스럽게 유행이 되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된다.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한 변화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회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의 문제에 한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교회가 봉사와 섬김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존재로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 2 절 연구 방법과 범위

교회가 사회봉사를 위한 봉사 공동체가 되려면 신학적 근거와 교회론적 고찰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육신적 근거 위에서, 교회의 표지되는 디아코니아를 실천하고 표현하는 공동체를 추구해야 한다.

두 가지 질문으로 전체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진정한 사회봉사는 어떠해야 하는가?

둘째는 진정한 사회봉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즉 진정한 사회봉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첫째로 사회봉사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규명해야 한다. 둘째는 봉사 공동체에 대한 신학적 이론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사회학적 고찰을 통해서 오늘의 시대를 진단하고,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사회봉사가 진정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장은 서론 및 연구 동기와 목적에 대한 제시이다.

2장에서는 사회봉사의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의 사회봉사를 파악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사회봉사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 규범으로서의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봉사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교회론적 근거를 세우고자 한다. 신학적 근거를 밝히고 목회적 실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 철학의 확립과 시대 사회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교회론적 근거와 시대 사회에 대한 통찰을 양측으로 해서 목회적 근거를 세우고 조명하므로 지역 사회를 향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앞 장에서 논의하고 모색되었던 신학적 이론과 목회철학을 근거로 명성제일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본인이 목회하고 있는 수원 영통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지역의 역사적, 지형학적 특성과 사회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명성제일교회의 몇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행하고자 한다. 본 교회의 봉사 프로그램으로는 노인대학, 아버지학교,

알파코스, 아기학교, 영어교실, 탈북자 위로잔치, 가족캠프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네 가지를 택하여 평가 하고자 한다. 평가도구는 윌리엄 글라서의 선택이론에 입각한 5 가지 욕구 이론에 기초한 평가항목을 도입하여 목회적 유용성과 선교적 측면에서의 유용성을 파악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대안적 사회봉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교회에서의 사회봉사를 반성 하면서 3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다 본질적인 사회봉사 공동체로서의 교회상을 추구하고, 대안적인 사회봉사로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단순히 교회나 성도개인이 시행하는 전도행위라기 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목회철학과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한 비전으로서의 전도 방법론을 논하고자 한다. 그래서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가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고 봉사공동체와 섬김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론을 확립할 것이다.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동시대적인 공동체로서 국가 사회 앞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까지도 논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해서 다양한 전도의 방법론과 세상과의 접촉점이 마련될 수가 있을 것이다.

6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하였던 내용들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을 것이다.

제 2 장

사회봉사의 성경적인 근거

본 장에서는 '사회봉사'의 성경적인 근거를 고찰하고자 한다. 기독교 사회봉사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을 본질로 삼는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곁집에 관심을 가진다.³⁾

그래서 '사회봉사' 라는 말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봉사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할 때 '기독교 사회봉사'는 국가나 사회의 복지와는 다른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 사회봉사는 '교회의 사회봉사' 이므로 반드시 성경적인 근거에서 출발이 되어야 한다. '사회봉사'라는 표현은 신약성경의 디아코니아(diakonia)를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사회복지와 출발점이 다르다는 말이다.

제 1 절 구약에 나타나는 사회봉사

구약 성서에서의 사회봉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사회봉사의 정신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레 19:18)는 말씀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모두 사회봉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 사회봉사의 어원

사회봉사에 대한 어원을 먼저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아바드'라는 용어가 섬김과 봉사의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바드'라는 말에서 '에베드'(종)라는 말이 파생되었고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으로 268회 정도 사용되

3) 김한옥, *기독교사회봉사의 역사와 신학* (서울: 실천신학연구소, 2006), 19.

고 있다. 이런 언어의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섬김과 봉사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 사회봉사의 보편성 문제

여기서 우리는 먼저 사회봉사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정의를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구약의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대부분의 명령은 대상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시행하는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한 그 대상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구약에서의 사회봉사의 기초가 되는 말씀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레 19:18)는 말씀도 직접적으로 주어진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은 대부분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지켜야 할 '공동체적 윤리'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공동체적 윤리가 사회봉사와 과연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구약에서의 공동체 윤리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자국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도 풍부한 사랑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방민족에 대해서는 멀리해서 구별되어야 할 대상이고,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 할 대상 또는 진멸해야 할 배타적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적 윤리 속에서는 사회봉사는 매우 좁은 의미를 갖게 되고, 구약에서의 사회봉사 사상이 과연 보편성을 갖고 있는가의 의문이 대두된다.

여기에 대해서 김한옥은 구약의 명령의 대상을 '이방인을 위한 봉사'와 '자국민을 위한 봉사'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다.⁴⁾ 그 이유로서 구약성서에서 사용되는 '봉사'에 대한 용어들의 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구약에서의 봉사라는 용어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행위를 의미하거나 자유인이 스스로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대인 관계에서 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⁵⁾ 이것은 구약에서의 봉사 개념이 예배에 참여하거나 예배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구약성경에서의 봉사개념은 현대적 의미의 기독교 봉사와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다.

김한옥은 '자국민을 위한 봉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어진 종교 제도

4) 김한옥, *기독교사회봉사의 역사와 신학*, 101, 108.

5) Ibid.

와 법규(십일조, 안식일, 안식년과 희년, 고엘 제도)속에서 사회봉사적 의미를 찾고 있다. 또한 '이방인을 위한 사회봉사'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봉사의 대상으로서 이방인은 주로 이스라엘 역내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율법의 명령을 통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너희와 함께 하는 타국인”(레 19:34),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레 16:29)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거나 무시 되서는 안 될 것을 법으로 정해 놓으신 것이다.⁶⁾ 이스라엘의 가장 비천한 이방인들의 권리조차도 하나님의 보호아래 두셨고 법적 근거 없이 종살이하는 외국인을 압제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압제 하는 것과 같고, 이것은 하나님의 복수를 초래하는 것이다.⁷⁾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이방인을 위한 사회봉사 명령 속에서 사회봉사의 보편성을 분명히 찾아 볼 수가 있다. 황순환은 구약성경의 '사회봉사의 보편성'을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구약성서의 여러 곳에서 디아코니아 정신이 소개되고 있다.

구약성서에서 섬김과 봉사를 말할 때 주로 거론되는 단어는 '아바드'(服)란 동사이다. 아바드란 단어는 구약성서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구약성서의 맥을 이어간다. 아바드는 구약성서에서 종으로서 봉사하는 것과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아바드의 명사형인 '에베드'의 단어가 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혹은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섬김의 의미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께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과 자연까지를 포함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과 세상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⁸⁾

또한 김한옥은 하나님의 명령의 보편성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의 논점을 말해주고 있다.⁹⁾ 첫째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시며 도덕적 우주의 통치자이시라는 것이다.

6) 김한옥, *기독교사회봉사의 역사와 신학*, 102.

7) 박동현, “구약성서의 사회봉사,” 이삼열 편, *사회봉사와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120.

8) 황순환,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디아코니아 정신,” *선교신학* 5권 (서울: 한국선교신학회, 2002), 3.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보편성을 제시한다. 엘로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등의 이름은 하나님의 보편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수호신이 아니라, 전 세계 만유를 다스리시는 세계의 하나님이 되신다.¹⁰⁾ 셋째는 예언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편성이다. 특별히 ‘야훼의 종’의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보편성을 제시한다. ‘야훼의 종’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다(사 41:8-9). 야훼의 종의 활동영역은 이스라엘의 영역을 훨씬 넘어서 이방세계에 까지 이르게 된다.¹¹⁾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보편성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섭리와 구원의 계획을 바라볼 때 그 지평이 열린다고 할 수 있다.

교회 밖의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오늘 우리시대의 사회봉사는 이스라엘 역사로서의 구약에서는 그 의미를 찾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와 구원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는 전 세계를 향한 보편적 사회봉사의 틀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제사장나라로 선택하시므로(출 19:5-6)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 받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안에서 해석될 때만이 세상을 위한 보편적 사회봉사의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3. 사회봉사적 근거

사회봉사에 대한 구약성경의 근거는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세상을 이룸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양식에서 나타난다.¹²⁾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들은 이 언약을 토대로 신앙 공동체적 삶을 유지해 가기 때문이다.

구약성경의 율법의 핵심은 약자 보호법과 이웃 환대법이다. 이 정신에 의해서 출애굽이라는 구원사건이 일어났고,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대 절기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 3대 절기 에는 약자와 빈자들에 대한 돌봄의 규정들이

9) 김한옥, *기독교사회봉사의 역사와 신학*, 103.

10) Ibid.

11) Ibid., 107.

12) 박동현, *구약성서에서의 사회봉사 사회봉사의 실천과 봉사*, 127.

등장한다. 13)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봉사의 대상인 약자와 빈자는 주로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균등하고 공평한 생활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단순히 가난한자를 돕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구제다. 이렇듯이 전체적으로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 사회봉사 개념의 네 가지 기초

이방인을 위한 봉사든지, 자국민을 위한 봉사든지, 구약에서 보이는 사회봉사는 동일한 기초 위에서 세워지고 있다. 그 동일한 기초란 네 가지의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자비'(헤세드), 둘째 '사랑'(라함), 셋째 '정의'(미쉬파트), 넷째 '의'(차디크)이다. 이 네 가지는 다시 두 가지의 동일한 범주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자비와 사랑을 한 범주로 정의와 의를 한 범주로 묶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 김옥순은 두 가지 범주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해방 행동은 성서적으로 헤세드(자비)로 불렸고, 언제든지 구원하는 하나님의 개입은 체다카(정의)로 일컬어졌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이 그 자신의 정체성이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서 체다카와 헤세드는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인 것이다.¹⁴⁾

첫째 범주로 자비(헤세드)와 사랑(라함)은 구약 성경의 핵심 개념이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성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봉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등 밑바닥의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배려를 하고 있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보호자와 책임자가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¹⁵⁾

13) 박영호, *기독교사회복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53.

14) 김옥순, *디아코니아학* 입문 (서울: 한들출판사, 2010), 39.

15) 황순환,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디아코니아정신," 9.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네게 부르짖으면 내가(하나님)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출 22:21-24).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돕고 베풀고 나누는 사회봉사의 행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인간 자신의 의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지를 행하므로 하나님의 자비(헤세드)가 그 백성의 행위를 매개로 해서 전파되는 것이다. 구약의 사회봉사는 자기 선의 표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봉사적 행위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행위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라함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矜恤)로 번역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내려다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언급할 때 사용된다(시 103:13). 인간의 불쌍한 상태는 사회봉사의 정서적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 불쌍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사회봉사의 감정적 토대가 된다. 긍휼(라함) 속에는 연민과 동정, 관용의 개념이 포함된다. 이 긍휼의 개념은 절대적이면서도 자유롭다.¹⁶⁾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둘 때 하나도 남김없이 수확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해서(출 23:10-11)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얼마를 남길 것인가,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풀 것인가 하는 것은 이를 행하는 자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둘째 범주로 '정의'(미쉬파트)와 의(차디크)가 있다. 여기서 미쉬파트는 구약에서 400번 이상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고, '의'(차디크)는 히브리어 어간이 차다크(sadaq)라는 말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개념은 규범을 따른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을 의로운 분으로 묘사한다(사 45:21).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의로운 것이고(렘 12:1) 하나님은 의의 근원이 됨으로 그분의 모든 행위는 의로운 성품과 조화를 이룬

16) Everett F. Harrison, ed., *Baker's Dictionary of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0), 348.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법도와 명령은 그의 의로운 본성을 표현한다(신 4:8; 시 119:7).¹⁷⁾

이상으로 살핀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사회봉사의 네 가지 기초를 통해서 우리는 빈곤 속에 있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실천되는 것을 발견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가난과 불의를 제도적으로 다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려할 수 있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보호자인 하나님”¹⁸⁾ 이 되시는 것이다.

나. 법과 제도로서의 사회봉사의 근거

구약에서의 사회봉사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도와 제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계시이자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1) 십일조

구약에서 십일조는 본래 종교적인 목적으로 드러졌으나 후에는 사회봉사의 목적으로 드러졌다.¹⁹⁾ 그래서 십일조는 종교적 의미와 목적으로 드러지는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또한 레위지파의 생활을 지원해주는 용도로 사용되어졌다. 또 한 사회봉사를 위해서 드러지는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3년마다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드러지도록 명령하셨다. 이 때 드러지는 십일조는 레위인들, 고아, 과부 등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즉 십일조의 원래 용도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3년에 한 번씩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몫으로 사용이 된 것이다.²⁰⁾ 이와 같은 십일조의 사용의 예는 오늘날 교회의 재정 사용에 대해서 사회봉사적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17) Lawrence Richards, *Expository Dictionary of Bible Word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5), 418.

18) 김명용,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7), 90.

19) 김한옥, *기독교사회봉사의 역사와 신학*, 108.

20) Ibid., 109.

(2) 안식일 제도

안식일 제도는 십계명 중 제 4계명에 의해서 생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종교적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시행되어야 하는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사회봉사적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과거의 선조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과 나그네와 짐승까지도 쉬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명령은 고용주, 피고용인, 심지어는 일하는 짐승까지도 휴식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차원뿐 아니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들(종들, 나그네들)에게 심지어 짐승과 자연 환경까지도 안식의 대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엄격성을 말해주고 있고 이런 엄격성은 약한 자들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안식일 명령의 사회봉사적 차원에 대해서 김한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늘날 안식일 계명은 유대교의 전통에 있어서 종교적인 의무 이행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즉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이웃과의 연관성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클라우스 뮐러(Klaus Muller)는 유대인들의 안식일 전통에서 안식일 사상과 이웃에 대한 봉사가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²¹⁾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안식일 명령은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가진 힘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할 종교적 의무가 되지만,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과 힘없는 짐승들, 자연 환경에게 있어서는 쉬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안식일 명령은 사회봉사의 보편성 측면에서 중요한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3) 고아와 과부를 위한 제도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여겨졌다. 가나안 정착

21) 김한옥, *기독교사회봉사의 역사와 신학*, 112.

이전 이스라엘이 유목민 생활을 할 때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열악했다. 대개 여인은 자기 아버지의 집에 속해 있거나, 결혼 후에는 남편의 집에 속해 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은 생존 수단을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²²⁾

이러한 여인들에게 두 가지 제도가 주어진다. 하나는 수혼제도였다. 수혼제도는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 안정된 생활을 약속해 주었다. 또 한 가지 제도는 과부가 수혼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친정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의 제도가 있었을 지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형편은 그들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성경은 과부를 억압하지 말고, 정성을 기울여 보호하고 도와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²³⁾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자들에게 보호자가 없을 때는 친히 그들의 보호자로 행동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의 대변인으로 계시는 것이다.²⁴⁾

(4) 3대 절기에 나타나는 사회봉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무교절)을 제정하였다. 유월절 이튿날 추수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초실초부터 7주간이 지난날을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한다. 이 날은 보리를 거두어 들여서 첫 결실을 하나님께 바친다.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인데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추억하는 절기다. 이렇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절기가 된다. 이들 3대 절기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가치 경험과 추수와 나눔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 절기들은 어떻게 해서 사회봉사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삼대절기는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제물을 드리는 절기다. 그런데 추수한 것을 갖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추수중의 일부분으로 성중의 이웃들, 자녀와 노비 그리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하라고 명령하신다(신 16:10-12). 추수의 절기는 출애굽을 기념하는데 그 기념의 의미

22) 서인석, *가난한 사람들* (왜관: 분도출판사, 1998), 22.

23) Ibid., 23.

24) 김한옥, *기독교사회봉사의 역사와 신학*, 128.

는 이웃과의 나눔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특히 신명기에서는 추수의 사회적인 면을 강조하는데 신명기 14장 22-29절과 15장 1-18절은 각각 십일조와 먼제년을 통한 사회 보장제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구약 성경은 신명기 14장에서 십일조에 대하여 처음으로 거론하면서 십일조가 복지사상의 근본인 것을 말해준다.²⁵⁾

4. 맺는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회봉사의 근거를 요약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이해와 그의 피조물로서의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은 인간 존재가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생명과 사랑의 사귄 안에서 살도록 지어진 것이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삶의 안정성과 실존의 통일된 정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 사회봉사가 대(對) 사회적인 봉사라고 한다면 구약성경의 사회봉사는 분명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경계선을 넘어서 대외적으로 봉사를 한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은 사회봉사에 대해서 풍성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돌봄의 대상, 사회봉사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왜 그들을 도와야 하는가, 사회봉사가 어떤 방식으로 실천되어야 하는가 하는 사회봉사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구약성경은 사회봉사의 틀을 세우는데 있어서 큰 통찰력을 공급해준다.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드러나는 관심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공의의 실천이다.²⁶⁾ 기독교의 사회봉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정신 구조가 중요하다. 교회 공동체가 시행하는 사회봉사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을 가진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가치와 정신이 사회봉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있는 것이다.

25) 오늘날 교회의 십일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사예물로 규정하므로 해서 의무적인 사항이 되었고, 십일조의 사회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구약에서는 십일조의 사회적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6) 김한옥, *기독교사회봉사의 역사와 신학*, 145.

제 2 절 신약에 나타나는 사회봉사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의 영역에서 볼 때 보편적 사회봉사의 지평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떨까? 무엇보다도 계시의 완성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사회봉사의 근거와 모델을 찾아볼 수가 있다.

1. 사회봉사의 어원

신약성경에서 사회봉사는 디아코니아(Diakonia)라는 말로 표현된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총 34회 등장하고 있고, 디아코네인에서 나온 말이다. 이 단어는 섬김, 봉사의 뜻을 가지고 있다. 디아코니아가 신약성경의 핵심 주제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이 개념이 신약성경의 중심 주제인 사랑과 믿음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신약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집약되며 이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디아코니아적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이다.²⁷⁾

2.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회봉사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부터가 예수님의 사역을 예견해 주고 있다. 출생이전에 지어진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사회봉사를 위해서 특징 지워진 생애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세상에 봉사자로 오신 'Diakonos'이다.²⁸⁾

또한 천사가 붙여주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 주는 것으로 신적인 사회봉사의 사역을 예시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든 과정이 사회봉사적(Diakonic)인 것을 말해 준다. 예수님의 출생 장소도 말구유에서 태어 나셨고, 애굽에서 피난 생활을 하셨고, 변방 나사렛에서 성장한 사실들도 그 분의 생애가 결핍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과정과 경험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말해준다.²⁹⁾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27) 성종현, *말씀과 섬김, 하나님 말씀과 우리말 성경*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91.

28) 김한옥, *기독교사회봉사의 역사와 신학*, 152.

29) Ibid., 153.

서 드러나는 사회봉사적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가. 복음의 선포와 선포된 복음의 실천으로서 사회봉사

신약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사회봉사는 선포된 복음의 실천으로서 사회봉사가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서 전도와 봉사는 떼어 놓을 수 없는 실체였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계명과 복음의 핵심으로 가르쳤고 또 그렇게 실천하셨다(막 10:45; 눅 22:27). 예수님은 가르치면서 행동했고, 설교하면서 구원의 활동을 하셨다. 그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셨다. 이런 점에서 사회봉사는 말씀의 실천이요, 복음의 구체적 실현인 것이다.³⁰⁾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실천적 신앙이 사회봉사의 중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신약성경에서의 사회봉사적 근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백 마디 이론이나 관념보다도 실천이라는 것이다.

신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내용에서 복음의 실천성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요청이고, 명령으로 주어지게 된다. 예수님은 이 실천적 명령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한다(마 25:31-46; 눅 10:25-37).³¹⁾

예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복음(하나님의 나라)을 선포하므로 그들을 치유하였으며 그들이 더 이상 마귀의 권세가 아닌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머물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을 알리셨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그의 뒤를 따른다면 이미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나라를 맛보고 선취하는 것이다. 예수의 복음은 사회적인 현장성을 깊이 요구하고 특히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의 섬김의 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관심과 사랑을 것은 예수의 메시아 사역의 기본 출발이다.

누가는 소유로 인해서 같은 공동체안의 사람들 간에 계급분화가 이루어짐을 논박하므로 해서(눅 1:51-53) 차별과 불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에게 있어서 차별 사회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재산의 공정한 분배가 사회질서의 중요한

30) 박종삼, *교회 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서울: 인간과 복지, 2000), 17.

31)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으로서 종말에 있을 심판의 중대한 기준이 된다.’

원리임을 강조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의 나눔 정신 즉 필요가 있는 곳에 사명과 책임이 존재한다는 교훈을 말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는 가진 자의 책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런 나눔에 대한 책임을 깊이 의식하고 재물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실현인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삭개오다(눅 19:1-10).

예수의 가르침에 있어서 돌봄과 섬김은 특히 중요하다. 예수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비유에서(마 25:31-46),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에 의해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고 선포하셨을 때, 그것은 섬김의 돌봄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³²⁾ 김은수는 사회봉사의 하나님 나라 실천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사회봉사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뒤따름(Nachfolge)의 실천이며, 이로 통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선물로 도래하는 나라이다. 즉 하나님나라는 현존하는 실체인 동시에 미래에 성취될 하나의 약속이다. 따라서 그의 나라는 다시 올 것이며 현재인 동시에 미래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긴장이 발생한다.³³⁾

선포된 복음의 실천이 사회봉사로 표현이 된다는 것은 전인적 구원이 전제 되는 것이다. 영적, 육적의 이원론으로 구분된 구원관에서는 '사회봉사'가 복음의 실천이 아니라, 그저 육적 차원의 '봉사활동'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음 전파는 전인(Whole person)을 구하기 위함이고, 복음의 실천(사회봉사)도 역시 전인적이 되어야 한다. 전도가 선교전략으로 사용될 때 그 성경적 근거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1)의 말씀에 근거한다. 박종삼은 복음과 사회봉사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것은 신앙적(영적) 원칙을 깨닫고 예수를 믿으면 인간의 구체적 인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생긴다는 연역적 접근 방법(deductive

32) 윤철호, *IMF 시대의 교회와 목회의 패러다임* (서울: 한국통합신학학회, 1998), 9.

33) 김은수, *사회봉사와 하나님 나라* (전주: 선교신학회, 2002), 1.

approach)이다. 반면에 봉사가 선교전략으로 사용될 때는 구체적인 인간의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칙에 입각한 봉사를 제공하여 도움을 받게 되면서 이런 봉사 활동의 근원이 되는 복음의 원리를 찾게 되어 신앙을 갖게 된다는 귀납적 접근(inductive approach)을 선교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³⁴⁾

이 두 가지 관점은 전도(복음선포)가 먼저인가, 사회봉사가 먼저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부분이 전자(연역적 접근 방법)의 자세를 가지므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불신과 갈등 속에서 사회봉사의 순수성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후자(귀납적 접근)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봉사와 복음선포의 우선순위를 따지게 될 때 어느 한 가지는 종속이 될 수 가 있다는 것이다. 복음선포와 사회봉사의 적절한 관계는 사회봉사는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실천으로서의 사회봉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봉사가 복음선포의 도구가 되고, 종속적 위치에 있게 될 때 사회봉사는 교회확장의 도구가 되고,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사실 예수께서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행동은 우리 인간이 수용하고, 인정하기 이전에 이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므로 봉사를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는 사회봉사는 복음의 선포와 함께 그 복음의 실천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나. '약자에 대한 배려'로서 사회봉사

사회적 약자는 하나님 나라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약자에 대한 무관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 구약성경의 근거에서도 이미 살펴보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구약에서 법으로 제도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약자들의 신분 보장이고, 생활 보장이다. 이런 구약의 배경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더 구체적으로 강화되고, 보완이 되어서 나타난다.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과 가난한 자의 관계

34) 박종삼, *교회 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79.

를 하워드 스나이더는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임을 확인했다.³⁵⁾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그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사야 61장을 인용하므로 해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가난한자들, 힘없고, 병든자들 즉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계신 것이다.

둘째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자가 그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때 더욱 준비된 상태인 것을 믿었다.³⁶⁾ 이 말은 세상의 지식이 많고 교육을 받은 사회의 지식층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어린 아이 같이 순진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빨랐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약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고, 받아들여지므로 해서 사회적 약자들과 원활한 소통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을 보이라고 하셨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가난한 자에게 특별한 긍휼을 베풀고 있다.³⁷⁾ 그분은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분이면서도 가난한 자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가지므로 해서, 의도적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 교회를 향해서도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회봉사적 행위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종말론적 메시야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의 사회봉사적 근거에서 살펴본 바대로 구약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미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법과 제도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외식과 형식으로만 남아있는 죽은 법이고, 죽은 제도였다. 이런 구약의 현실 앞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으시므로 해서 종말적 메시야의 실현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스나이더가 제시하고 있는 ³⁸⁾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내용은 누가복음 4장 18-21절에서 예수

35) Howard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The Problem of Wineskins)*,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0), 39-40.

36) Ibid., 39.

37) Ibid., 40.

38) Ibid., 39.

자신의 말씀으로서 인용이 되고 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눅 4:18-21).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그리스도의 메시아 됨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다.³⁹⁾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 되고, 가난한 자가 관심과 배려의 대상이 되고, 되었다는 이 사실이 종말론적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성경은 가난한 자를 위시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복음이 실천되는 것은 세상의 사회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가 표현되고 실천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그리스도의 사회봉사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고, 이것은 종말론적 계시의 사건으로 간주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37-40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어느 계명이 큰가?'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므로 대답을 하고 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5).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레 19:18).

이 말씀은 과거 구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계시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실천되지 않았고,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성경에서 제일 크고 핵심적인 구약의 두 계명인 신명기

39) 이순환, *누가복음강해* (서울: 한국기독교교육 연구원, 1995), 158.

핸드릭슨은 예수께서 인용하신 이 예언은 화자(話者)이신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밝히고, 이미 예수께서 기름부음을 받으시고 성별되셨으니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실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며, 고통당하는 자들은 회년의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뜻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적은 그저 지식 전달에 그침이 아니라, 그 내용을 받아들이라는 권고와 초대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40절에서 언급하므로 해서 두 계명을 완성시키고 계신 것이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양대 기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봉사적 계시 안에서 성취되고 실천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 하나님 나라의 계시로서의 사회봉사

예수님께서서는 사회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셨다. 그가 세상에 오심은 인간을 고통과 파멸에서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신 것이다. 40)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사회봉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시고, 확증하는 삶을 사셨다. 그 사회봉사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다. 둘째는 선포된 하나님 나라를 실증하셨다. 그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기적을 베푸므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을 보게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회봉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늘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교회의 사회봉사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김은수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가 가르치고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기쁜 소식(Good News)이 되고 복음(Gospel)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보여주신 중의모습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말씀과 행위가 연결되고 입으로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이제한국에는 예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디아코니아, 즉 기독교 사회봉사다. 41)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사회봉사 행위로써 계시하고 그의 가르침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의 전망을 제공해준다. 데럴 왓킨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42)

40) 김한욱, *기독교사회봉사의 역사와 신학*, 151.

41) 김은수, *사회봉사와 하나님 나라* (전주: 선교신학회, 2002), 1.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은 우리가 사회봉사라고 부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영적인 차원도 다루고 있다. 죄의 용서와 영생을 말하는 복음이 일차적인 기독교의 메시지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희망만 있고, 현재 생활 속에서 신체적, 정서적, 관계적 문제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미완성의 복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는 영원한 문제들에 관해 가르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의 현재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복음선포와 사회봉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 의 문제를 제기해주고 있다. 1960년대 한국 교회가 사회봉사 활동을 할 것인가? 논쟁으로 개인 구원과 사회구원의 대립은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발전되어 나갔다.⁴³⁾

복음 선포와 사회봉사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어왔지만 1982년 WCC 로잔 위원회가 내놓은 그랜드 레드피즈 보고서에 따르면,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상호 구별되면서도 또한 상호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동반관계 내지 결혼관계 즉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상향나선 가운데 서로를 지지하며 강화한다⁴⁴⁾고 했다. 남정우는 복음 전도와 정의실현(사회봉사)은 같은 것이 분명 아니다. 하지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전도와 사회봉사는 반드시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선교현장에서는 세상에 대한 적대관계, 영혼과 몸의 이분법, 개교회주의와 교회성장주의, 그리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사유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바른 선교를 위해서는 이런 현상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⁴⁵⁾이라고 한다. 박종삼은 성경에서 제시된 복음(하나님 나라 선포)의 내용을 사회봉사적 측면에서 고찰하면서 세 가지의 요소 즉, 생명과 사랑과 섬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생명사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다고 한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성경의 중심 사상은 인간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핵심은 생명이다. 창조사역대속의 사역도 역시 인간의 생명 구원이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 스스로를 생명과 연관된 비유(생명의 떡, 생명의 물, 길과 진리와 생명)를 하셨다⁴⁶⁾고 한다.

42) Darrel R. Watkins, *기독교사회봉사입문*, 노영상 역 (서울: 쿰란출판사, 2003), 117.

43) 박종삼, *교회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86.

44) John Stott,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한화룡 역 (서울: 두란노 서원, 1982), 13.

45) 남정우, *선교란 무엇인가?* (서울: 세키나, 2010), 166.

46) 박종삼, *교회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80.

둘째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을 통해서 계시된다는 것이다. 생명의 창조에서 사랑이라는 조건이 주어질 때 생명다워지며 생명이 번창하게 됨을 전제로 하였다.⁴⁷⁾

셋째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시된다는 것이다. 굶주린 생물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여줄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섬김이 선교의 주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먹여주는 봉사의 행동 곧 복음의 실천이 선교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⁴⁸⁾

데이비드 보쉬도 복음은 항상 초청이다. 복음화하는 것은 기쁨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것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복음은 감언으로 유혹하는 것 또는 지옥의 공포 이야기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여 회개케 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지옥의 두려움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도되어야 한다.⁴⁹⁾ 고 했다. 박종삼은 “성경의 중심사상은 생명과 사랑을 연결시키는 봉사 곧 섬김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섬김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사랑도 울리는 썩과리에 지나지 않는다”⁵⁰⁾고 강조하므로 교회의 사회봉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근원되는 생명과 사랑의 풍요함을 핵심적인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세상의 사회봉사’와 ‘교회의 사회봉사(디아코니아)’가 다른 점은 교회의 사회봉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과 동기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달리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계시하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곧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단지 선포만하는 기관으로서 존재한다면 실천하고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부재하게 된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 차원 즉, 완성될(not yet) 미래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와 우리 가운데 이미(already) 시작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계시로서의 사회봉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이

47) 박종삼, *교회 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81.

48) Ibid.

49) David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61.1

50) 박종삼, *교회 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87.

루어가고 보여 주어야 할'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만이 선포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할 사회봉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되어야 하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현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사회봉사의 영역은 국가 사회나 타 종교기관이나 세속 기관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 세속적 기업들이 앞서서 복지를 부르짖고, 사회봉사를 부르짖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사회봉사를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고 하는 중요한 위치에서 보지 않고, 교회확장의 수단으로, 삼거나, 덜 중요한 위치에 두므로 해서,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적 행위를 통해서 분명히 사회봉사가 복음선포에 못지않게 중요한 계시의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사회봉사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서의 중요한 위치가 회복될 때 보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초대교회에서의 사회봉사의 위치

초대교회 시대는 예배와 봉사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즉 전도와 봉사라고 하는 복음의 양면성을 잃지 않고 있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나 병든 자들을 위한 구제가 주된 관심사였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과의 공동 식사는 성만찬의 일부가 되었다. 구제 대상은 주로 신앙인들이었고, 성직자들은 자선을 통해서 가난한자들을 돕도록 가르치는데 주력했다. 이 당시에는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가 없던 시대이므로 교회가 복지를 제공하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초대 교회에서는 복음전도와 구제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일꾼 집사를 선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본래 모든 교회 구성원들에게 부과되었던 봉사의 사명이 집사(diakone)와 여집사(diakonisse)의 직무로 나타나게 된 것은 직무상의 서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의 구분이었다. 집사란 용어는 전체 공동체의 봉사의 개념에서 발전한 용어이다.

신약성서에서 가리키는 집사는 직분(office)이라는 개념보다는 봉사의 개념

51) 김성철, *교회 사회 복지 실천론*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3), 57.

(service)을 강하게 나타낸다. 데릴 왓킨스는 '기독교인들은 사회봉사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그 근거는 구약성경의 윤리적 가치와 신약성경의 범세계적 가치인 아가페 사랑이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다.⁵²⁾ 감독은 집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봉사활동을 지도했고,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개종이 이루어지면서부터 교회의 전유물이었던 사회봉사를 국가가 담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황제는 로마제국 내 교회의 모든 사회사업의 뼈대를 모든 조직형태와 함께 자기의 역할로 전환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봉사를 위하여 국가의 많은 인원과 물질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특히 가톨릭교회의 '행위로 인한 구원 사상'은 사회봉사의 확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고, 고아와 과부, 질병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갇힌 사람들, 나그네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⁵³⁾

그래서 초대교회 사회봉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생활에서 구제와 공출사업으로 나타나고 이런 사회봉사의 실천은 초대교회가 성공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로 교회사학자들은 들고 있다. 당시 교회의 재정은 감독과 성직자에 대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서 사회봉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여겨졌고, 신앙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졌던 것을 볼 수 있다.⁵⁴⁾

4. 맺음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선포(kerygma)와 교육(didake) 그리고 봉사(diakonia)로 구분할 수 있다. 그는 공생애 3년 동안 말씀 선포하고, 전하고, 치료하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였다. 이 세 가지 사역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로 구원하시기 위한 섬김의 사역이라 말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가난 자체에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

52) Derrel Watkins, *기독교 사회봉사 입문*, 노영상 역 (서울: 쿤란출판사, 2003), 34.

53) R. M. Grant, *초기 기독교와 사회*, 김쾌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144.

54) 김성철, *교회 사회 복지 실천론*, 58.

셨다(눅 6:20). 또 한 예수는 그의 선포와 행위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과 동일시한다.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눅 12:16 이하)와 부자청년의 에피소드(마 19:16 이하)에서,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눅 16:19 이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예수의 선포를 듣는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기가 더 쉽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막 4:19). 또한 예수는 병든 자들을 치유해준다. 그렇다고 예수의 선포가 가난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예수는 건강한 사람, 의인, 부자들이 아니라 죄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이들에게 그의 나라를 약속한다.

세리와 죄인들과의 식탁교제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행위, 귀신축출, 치유행위 등 예수의 디아코니아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이다. 신약시대의 교회에 있어서도 그들의 임무와 보냄의 과제 그리고 예수의 디아코니아와 하나님의 관심은 일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자들의 부름에 있어서도 예수의 전권이 그들에게 위임됨과 동시에 전적 섬김이 요구된다. 또한 디아코니아를 위한 제자들을 부름에 있어서 구약성서에 상응하는 표현이 새로운 명령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봉사의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은 섬김과 봉사가 요체가 되는 사회봉사와는 결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요약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성경적 근거를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사회봉사를 주체적으로 시행할 봉사 공동체에 대한 신학적 탐구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3 장

봉사 공동체에 대한 신학적 탐구

2장에서는 '사회봉사'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고찰하였다. 본 장에서는 '봉사 공동체'로서 사회봉사를 수행하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적 성격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사회봉사'의 성경적 근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당위적인 성격을 규명했다고 한다면 '봉사 공동체'는 그 명령을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행 할 것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해서 비판적 고찰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자 한다. 그리고 봉사 공동체의 교회론적 고찰을 통해서 봉사 공동체가 대(對) 사회적으로 지녀야 할 다양한 공동체적인 고찰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교회는 대 사회적 공동체로서 사적 조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 독특성과 신학적 기반에서 출발했다. 그서 교회는 영적이고, 진지한 성격을 지닌 강력한 봉사 공동체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를 향해서 전도와 선교와 봉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의 존재론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상과 사회를 섬기는 존재로서 균형을 잃지 않고,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켜 나가는 공동체성을 추구할 수 있다.

제 1 절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 교회가 오늘날 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와 고립된 이기적인 집단으로 자리매김 되어졌기 때문이다.⁵⁵⁾ 여기서 '자리매김' 되어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이기적 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그렇게 인식이 되고

55) 조성돈, *교회의 신뢰회복을 통한 한국교회의 공공성 확립, 공공신학-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섬김에로의 초대* (서울: 예영, 2009), 105.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한국교회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사회봉사에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례로서 월드 비전이라든지, 컴패션, 헤비타트, 굿네이버, 국제기아 대책기구 등 수많은 기관들이 사실은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복지사의 50퍼센트가 기독교인이고, 사회 복지시설의 숫자에서도 개신교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북관계 사역에 있어서도 개신교를 따를 것이 없다. 그럼 왜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고 있는느냐? 하는 것이다.⁵⁶⁾ 먼저,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하고, 대안적 교회로서의 봉사 공동체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1. 교회 성장주의

교회 성장위주의 목회 철학, 성장위주의 프로그램, 교회 확장위주의 사고방식은 결국 진정한 사회봉사의 결핍으로 나타나게 되고, 교회간의 경쟁과 갈등의 구도를 가져오게 된다. 교회는 성장 신드롬에 붙잡혀서 '전도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다. 이 전도 이데올로기의 특징은 이분법적 사고다. 세상은 항상 악하고, 사탄에게 소속되어있고, 교회는 선하고 거룩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 오는 것만이 최고의 신앙이고, 교회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일로 여겨졌던 것이다.⁵⁷⁾ 이러한 성장위주의 목회와 신학은 과거 선교 신학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다. 교회의 확장주의 철학이 이미 서구교회의 선교신학 속에 내재 되어있었다는 것이다. 호켄다이크는 그의 *흘어지는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거의 선교(전도)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고찰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과거의 선교는 국민의 기독교화를 선교로 인식했었다는 것이다. 19세기에 많은 신학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 수는 없다. 기독교 신앙은 공중에서가 아니라 기독교화 된 생활의 기반 위에서만 형성될 수가 있다.⁵⁸⁾

56) 조성돈, *교회의 신뢰회복을 통한 한국교회의 공공성 확립, 공공신학-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섬김에로의 초대*, 106

57) Ibid.

58) J. C. Hoekendijk, *흘어지는 교회 (The Church Inside Out)*, 이계준 역 (서울: 기독교서회, 1990), 12.

호켄다이크는 서방의 기독교회가 선교하고자 했던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고, 기독교적 세계였다. 선교사들은 이 기독교적 세계를 전파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의 지침이 될 수가 없다⁵⁹⁾고 단언한다. 한편 데이비드 보쉬는 전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전도란 단순히 객관적 진리의 선포가 아니라, 에밀 브룬너(Emil Brunner)가 언급하는 대로 ‘만남으로서의 진리(Truth as Encounter)’의 선포가 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개인은 전도의 대행자 일뿐 아니라, 그 자신이 메시지의 일부분이다. 교회의 신뢰성은 교회의 복음적 활동의 성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증언이 타당하고 내용이 있게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⁶⁰⁾

좋은 주택가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빈민 지구의 가난한 대중들에게 복음 설교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일종의 전도 여행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지 않고는 계속 될 수 없다. 만약 만남에로의 진리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스스로 그들의 메시지의 일부가 아니라면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⁶¹⁾ 호켄다이크와 데이비드 보쉬는 이미 서구의 선교 속에서 전도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진정성 없는 전도나 사회봉사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회 개척과 성장을 선교의 궁극적 목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적 교회 중심적 선교관은 중심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正道(正道)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교는 교회의 부속적인 활동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⁶²⁾

2. 세상(지역사회)과 소통이 없는 교회

교회는 복음 이해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소통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에 너무 많은 관심을 빼앗긴 나머지 복음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얻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⁶³⁾

59) J. C. Hoekendijk, *흘어지는 교회*, 13.

60) David Bosch, *선교신학*, 전재욱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5), 31.

61) Ibid., 31.

62) 박종삼, *사회선교, 목회, 21C*, 48.

여기서 로버트 웨버는 두 가지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복음이나, 복음의 대상이냐? 이 양측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관심사가 어디에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한 가지를 놓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상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서 복음 전도의 소통도 항상 같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내용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복음이 효율적으로 소통 되려면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⁶⁴⁾ 오늘날의 사회가 변화와 함께 교회의 변화도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복음을 전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변화에 걸맞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안에서 자신을 소통하신다.

특히 성육신을 통한 소통은 하나님의 계시의 소통에 있어서 최종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다. 그분의 자기 계시의 절정은 성육신 안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낮아짐의 행위로서 그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가 되셨고, 우리와 대면적 관계로 소통을 하시게 된다. ⁶⁵⁾ 그래서 예수는 소통의 모델이 되신다. 오늘의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과 소통이 없다는 것이다. 세상을 전도의 대상으로, 정복의 대상, 영적 싸움의 대상으로 보는 한 거기에는 소통이 없고, 일방적 정복과 그에 대한 거부 반응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유의웅은 한국 교회의 도시화 물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도시화 현상에 따라 도시교회에 나타나는 우려할 만한 문제점은 도시의 위기적 상황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 내지는 방관적 태도이다. 이러한 방관적 태도는 결과적으로 교회가 도시의 모습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교회의 모습을 재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교회는 도시화된 지역사회 안에서 더 이상 인간을 구원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도시사회의 세속적인 사고와 문화의 노예가 될 것이 확실하다. 교회는 도시의 황폐화를 촉진시키고 도시의 신앙적, 영적 파산에 기여하게 되고 말 것이다.⁶⁶⁾

한국 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완전히 분리해

63) Robert E. Weber, *그리스도교 커뮤니케이션 (God still Speaks)*,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5), 21.

64) Ibid., 32.

65) Ibid., 92.

66) 유의웅, *한국교회와 사회선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6), 318.

놓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만 치중해 왔다는 것이고 지역사회는 마치 교회를 위해 존재하며, 모든 선교활동은 교회중심이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교회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한국 교회가 이토록 편협한 선교관을 갖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교회가 선교를 복음 전도와 개인 영혼 구원, 교회 건립과 성장 등의 매우 단순한 차원으로만 이해해 왔기 때문이다. 이성희는 이로 인해서 생기는 역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교회를 모이는 교회의 구조 (구원의 방주)적 신앙을 탈피하지 못하게 된다. 성과 속의 이분법적 사고를 갖게 되고, 종교의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가져오게 된다. 둘째, 선교를 전도로만 이해하면 개교회주의가 강화된다. 셋째 선교를 전도로만 이해하게 되면 성공의 척도를 가시적 숫자와 물량에 두게 된다. 넷째, 선교를 단순히 전도로만 이해할 때 교회는 성장제일주의를 표방하게 되고 교회의 사회적인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된다.⁶⁷⁾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지역사회 이해의 새로운 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므로 선교의 주제는 지역 주민의 전인적 생명을 보호하고 온전케 한다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인으로서의 주민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생명을 포용하고 성장 발달시키는 장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지역 사회를 분명히 사랑하셨고 몸된 교회를 지역사회 안에 세우셨고 교회는 지역을 위해 세움을 입은 사역의 공동체이며 지역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핵심적인 사역은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섬김을 통해서, 지역의 요구를 위해 실제적인 희생과 봉사로 사랑을 나타내어야 한다.⁶⁸⁾

3. 교회의 갈등과 분열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회를 얼마나 섬기느냐? 하는 봉사가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파워를 소유하고, 형성하느냐? 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봉사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가진 공동체로서 사회봉사를 하느냐? 가 중요한 것이다. 즉 봉사공동체로서 올바른 자세와 정체성을

67) 이성희, *미래목회 대 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296.

68) 유의웅, *한국교회와 사회선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6), 321.

가지고 사회봉사를 할 때 그것이 진정성 있는 사회봉사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사회봉사가 성장과 확장의 도구이고, 하나의 이용 수단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았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고, 선한 사역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런 사회봉사가 기존의 교회 공동체가 행하게 될 때는 자기 세력의 확장의 도구로 변질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 성(性)'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추론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공동체성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 하게 된다.

'한국교회의 공동체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심성적 바탕을 이루고 있는 배경을 역사적, 문화적으로 조명해야 할 것이다. 권문상은 한국교회의 이러한 공동체성의 문제를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한국인의 심성 속에 있는 무속적 세계관과 유교적 가족 문화가 그것이다.⁶⁹⁾ 권문상은 “무속적 세계관을 가족중심의 세계관으로 설명한다. 무속 신앙의 핵심은 가족중심의 기복문화이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 외에는 관심도 없다. 그 속에서는 이타적이고 윤리적인 의식이 자라날 수 없다”⁷⁰⁾고 한다. 이런 반공동체적인 이기주의 문화의 원인을 그는 무속신앙의 신관(神觀)에서 찾는다. 그 무속신앙 에서의 신(神)은 연약한 인간을 협박하고 혼내주면서 사는 속좁은 심술쟁이와 같다. 그러나 굿을 하고 자기 비위를 잘 맞추면 금방 풀어지는 그런 신이다. 그래서 그 신은 두려우면서, 상거래적인 존재이고, 또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⁷¹⁾ 이런 무속신앙의 뿌리는 그 후에 유입된 불교와 유교, 기독교 가운데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신관을 토대로 한국인의 공동체성은 자연히 가족중심의 현세주의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무속신앙의 뿌리는 교회 안에서 '저급한 예배의식'으로, '혼합주의 신앙'으로, '윤리의식의 부재'로, '반공동체적 가족 이기주의' 모습으로 발견이 되고 있다.⁷²⁾

결과적으로 권 교수는 한국사회와 교회 내에서 나타나는 갈등구조는 무속종교에 토대한 종교적, 심리적 원인과 환경적으로 지정학적인 영향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

69)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서울: 브니엘, 2006), 75.

70) Ibid., 78.

71) Ibid., 79-84.

72) Ibid., 89-100.

하면서 이러한 한국인의 심성에 더 큰 영향을 가져온 것이 유교의 등장이라고 한다. 유교는 오백년 이상 우리민족의 삶을 지배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권문상은 유교의 지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족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육을 먹는 정도였지만 유교국가가 된 이후에는 가족주의적으로 살지 않으면 거의 죽음을 요구당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더 나쁜 것은 이 가족주의로 수직적 윤리체계를 정당화해 기득권층의 배만 불리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시켰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갈등 구조를 심화시켰고, 한국교회의 갈등과 분쟁의 중심적 기초가 되었다.⁷³⁾

가족주의, 혈연중심의 사상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유교의 행태는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면서 중국과는 다른 형태로 발전이 되어갔다. 중국의 경우는 도교와 혼합되면서 개인적 성향이 강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오직 유교의 강력한 영향권아래 있게 되면서 중국의 유교보다도 훨씬 유교적이 됐다는 것이다.⁷⁴⁾

이러한 유교의 뿌리는 우리사회에서 몇 가지 폐습적인 현상을 야기시켰다. 첫째가 조상숭배 사상이고, 둘째 가족주의다. 이러한 현상들은 본질상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은 더욱 더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다.⁷⁵⁾ 이렇게 유교적인 해악으로 끼리끼리 똘똘똘 치는 사회현상들이 거의 모든 분야, 정치, 경제, 교육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역사의 고질적인 병폐로 손꼽히는 사색당파라든지, 학벌주의, 지역차별, 획일주의, 평등주의와 같은 현상들이 다 이러한 유교의 뿌리에서부터 나온 것을 알 수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인 병폐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맹렬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한국교회의 해묵은 문제가 하나 되지 못함의 문제가 아닌가? 크게는 교단간의 갈등, 장로 목사간의 갈등, 교인과 교인끼리의 분쟁 등 이런 많은 병폐들의 근원에는 유교의 집단 이기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73)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122.

74) *Ibid.*, 132.

75) *Ibid.*, 151.

4. 맺는말

이제는 교회가 교세로서 평가 되서는 안된다. 성장위주, 확장 위주의 목회와 선교 자세는 한국 교회가 과거 사회적 소수로 존재할 때는 매우 긍정적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사회적 소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장로 대통령이 두 번이나 출현했고, 더 이상 한국 사회는 교회를 사회적 소수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높은 문턱과 파워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랬을 때 확장 일변도의 전도 이데올로기와 성장 신화는 사회 속에서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부정적 역할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⁷⁶⁾ 문제는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교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세가 무엇을 위한 교세가 되어야 하느냐를 질문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교회 성장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사회봉사가 교회 성장 및 확장의 도구로 머물러 있는 한 교회는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교회론적 틀(paradigm)의 변화가 요청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봉사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봉사'를 수행하는 교회가 '봉사공동체'로 세워 지지 않고, 전통적인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수단으로 사회봉사를 하기 때문인 것이다.

제 2 절 봉사 공동체의 교회론적 고찰

1. 공동체의 정의

이 절에서는 교회론적 고찰에 앞서서 먼저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공동체란 무엇인가라는 공동체의 정의는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에서부터 도출될 수 있다. 공동체 출현의 기본 동기는 퇴니스의 본연의지(wissen-wille) 개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인간은 왜 더불어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퇴니스는 "그것이 인간의 타고난 성향 즉 본연 의지"⁷⁷⁾라고 답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함께 살아가면서 고독을 달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타인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한다는

76) 조성돈, *교회의 신뢰회복을 통한 한국교회의 공공성 확립, 공공신학-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섬김에로의 초대*, 106.

77)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서울: 아카넷, 2001), 177.

것이다. 이런 현상은 계산된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이고, 본능적이라는 것이다.⁷⁸⁾ 즉 공동체라는 것은 인간이 있는 곳이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는 의사소통을 만족시키려는 욕구로 인해서 도시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인구가 과밀도화 된 도시를 만들므로 해서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화의 과정에서 너무나 큰 대도시의 출현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간 스스로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⁷⁹⁾ 현대사회에 와서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컴퓨터라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충족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사이버공간의 소통도 현실공간의 공동체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공동체 해체론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의사소통의 욕구가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공동체는 지속이 될 것이다.⁸⁰⁾

한편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유영권은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기독교에서 믿는 신에 대한 속성자체가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⁸¹⁾고 한다. 기독교의 공동체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자체가 이미 공동체적인 분이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어떤 속성을 지녀야 하는가를 추론이 가능하게 된다. 즉 인간 자체가 공동체적 존재이고, 성경이 말해주는 기독교 공동체는 이미 신의 속성부터가 공동체적인 것을 말해준다. 즉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주변의 세상과 소통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교회 공동체와 소통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개연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유영권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와 유리되고 고립된 이기적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반성해본다. 그리고 교회공동체의 여러 모습 가운데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당장 필요한 디다케

78)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177.

79) 이종수, *한국사회와 공동체* (서울: 다산출판사, 2008), 39.

80) Ibid., 40.

81) Ibid., 44.

와 케리그마의 기능은 강조되었지만, 봉사하는 디아코니아의 모델과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⁸²⁾

2. 사회봉사를 위한 공동체성

앞부분에서는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서 진정성 없는 사회봉사의 원인이 성장위주, 확장위주의 교회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봉사공동체의 성격적인 근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사회의 관계성을 규정할 수 있었다. 즉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다. 교회의 사회 참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이웃사랑의 실천이다.⁸³⁾ 교회의 사회 참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적극적인 표현이 된다. 즉 하나님 나라의 구현은 전도와 선교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적극적 사회참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임성빈은 “권력은 사회참여를 논할 때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된다. 권력의 형성과 배분, 행사는 사회 참여 과정에 다름이 아니다. 이 때 신학은 사회 참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⁸⁴⁾고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은 교회의 사회 참여는 신학에 의해서 인도되고, 올바르게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가. 도덕성이 있어야 함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현대의 공동체 이론가들은 공동체를 물리적 차원의 조건과 관계없이 사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의 망으로 인식한다. 이런 관점에 따라서 공동체 개념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의식과 생활양식을 통해 결속감이 증대된 사회집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공동체는 특히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도덕집단을 뜻한다. 일찍이 에밀 뒤르케임(Emil Durkheim)은 “교회는 성직자들의 집단이 아니라 단일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이들에 의해서 구성된 도덕 공동체인 것”⁸⁵⁾이라고 한다.

82) 유영권, “21세기 기독교공동체의 비전,” *한국사회와 공동체* (서울: 다산출판사, 2008), 46.

83) 임성빈, *한국교회의 사회참여와 공공신학-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접근으로의 초대* (서울: 예영, 2009), 15.

84) Ibid.

나. 개방성이 있어야 함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원인중의 하나는 사회와 소통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상대방을 단순히 전도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절대 진리를 수호하는 입장에서는 전도의 대상자와 타협하기 어려우며 도덕적 우월감으로 상대를 낮잡아 보기 쉽다. 이런 입장에서는 넓은 사회의 지평을 바라 볼 수가 없다. 그리하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교회생활에 열심일수록 사회에 대한 의식 수준은 더 떨어지는 기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⁸⁶⁾ 그러므로 교회가 책임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의식은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여야 한다.⁸⁷⁾ 교회의 사회참여는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모든 집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회 운동이나 의사표현이 단순히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다.⁸⁸⁾

한국교회가 역사적으로 결코 작지 않은 봉사과 역할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편향된 것이고 그 원인은 성장 신학에 근거한 확장적, 전투적 이미지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과 함께 교회를 향해서 주어지는 대안은 봉사 공동체라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제 도덕공동체로서의 공공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사회의 한축으로 주체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장(praxis)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⁸⁹⁾ 한국교회의 신앙의 실천은 이제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야 한다.

다. 역사적 모델-영국교회의 경우

웨슬레 형제가 18세기 옥스퍼드 대학에서 시작한 공동체 모임은 당시 영국 사회를 향해서 대안적인 공동체로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웨슬레 공동체의 일차적

85) 정재영, *한국교회의 공공성회복을 위한모색, 공공신학-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섬김에로의 초대* (서울: 예영, 2009), 176-7.

86) Ibid., 188.

87) Ibid., 189.

88) Ibid., 186.

89) Ibid., 107.

인 목적은 규칙적 경건 생활이었다. 이 공동체 운동의 특징은 개개인의 '성화'와 '온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성화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영성의 관계라고 한다면 '온전'이라는 것은 수직적 영성에 기반에서 출발한 수평적 영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⁹⁰⁾ 즉 영국의 웨슬레의 공동체 운동은 교회의 부흥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영국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대안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수직적 영성 운동은 1740년대에 요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시작되고 조지 윗필드의 부흥운동과 일치함으로 대각성운동으로서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⁹¹⁾ 그 후 1800년대 초에 2차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 때 일어났던 영적 각성운동은 미국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 시대 대표적 인물이 찰스 피니였다. 그는 영국 웨슬레 공동체와 일치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성도의 '온전'을 주장하는 것이었다.⁹²⁾ 특히 그는 사회개혁 운동에 영향을 미쳤고 당시 노예매매 제도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여권 신장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런 결실은 수직적 영성에서 출발하여 수평적 영성으로 결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건주의자들도 무엇보다 경건의 실천을 신앙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여겼다. 그들은 경건이라는 것이 단지 형이상학적인 무엇이나 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서만 행해지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삶 전체에서 경건이 나타나야 하며 모든 삶이 곧 경건을 훈련하는 장으로 생각했던 것이다.⁹³⁾

3. 교회의 표지로서 봉사공동체: 디아코니아

오늘날 교회론은 상황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성에서 교회론이 만들어 진다. 이런 맥락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검토해 볼 수가 있다.⁹⁴⁾

본회퍼에 따르면, “교회는 남을 위해서 존재할 때에만 비로소 교회다 교회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운 곳”⁹⁵⁾이라고 말한다. 이런 교회론

90) Walter Von Loewenich, *Der Geschichte DerKirche* (Luter Verlag: Witten Ruter, 1962), *Methodism*, 홍치모 역, 72.

91) William W. Sweet, *미국교회사*, 김기달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158.

92) 홍치모, “영성운동의 역사적 고찰,” *신학지남* (1989 봄), 74.

93) 조성돈, *교회의 신뢰회복을 통한 한국교회의 공공성 확립, 공공신학-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섬김에로의 초대*, 108.

94) 임희모, *한국교회의 일치, 갱신, 선교* (서울: 한들출판사, 2003), 113.

95) Diethrich Bonhoeffer, *옥중서신*, 허혁 역 (서울: 기독교출판사, 1983), 103.

적 전제를 토대로 해서 봉사 공동체가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봉사'는 '봉사 공동체'의 정체성과 성격을 규정하는 표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가. 하나님 나라의 표현으로서 봉사 공동체

우리가 사회봉사의 신약 성경적 근거에서 살펴본 것 중의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봉사'를 시행하는 '봉사 공동체' 또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봉사를 감당하셨다. 한 가지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므로 약한 자와 불행한 자들을 위해 봉사하신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정의와 살림을 선포하고 가르치셨다.⁹⁶⁾ 사실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도 하나님 나라 선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임희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 사회봉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참조하여 사회봉사적 교회론을 창출할 수가 있다. 현대적 사회봉사적 교회론은 하나님의 선교신학의 교회론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선교 신학의 등장으로 교회는 종의 모습과 섬김의 모습을 강조하게 되었다.⁹⁷⁾

이 말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교회는 종의 모습으로 서게 될 때 진정한 섬김과 봉사의 자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에 있어서 교회가 종의 모습으로 서지 않고, 자기실현의 도구로 삼게 될 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종의 모습 속에서 만이 참된 봉사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김은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봉사는 수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주권확립과 수평적인 차원에서 교회의 사회에 대한 나눔의 영역이 서로 만나는 통전적 선교다. 그러므로 그 목표는 교회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96) 임희모, *한국교회의 일치, 갱신, 선교*, 107.

97) Ibid., 114.

확장이며,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영광이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날 사회봉사를 통해 확장될 수 있으며, 인간의 모든 결핍이 채워지는 구원의 실천으로써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지배와 현재적 통치를 의미한다.⁹⁸⁾

여기서 기독교 사회봉사가 세상의 봉사와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 사회봉사는 단지 궁핍을 줄이고 상처를 싸매어 주며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념 없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희망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자유로운 세상을 미리 맛보는 선취(antizipation)를 지향한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회봉사는 신학적 근거를 상실한 인간들의 사회적 보상과 개선활동에 지나지 않는 휴머니즘적인 봉사활동으로 전락하게 되며, 사회봉사의 실천(praxis)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은 요구와 비판만 하는 공허한 유토피아에 지나지 않게 된다. ⁹⁹⁾

기독교 사회봉사의 실천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관련되는 것으로써 그 나라를 점점 더 확장하며 근접해 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이다. 예수가 가르치고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보여주신 종의 모습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말씀과 행위가 연결되고 입으로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이제 한국에는 예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디아코니아, 즉 기독교 사회봉사다. 기독교 사회봉사는 일반 사회봉사와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으나 그 목적에서 차원을 달리한다. 일반 사회봉사는 인간의 행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기독교 사회봉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¹⁰⁰⁾

일반 사회복지지는 ‘사회의 현실 속에서 인간이 비인간적인 상황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극복해 내기 위한 노력’에 그 목적이 있다, 그에 비해서 기독교 사회복지지는 근본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차원을 내포하고 있

98) 김은수, *사회봉사와 하나님 나라*, 2.

99) Ibid., 4.

100) Ibid., 2.

는 것이다. 교회의 사회봉사는 인간의 신체적,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반 복지와는 달리 인간의 정신을 포함하는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봉사를 의미한다.

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현으로서 봉사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순히 독립적인 개체(individual)로 존재하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체(person)로 존재하신다는 것이다. '인격체'라는 것은 상호성을 전제하는 것이고, '개인'이라는 것은 독립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개인'이 자기중심적이라면 '인격체'란 관계적 존재를 말한다.¹⁰¹⁾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권을 실현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위'는 각 상대 '위'에게 섬김과 친교와 나눔을 통해서 존재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양태는 섬김이고 친교이고 나눔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봉사(섬김)와 평등과 나눔이라는 구조가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다. 권문상은 성경의 대표적인 두 곳을 근거로 제시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22).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인간의 가정의 모습도 결국 하나가 아니라, 둘이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도록 창조된 것을 말하고 있다.¹⁰²⁾

이런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어떻게 전이가 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구현되고, 전이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된 가정 속에서 나타났고, 또한 그것이 사회적으로 전이가 될 때는 평등과 사랑과 정의가 산출되는 것이다.¹⁰³⁾ 또한 같은 관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피조물이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의 존재양식은 자연히 봉사(섬김)와 평등과 나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공동체의 예를 신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권문상은 삼위일체적 봉사공동체의 예로서 신약성경의 개방형 가족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제한을 두고, 공동체 생활을 훈련시키셨다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계급을 초월하는 공동체를 구성

101)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241.

102) *Ibid.*, 240-241.

103) 임희모, *한국교회의 일치, 갱신, 선교*, 107.

할 것을 명하셨다. 그래서 성별, 사회적 신분별,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이다.¹⁰⁴⁾ 신약의 공동체의 특징은 첫 번째로 가족적 공동체였다. 이 가족 공동체는 사랑이 중심원리가 되고, 사랑에 의해서 지탱이 되는 공동체이다. 두 번째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이다. 모든 구성원들이 사람의 몸과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움직이는 공동체인 것이다.

세 번째는 수평적 섬김의 공동체라는 것이다.¹⁰⁵⁾ 권문상 교수가 제시하는 '개방형 가족 공동체'와 유사한 개념으로 하워드 스나이더는 교회 DNA 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스나이더는 전통적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비판적 안목을 가진다. 지금까지 정통적으로 여겨지는 신학에서의 교회 표지는 니케아 회의에서 정해진 것이다. 교회의 표지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스나이더는 결여된 반쪽의 표지라고 말한다.¹⁰⁶⁾ 스나이더는 교회의 표지를 다음과 같이 보완해야 할 것을 말한다. 첫째, 교회는 하나일뿐 아니라 다양하다. 둘째, 교회는 거룩할뿐 아니라 은사적이다. 셋째, 교회는 보편적이면서 지역적이다. 넷째, 교회는 사도적인 만큼 예언자적이다, 그는 이런 교회의 표지가 역사적으로 실증된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쌍(雙)으로 구성된 교회의 표지들이 교회의 체험이 될 때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강한 역동성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본질적인 유전적 자질들을 상실한다.¹⁰⁷⁾ 고 말한다.

스나이더의 견해는 특별히 가난한 자를 향한 복음을 강조한다. 가난한 자를 향한 복음전파는 사도적인 특성과 예언자적인 특성을 한데 묶어주기 때문에 강력한 교회의 표지가 된다는 것이다. 존 웨슬리가 말한 바도 가난한 자를 향한 복음 전파가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 이라고 했던 것과 일맥상통 한다는 것이다.¹⁰⁸⁾ 이런 스나이더의 강조점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봉사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문턱이 높은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가난한 자를 향한 복음 전파라는 교회의 표지는 봉사 공동체적인 교회를 표방해야 하는 한국 교회의 현실에 부합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스

104)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221.

105) Ibid., 224.

106) Howard A, Snyder. *교회 DNA*, 최형근 역 (서울: IVP, 2006), 27.

107) Ibid., 30.

108) Ibid., 31.

나이더는 이런 통합적인 교회의 표지들을 DNA 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표상을 차용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교회의 DNA 라는 표현 속에는 생물학적인 다양성과 복잡성을 함유하고 있고, 교회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다양한 존재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존재이고,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는 여러 가지 양식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교회의 DNA 는 놀랍도록 복잡하다고 한다. 교회가 신비인 것은 교회 자체의 독특한 영적-육신적인 유전학적인 구조 때문”¹⁰⁹⁾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DNA라는 개념 속에서 당연히 유전되어야 할 속성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스나이더는 “교회의 DNA는 당연히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기원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교회의 근본적인 DNA는 교회를 하나님의 통치의 표적과 전조, 그리고 초기 구현이 되도록 하고, 삼위일체를 반영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선교적, 대안적, 언약적, 삼위일체적인 공동체로 묘사될 수가 있다”¹¹⁰⁾ 고 언급한다. 스나이더는 삼위일체적 공동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첫째 삼위일체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둘째 삼위일체 공동체는 가난한 자에게 파송된다. 셋째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삼위일체에 근거한다.¹¹¹⁾

여기서 우리는 스나이더 방식의 DNA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성부 하나님의 본질적 DNA가 유출되므로 해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성자 하나님 예수그리스도의 DNA 유출되므로 해서 교회는 가난한 자에게 파송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DNA가 유출되므로 해서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근거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나이더의 교회 DNA라는 개념에서 통찰력을 얻게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부터 기원되는 교회 DNA가 사회봉사의 당위성과 봉사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 성찬적 공동체로서 봉사 공동체

임희모는 ‘성찬적 사회봉사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성찬식에 대한 이해는 다

109) Howard Snyder. *교회 DNA*, 45.

110) *Ibid.*, 67.

111) *Ibid.*, 75-78.

음과 같다.¹¹²⁾ 첫째, 성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찬이다. 삼위일체적 성찬은 성부하나님의 창조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예시가 동등한 의미를 갖게 한다고 한다. 삼위일체적 성찬 이해는 과도하게 구속에 기울어지는 기념설의 성찬 이해 행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찬이 지닌 상징의 중요성이다. 리마 문서는 성찬을 상징 (sign)으로 이해한다. 상징은 자기표현이나 인격적 전달의 수단이다. 상징과 실제(reality)는 반대항이 아니고 그 실체를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성령이 작용을 한다. 셋째,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차원을 표현한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예시를 강조한다. 넷째, 성찬은 공동체성을 강조한다. 성찬은 그리스도중심의 교제를 강조한다. 성찬에서는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가 일어난다.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참여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하여 세상의 문제를 성찬 속으로 가져오게 한다. 이러한 성찬은 세상과 공동체적 교제를 하는 것이다. 다섯째, 성찬에서 선교론적 차원이 강조된다.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성찬에서 하나님은 선교를 하신다.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섯째, 성찬은 에큐메니칼 차원을 갖는다.

여기서 임희모는 성찬과 구체적 사회봉사가 연결되는 지점을 고대 헬라에서 식탁의 관습에서 찾고 있다. 고대 헬라에서는 봉사라는 단어가 식탁에서 시중을 들다 (diako-nein)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이러한 식탁과 관련된 관습 속에서 사회봉사의 의미를 추론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식탁공동체'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사역은 식탁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임희모는 이런 식탁 사역을 통해서 사회봉사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¹¹³⁾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 식사를 즐기셨고 또한 신약시대의 식탁교제는 같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사람은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사회적 의미가 있다. 식탁 교제를 통하여 예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친구가 되었다. 유대교의 주류 사회에서 소외당한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만들고 이들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다. 식탁교제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쳤던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옥순은 “교회 공동체의 사회봉사에 있어서 고유성과 전문성을 논하면서 교회의 성만찬적 사회봉사를 한 기준

112) 임희모, “성찬과 사회봉사,” *선교신학* 5권 (서울: 한국 선교신학회, 2002), 1.

113) Ibid., 2-3.

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님의 만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예전적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¹¹⁴⁾이라고 한다.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만찬은 식사 공동체로서 가난한 자들의 식사 제공과 병든 자들과 감옥에 갇힌 자들을 방문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성만찬 시에 사회적 약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만찬의 의미를 빼앗는 것으로 보았다(고전 11:21).¹¹⁵⁾

임희모는 그의 논문에서, 서기 150년경 순교자 저스틴이 저술한 *제일 변증서 (First Apology)*에서 초대교회의 성찬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기도가 끝난 후에 떡과 포도주와 물이 들여져 오고 사제자가 기도와 감사를 드린다. 회중은 이에 동의하여 아멘이라고 한다. 그리고 배분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축사된 떡과 포도주에 참여한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집사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간다. 그리고 물질과 선의를 가진 사람들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 선택하여 재물을 기부하게 되는데, 이들을 모아서 사회자는 고아와 과부, 병들어서 혹은 다른 이유로 가난해진 사람들, 감옥에 갇힌 자들, 우리들 사이에서 일시 기거하는 타향인 들에게 나누어 준다. 한마디로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다.¹¹⁶⁾

여기서 임희모는 두 가지 사실을 추론한다. 첫째, 초대교회는 성찬을 봉사와 연관하여 거행하였다. 둘째, 이러한 봉사는 구체적 차원의 성격을 지닌 봉사였다. 이것은 공동체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로서 곤궁에 처한 자를 돌보고 상처를 싸매고 먹을 것을 주고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¹¹⁷⁾

구체적 봉사는 목회적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개인 경건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때 그는 구제를 잘한 봉사자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구체적 사회봉사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다(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부녀자 복지, 빈민 구호, 무료 의료진료, 교정 복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¹¹⁸⁾

114) 김옥순, *디아코니아학 입문* (서울: 한들출판사, 2010), 439.

115) Ibid., 440.

116) Max Thurian and Geoffrey Wainwright, eds., 111에서 재인용.

117) 임희모, “성찬과 사회봉사,” 4.

118) 재인용. 손인웅, “교회의 사회봉사를 통한 사회변혁,” 김종렬 편, *새 천년을 향한 한국 교*

임희모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체적 성격의 봉사의 한계성에 대해 “구체적 봉사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봉사가 나쁘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의 희생자와 궁핍을 만들어 내는 사회구조, 예를 들면, 불의한 정권, 불의한 사회구조를 변혁 없이 그대로 온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¹¹⁹⁾고 지적한다. 임희모는 구체적 봉사의 한계를 넘어서 변혁적 사회구조 차원의 봉사를 제안하고 있다.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회 구조의 심층을 분석하고 이를 변혁하려는 봉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식탁교제를 한 것은 단순한 친교 이상의 의미가 있다. 사회로부터 버려진 자들,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을 공동 식사에 초대하여 환영하면서 식사교제를 나눈 것은 유대교적 기존 질서를 변혁하여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받아드리는 것이었다. 예수의 식탁교제는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다.¹²⁰⁾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세상의 변혁에 부름 받은 자이다.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찬은 세상에 대한 선교인 것이다.

성찬은 교회의 본질을 구성하고 봉사는 이러한 본질의 자기표현이 된다. 한국교회가 성찬적 사회봉사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찬적 봉사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려는 한국교회의 갱신 과제의 제 1의 우선순위에 있다.¹²¹⁾ 고 말한다.

임희모의 성찬적 봉사공동체는 삼위일체적 공동체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성찬예식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통해서 성찬예식이 '주의 만찬' 성격과 '애찬' 성격의 차이를 잘 밝혀내고, 역사적으로 변천되는 과정을 밝혀주고 있다. 여기서 애찬적 성격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오늘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면에서는 매우 새롭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과 계시적인 행위가 성찬을 통해서 성육화 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동기를 제공해주고 있다. 성찬적 사회봉사의 개념은 참신하고, 성경적 근거도 있지만 성찬의 전통적인 상징성은 어디까지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성경의 핵심적 진리를 표현하고, 보존하는 그릇이

회의 목회 패러다임: 교회의 사회봉사 (서울: 한들출판사, 1999), 114.

119) 임희모, “성찬과 사회봉사,” 5.

120) Ibid., 6

121) 임희모, “교회본질 회복에 있어서 사회봉사의 역할,” *한국기독교 신학논총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80.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애찬의 봉사적인 성격을 강조하다 보면 성찬예식의 본래성, 정체성이 약화 내지는 희석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임희모가 제안하는 애찬의 의미가 너무 과대평가 된 면이 있다. 애찬이 성도의 친교로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교회 내에서 이런 식탁공동체는 매우 효과적인 친교의 도구로 작용을 하고 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 시행되었던 애찬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애찬이 바울이 사역하던 시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점차 소멸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다.

본 연구자는 명성제일 교회에서 알파코스를 하면서 경험하게 된 것은 식사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부로 느끼게 된다. 초청받아서 온 새 신자들은 정성으로 준비되고, 진정한 섬김의 자세로 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한다. 임희모가 제안하는 성찬적 사회봉사는 그런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의 성찬식이 결코 희석되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성찬적 봉사공동체를 어떻게 실천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 되고,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인가는 보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 선교학적 표현으로서 봉사공동체

호켄다이크는 그의 저서 *흘어지는 교회*에서 교회를 제도적인 사고방식으로 부식(planting)해나가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선교와 교회화(Churchification)는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성경적 관점에서의 선교개념을 개진하면서 살림의 실천을 선교의 목적으로 3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이 평안은 선포되어진다(proclaimed). 이것이 선교의 한 측면이다. 둘째 이 평안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lived). 그것은 선교의 또 다른 일면이다. 그것은 친교(koinonia) 속에서 생동한다. 셋째로 호켄다이크는 선교의 한 측면으로서 평안(shalom)을 제시한다. 그래서 선교는 겸허한 사회봉사를 통해서 실증이 된다고 한다.¹²²⁾ 호켄다이크는 사회봉사가 선교의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살림을 선교의 목적이자, 방법으로 말씀의 선포와 성도의 친교, 그리고 봉사라는 세가지 측면

122) Hoekendijk, *흘어지는 교회*, 23.

을 제시하고 있다.¹²³⁾ 우리는 사회봉사의 측면이 선교의 한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복음의 선포와 성도의 친교는 이미 오늘의 교회 안에서 실천되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사회봉사라고 할 수가 있다.

보쉬는 선교에 대한 정의를 삼위일체의 선교 로 정립하면서 선교의 근원은 기존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의 특정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선교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이미 선교이 하나님이었고, 그의 말씀과 영은 '선교사 들'로써의 역할을 창조 활동에서 한 것이다(창 1:2-3).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육된 말씀인 독생자를 세계 안으로 보내셨고 오순절에는 자기의 성령을 보내셨다. 선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며, 인간이 되는 것이며, 자기의 거룩한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성을 얻는 것이고, 이 세계 안에서 자기의 독생자와 성령을 통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¹²⁴⁾

보쉬는 결론적으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세가지 빛을 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정립한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빛을 쬐다 ¹²⁵⁾ 세계가 믿음을 받도록 교회는 일해야 한다. 즉 교회의 선교에서 교회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고후 5:15).¹²⁶⁾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러한 소명은 높은 우월감에 젖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결속이 주는 깊이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부르는 일은 마치 같은 구걸자의 입장에서 다른 구걸자에게 어디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데 그친다. 선교활동은 이런 정신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자랑스럽게 보이는 성공사례를 늘어놓는다고 해도 그런 선교활동은 결코 성공이 아니. 실제에 있어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선교적 책임은 세계를 변화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자신을 변화 시키는 것이다.¹²⁷⁾

또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가 경험한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계에 대한 교회의 사랑의 모형이 되며 척도가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장 깊은 차원은 십자가에서 계시되었

123) Hoekendijk, *흩어지는 교회*, 25.

124) Bosch, *선교신학*, 288.

125) Ibid., 295

126) 고린도후서 5장 15절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27) Bosch, *선교신학*, 295

다. 교회도 이와 달리는 세계에 대한 자기의 깊은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다. 예수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랬듯이 십자가는 교회가 교회됨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수의 정체성의 증명은 그의 상처자국이였다. 이 깊은 상처자국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믿을 수 있었다(요 20:20). 그래서 교회가 이런 십자가의 자국을 보일 때 세계는 믿게 되고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¹²⁸⁾

데이비드 보쉬는 선교에 대한 정의를 교회론에 대한 정립을 통해서 시도하고 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진 자로서, 믿음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존재로 설정을 하므로 해서, 교회는 사회봉사 공동체로서의 모티브가 생겨나는 것이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부담을 늘 느끼고 될 때 선교가 가능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담고 있는 공동체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선교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봉사 공동체로서의 교회론적 방향을 시사해주고 있다.

사회봉사 공동체를 표방하는 WCC의 JPIC란 정의(Justice), 평화(Peace), 창조의 보존(Integrity of Creation)이 된다. 1983년 캐나다 밴쿠버에서의 제 6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는 회원교회들로 하여금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에 헌신할 공동체적 삶의 방향을 찾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WCC중앙위원회에서 JPIC는 2천년대에 대한 에큐메니칼 비전의 핵심이라고 천명하는 최종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첫째로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정의의 신이다.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다. 불의는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악한 힘이다.¹²⁹⁾ 정의는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다. 정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마찬가지로 매우 종교적인 것이고 성스러운 것이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 성경의 하나님은 정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정의의 내용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인권을 보장하시는 하나님,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 바르게 살아가는 정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공정한 재판, 억압과 약탈의 제거, 곤경 속에 있는 자의 구원, 그리고 나뉘는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¹³⁰⁾

128) Bosch, *선교신학*, 296.

129) 김명용,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118.

둘째로 평화는 기독교의 샬롬정신이다. 이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부재된 상태가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의가 내재되어 있는 상태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샬롬은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있는 상태이다. 실천적 맥락에서 샬롬의 개념은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인간의 복지, 건강, 평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샬롬의 상태는 하나님과 사람간의, 그리고 인간 서로간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¹³¹⁾ 따라서 샬롬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간의 언약관계로 나타나는 삶의 행태라고 할 수 있다.¹³²⁾ 이사야 11장 6-8절은 이러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공히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평화는 하나님 통치의 결정적 상징이다.¹³³⁾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세상은 평화의 세계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의 상징인 메시아 왕국은 평화의 상징으로 성서 속에 기록되어 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종말론적인 평화가 도래하는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다. 예수가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였으며 그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계약 질서였다. 그러므로 예수의 전 사역은 그가 주시고 구현하시는 평화의 맥락 안에 요약되어 있다.¹³⁴⁾ 예수가 가르친 이 평화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이었으며, 단순히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만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역동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의가 없는 평화는 소용이 없으며, 평화란 사회 및 관계가 변화하는 역동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평화는 하나님 통치의 핵심 기능이다. 교회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한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 평화를 위한 봉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30) 김명용, *현대의 도전과 오늘의 조직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P.139

131) M. E. Miller, "The Gospel of Peace," R. L. Ramseyer, ed., *Mission and Peace Witness* (Herald Press, 1978), 30.

132) B. Bradshaw, *Bridging the Gap: Evangelism, Development, and Shalom* (Monrovia: MARC, 1993), 17-19.

133) 김명용,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120.

134) Ibid., 39.

셋째 창조질서의 보전: 기독교회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을 인간 영혼에 제한시켜 이해해왔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간 영혼의 죄악을 속하기 위한 죽음 정도로만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신학적 논의에서 발전한 그리스도의 우주적 화해라는 새로운 기독교론의 개념은 화해와 구원에서의 인간 중심적인 개념을 타파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¹³⁵⁾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인간의 영혼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고 우주적 차원의 죽음이었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과 그 질서로 지평이 확대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 중심성을 넘어서고 있다. 하나님의 계약은 전 창조질서를 포함한다. 이 성서적 진리가 창조질서의 보전을 유지하게 하는 기초가 되며, 이 세상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에 대해 교회가 응답하도록 근거를 제시해준다.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우주적 화해를 전제한다. 그리스도의 화해는 우주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인간론적 지평 속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은 인간의 해방과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해방과 구원의 상징을 함께 지니고 있다.¹³⁶⁾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는 JPIC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자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JPIC에 나타난 내용들, 즉 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신학적 선언들은, 오늘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사회적 섬김)와 참여를 위한 지표를 제공한다.

4. 삼위일체적 교회로서 봉사공동체-몰트만의 교회 이해

몰트만의 교회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곳에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가 없으며, 모든 교회이해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몰트만에

135) 김명용,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122.

136) 김명용, *현대의 도전과 오늘의 조직신학*, 201.

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과 부활의 빛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미래의 대리자로서 종말론적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의 신격의 대리자일 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대리하는 존재다. 예수는 전적 타자인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과 활동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한 종말론적인 인격이며, 그의 삶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가 이 역사 속에서 앞당겨져서 시작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앞당겨져 일어난 것이다.¹³⁷⁾

몰트만에 의하면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현재 계신 곳에 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곳에 계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사도직과 성례전,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성도의 친교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는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들 가운데에 계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 곳으로 가야 한다. 그리스도는 작은 자들 즉 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옥에 갇힌 자들 사이에 계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존에 구체적으로 응답해야 한다.¹³⁸⁾

가. 십자가 아래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몰트만은 교회를 십자가 아래 있는 공동체로 이해한다.¹³⁹⁾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희생을 당했다는 것은 전체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교회의 율타리를 넘어서서 전 세계의 해방에까지 이르는 우주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십자가 아래 있는 공동체로서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의 기존 질서에 의한 희생자들과 함께 고난 받고, 함께 유대를 가짐으로서 이 세상의 변혁에 봉사하

137) J. Moltman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메시아적 교회론*, 박봉량 외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87.

138) Ibid., 90.

139) Ibid., 101.

는 것이다. 몰트만에 의하면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교회가 세상의 고난에 참여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곳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 곧 가난한 자, 장애인, 갇힌 자들과 유대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 있게 된다.

동시에 정치적 사명을 실천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몰트만에게 있어서 교회의 정치적 사명과 사도적 고난으로서의 사명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몰트만은 교회의 참된 표지에 대해서 이 역사 속에서의 '교회의 거룩함'은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교회의 가난함에 있으며, 이 역사 속에서의 '교회의 사도성'은 교회의 고난 받음에 있다고 한다.¹⁴⁰⁾

나. 하나님 나라의 지평에서의 봉사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지평에서의 봉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서의 봉사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서의 봉사는, 이제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지평에서의 봉사이지 다른 지평에서가 아니다. 인간 활동의 역사에는 어떠한 경우도 인간의 나라가 형성될 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이 아닌 오로지 예수에게로 눈을 돌리고 오로지 우리의 역사가 아닌 예수의 역사에 주목해야 한다.

예수와 함께 하는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자유케 하는 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을 채워주는 목표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어디에서 예수와 함께 하는 하나님 나라를 찾을 것인가? 우리는 일차적으로 예수의 파송(sending)에서 그것을 인식한다.

공관복음에서는 메시아적 파송이란 관점에서 예수의 역사를 표현한다.¹⁴¹⁾ 그들은 예수의 메시아적 파송을 예수의 복음전파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 그 파송은 예수의 전(全)사역, 즉 선포, 치유, 부르시고, 모으시고, 그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것은 선교이고, 모든 선교는 예수의 파송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는 온전함으로 사역하였고, 또한 그의 제자들도 그러한 온전함에 나아가도록 부르셨는데, 선교와 봉사를 분리하

140) Moltman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메시아적 교회론*, 350-353.

141) 조성노, *사회봉사에 대한 조직신학적 이해*, 147.

는 것은 그러한 온전함을 깨트리는 것이다.¹⁴²⁾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 공동체의 지평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 성령의 새로운 창조 안에 있는 교회

몰트만은 성령의 활동을 그리스도의 역사와 관련지어 이해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는 죄인들의 구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지향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영광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역사와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의 종말론적인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시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이 성령의 종말론적 새창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그리스도의 궁극적 목적과 의미가 있다. 몰트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종말론적 새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역사 안에서 연결된다.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그리스도 역사와 능력 안에서 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몰트만에 의하면, 교회의 새로운 삶은 성령에 의하여 창조되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의 새 창조에 대한 우주적인 기대는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삶 속에서 체험되는 것이다.¹⁴³⁾ 종말에 있을 모든 피조물의 새 창조가 교회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앞당겨 일어난다는 것이다. 몰트만은 믿는 사람들에게서 앞당겨 일어나는 새 창조의 경험을 거듭남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거듭남이란 이 세계의 삶 가운데서 미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나라를 지향하는 새 창조를 이미 시작하셨다. 본질적으로 죽음의 한 단편이었던 인간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희망으로 거듭난 삶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앞당겨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몰트만은 성령의 새 창조의 과정 안에 있는 교회는 기도와 땅에서의 성실함, 명상과 정치적 투쟁, 그리고 초월적 경건과 창조적 긴장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방식에 참여해야 할 사명을 가진다고 한다. 그런데 이 메시아적 새로운 삶의 방식은

142) 조성노, *사회봉사에 대한 조직신학적 이해*, 147.

143) Ibid., 298.

교회 자신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에 의하여 창조되는 것이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에 참여할 때 새로운 삶의 방식은 창조된다는 것이다.

몰트만은 삼위일체적인 봉사로서의 교회를 언급하고 있다. 가장 먼저 교회와 성자 예수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로 십자가 아래 있는 교회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이 역사 속에 오셔서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의 역사적 현존을 사회적 약자들(없는 자들, 장애자들, 병자들, 간히고, 나그네 된 자들) 속에서 임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교회의 사명은 이 성자 예수의 현존에 동참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지평에서의 봉사를 언급한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를 이 세상속에 파송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은 파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데서 이해 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셋째로 성령과의 관계에서는 교회는 종말론적 새로운 창조로서의 교회를 거듭난 존재, 거듭난 생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령의 새 창조의 과정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창조적 긴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 그 사명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해방의 역사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방식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표징이 되어야만 한다. 144)

5. 타인을 위한 존재로서의 교회-본회퍼를 중심으로

본회퍼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공동체로서 경험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땅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실존이라고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세워진 실체이고, 그리스도가 전체 교회에 실존하는 양식이며, 성령의 개별적인 활동에 의해서 형성되는 가시적인 공동체를 말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자는 세상에서 해방된 자이며 부름을 받은 자이다. 공동예배나 교회적 질서를 통할 뿐 아니라, 형제의 새 공동생활을 통하여 그는 드러나 세상에 보여야 한다고 한다.145)

가. 타인을 위해 고난 받는 교회

144) 조성노, *사회봉사에 대한 조직신학적 이해*, 305-311

145) Diecrich Bonhoeffer, *옥중서신*, 243.

페일(Feil)은 본회퍼의 사상이 초기의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christ for us)에서 후기의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Christ for others)로 발전해 나갔다고 한다.¹⁴⁶⁾ 이것은 분명히 구별해야 할 세상과 섬겨야 할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본회퍼에 의하면, 인간의 자율성을 향한 역사적 발전이 현대에 이르러 완성되었으며 이런 역사적 발전은 돌이킬 수 없다. 모든 영역의 중요한 일들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처리된다. 이 말은 이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런 세상을 향해 종교적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이런 성숙한 세상에서 교회가 종교적인 하나님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 죄와 죽음, 약함에 집착하는 것을 본회퍼는 거부한다.¹⁴⁷⁾ 오히려 삶의 한 복판에서, 생명과 선에서 하나님을 말하려 한다. 그는 구약성서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축복, 현세성과 역사성을 강조하며, 신약성서의 부활 희망을 지상의 삶과 연결시킨다.¹⁴⁸⁾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인간을 한계 경험에서가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붙잡는다. 따라서 교회는 피안적인 교회가 아니라 세상적인 교회여야 한다.

성서는 하나님의 무력과 고난을 말한다. 하나님은 전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약함과 고난에 의해 인간을 돕는다. 본회퍼는 이사야 53장과 예수를 연결시킨 마태복음 8장 17절에 주목한다. '그는 몸소 우리의 괴로움을 맡으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의 이사야 53장(고난의 종)을 직결시킴으로써 그의 하나님 이해는 구체성을 얻게 된다. 하나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 만남은 예수가 오직 '타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경험이다.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죽기까지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진정한 초월이며 진정한 전능이다. 그것은 타인을 위해 고난과 죽음 속에 있는 하나님이다. 본회퍼에 의하면 예수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아적 고난이었을 뿐 아니라 이 메시아적 고난으로 인간들을 끌어들이는 일이 예수의 일이었다. 하나님의 메시아적 고난에 동참하도록 초대하는 일, 곧 그리스도와 인류를 위해서 존재할 때만 참다운 존재가 된다. 그리스도와 새로운 출발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에게 내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의 사회생활에 깊이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

146) Bonhoeffer, *옥중서신*, 48.

147) *Ibid.*, 170.

148) *Ibid.*, 209-210.

람들을 돕고 섬겨야 한다. 교회는 무슨 직업의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을 타자를 위해서 실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해야 한다.¹⁴⁹⁾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며 이것이 바로 '회개'이다.¹⁵⁰⁾ 이처럼 타인을 위해 고난받는 무력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고난에 인간의 동참을 촉구한 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회퍼에게 있어서 이 점은 인간의 능동적인 실천이 부각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고난을 말함으로써 사회적 현실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본회퍼는 그의 책 *옥중서신*' 끝 부분에서 교회의 특수성과 그 사명을 세상과의 관계에서 말한다. 즉, 교회란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은 사람이긴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얻은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세상을 위하여 실존한다. 즉, 교회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타인을 위한 실존에 유비하여 오직 세상을 위해서 실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회퍼는 히틀러를 옹호하는 독일 국가교회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회의 참 모습을 그리고 있다.¹⁵¹⁾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그에 의해 세워진 것이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주인으로 교회는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 역시 세상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예수는 오직 타인을 위하여 존재한다.¹⁵²⁾ 이 타인은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타인이다. 본회퍼는 세상과 관련을 맺으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감당했던 사명을 다하는 교회를 상정한다. 교회는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 있어야 한다.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였다. 그래서 본회퍼는 교회를 가난한 교회로 규정한다. 그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강해 중에서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선언이 선포되는 공동체를 통하여 가난한 교회를 제시한다. 제자들은 백성의 무리 가운데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의 부름과 그들의 따름에 의해 무리와 구별되었다. 교회는 하여 가난한들의 교회

149) 고범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4), 242.

150) Ibid., 203

151) 이형기, *교회와 사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7), 90.

152) 고범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240.

로서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자리가 되며,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본회퍼는 이가난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로 선언한다.¹⁵³⁾ 예수의 부름으로 그들은 가난하게 되었다. 결국 본회퍼가 제시하는 '가난한 교회'라는 개념은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와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교회'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회퍼의 교회론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이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장은 제도로서의 교회에 한정되지 않는다. 교회는 세상의 주변이나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기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식으로든 간여하여 세상을 변화시킴으로써 세상의 위기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나. 세상을 섬기는 교회

본회퍼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곳이 교회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존재하지만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존재한다”¹⁵⁴⁾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도록 독특한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다.¹⁵⁵⁾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다른 사람 위에 지배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 즉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자신의 일원이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라고 한다.¹⁵⁶⁾ 한스 쾅이 지적한대로 교회는 결코 자기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처음부터 남을 위한, 인류를 위한, 세계를 위한 존재인 것이다.¹⁵⁷⁾

6. 맺음말

본회퍼는 그의 기독교 윤리에서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

153) D. Bonhoeffer, *나를 따르라*, 허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87.

154) 박종삼, *사회선교, 목회, 21C*, 46

155) Ibid., 46

156) Philip Yancey,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김동완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1), 48.

157) 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4), 130.

도교 공동체는 온 세계가 서야 할 장소에 서 있다. 즉 교회가 세상을 대신하여 봉사하는 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세계는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 자기 자신의 지향한 것을 실현한다. 교회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고 땅 위에서서의 하나님의 길이며 목표다.¹⁵⁸⁾ 본회퍼는 교회가 봉사할 때 존재이유가 실현된다고 한다. 세상이 해야 할 일을 교회가 대리해서 봉사한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봉사를 위한 봉사 공동체에 대해서 신학적인 탐구를 했고 본인이 서론에서 제기했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한 사회봉사는 어떠해야 하는가?

둘째, 진정한 사회봉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즉 진정한 사회봉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다양한 사회봉사와 봉사공동체에 대한 견해를 고찰하면서 사회봉사의 성경적 고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고,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 그 모든 사역의 정신들과 목적들이 사회봉사와 봉사 공동체라는 표현 속에 녹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오늘 여기 그의 메시아적 소명과 함께 역사 속에서 시작되었다(눅 4:18-19). 이 세상은 선교의 현장이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장소다. 따라서 오늘의 교회는 그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계에 선포하고 확장할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의 선교로 계속되고 있으며, 성령의 능력에 의해 선이 실현될 때 이 땅의 악은 저지되며,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될 때 궁핍이 사라진다(요 10:10). 이것은 새로운 삶,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자유로운 새 세계를 통해 선택된다. 따라서 교회의 말씀 선포와 사회봉사를 통한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원리에 기초한 교회 공동체로서 존재한다. 예수께서 당시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선포한 복음은 섬김의 원리에 의한 공동체의 삶이었다. 예수님 자신은 그의 삶을 이세상적이 아닌 소위 신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섬기는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섬김의 삶이 근본적인 삶의 원리로서 유효한 것이다.¹⁵⁹⁾

교회의 사회봉사는 인간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고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인간의

158) Dietrich Bonhoeffer, *기독교윤리*, 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260.

159) 김옥순, *디아코니아학* 입문, 422.

실존에 기초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사회봉사는 부족함을 채우고 보상해주는 이상 없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근거한 사랑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회봉사는 기독교적 정체성을 상실하며, 사회봉사의 실천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빛에 비추어 자신의 존재와 역할을 확인하고 이 땅에서의 선교적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봉사공동체의 신학적 탐구를 통해서 '사회봉사'와 '봉사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탐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시무하는 명성제일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바람직한 봉사 공동체상으로서 추구할 구체적인 목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제 4 장

명성제일 교회의 사회봉사

본 장에서는 명성제일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회봉사와 봉사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2장과 3장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고, 어떤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설문 조사를 통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사회봉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발전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네 교회를 선정하여, 그 교회들의 사역을 간략하게 탐구하므로, 본 교회의 사회봉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네 교회는 도림교회, 광염교회, 안산 다문화 교회, 영등포 광야교회 이다. 이들 교회를 선정한 이유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각각 다양한 지역적, 환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이 요구하는 걸맞는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 또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건전한 철학과 목회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1 절 명성제일 교회의 목회 비전

1.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

명성제일 교회는 전 세계의 하나 된 교회의 지체로서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교회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세계 교회의 지역화를 표방하고 있다. 때로는 세계를 품는다는 표현이 너무 거창하고, 형식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가라는 부정적 반응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이고, 그 교회는 전 세계 흩어진 우주적 교회의 한 지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규모가 크던 작던 교회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의식과 믿음에 있어서는 우주적이고 세계적 교회와 동일한 꿈과 비전이 공

유되고, 하나의 교회됨이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본 교단의 총회와 노회 또는 시찰회와의 교류를 통해서, 또는 타교회와의 다양한 선교 활동을 통해서 교회간의 하나 됨과 개방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2.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

이 비전은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바 한 가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기독교적, 구원론적 근거에 의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교회의 모든 존재와 사역활동이 주인 되시는 예수그리스도에 근거해야 하고, 규정되어야 할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의 성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주도권 다툼이다. 목사와 장로간의 주도권 다툼, 성도와 성도의 다툼, 개척 교인과 전입 교인의 다툼이 있고, 이런 다툼의 원인의 대부분이 주도권 다툼이라고 할 수가 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다. 아무리 개척에 공이 있고, 교회건축에 공헌하고, 교회 발전에 공헌했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명제가 모든 교회생활과 삶 속에서 고백되고,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라는 선언은 단지 명목적 선언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목회전반 프로그램과 성도들의 교회생활 전반에서 확인되고, 각인되어야 할 실질적 목회 철학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목회 활동들 가운데 이런 목회철학이 융해되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데,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 는 예수님의 사역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표방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추구하셨던 봉사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성과 사회봉사로서 교회의 사역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추구되고 있는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 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역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인가를 늘 묻고, 추구하는 준거가 된다고 할 수가 있다.

3. 가정과 심령이 복 받는 교회

교회 안에서 가정과 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로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고, 가정과 영혼이 하나의 지체로서 연결된 공동체가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몸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이 비전은 교회가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므로 해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병들고, 역기능적 인격을 가진 개인들이 결국 병든 가정에서 양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고, 가정과 개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상을 교회의 비전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가 가정과 개인을 향해서 줄 수 있는 복은 하늘의 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살림이 선포되고, 경험되는 공동체가 될 때만이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공동체 비전 아래서 본 교회의 사역이 진정한 공동체로서 사회봉사를 위한 사역이 되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과 평가

본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사회봉사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3 가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 교회에서 2010년 11월 중에 실시한 설문 조사를 토대로 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참조. 부록 1-설문지 내용, 부록 2-설문 결과 내용).

1. 노인대학에 대한 평가

명성제일 교회의 노인대학의 정식 명칭은 효도 노인대학 이고, 2000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다. 노인대학은 교회가 개척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왔던 프로그램으로서 지역 사회 속에서도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가. 노인 대학 현황

본 교회 노인대학의 현황은 아래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다. 노인대학의 교육목적은 '노인복지 선교의 일환으로 호 정신을 실천하며 노인들의 영육간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둔다. 표어는 첫째, 건강한 노인이 되자. 둘째, 존경받는 노인이 되자. 셋째, 사랑받는 노인이 되자. 넷째, 봉사하는 노인이 되자. 이고, 봉사 인원은 임원(학장 1명, 교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담임교사 10명(10개반) 식당봉사-40명, 차량 및 미용봉사: 약간 명 이고, 총 봉사 인원 60명 정도이다. 노인 출석 인원은 매주 150-200명 수준이다.

나.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¹⁶⁰⁾

본 교회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5번 항목은 가장 자랑할 만한 봉사활동이 무엇인가? 의 질문인데, 이에 대해서 노인대학의 85명 응답자 중 70명 응답으로 82퍼센트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노인대학은 본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본 교회 사회봉사 활동의 중요한 위치로 이미 자리매김이 되어 있고, 매우 높은 자부심을 부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5번 질문에서는 노인대학에 대한 항목에서 영향력 증대와 재미의 측면에서 매우 높은 참여도와 함께 만족도를 반영해 주고 있다. 영향력 증대에서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3.5이고, 재미는 만족도가 3.3 이다. 영향력 증대는 남을 돌보고 세워준다는 점에서, 또한 재미는 스스로가 깨닫고, 배우는 측면에서 많은 참여도와 만족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의 사회봉사적 척도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본 교회의 노인대학은 영통지역사회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 조사에서도 4번 항목은 대외적으로 본 교회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좋은지를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결과에서 좋은 평

160) 명성제일교회설문조사 항목 5번: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교회가 어떤 봉사를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노인대학, 아버지 학교, 아기학교, 알파코스, 영어클래스, 국내선교부, 탈북민 위로잔치 및 홈스테이 중에서 순서별로 3가지씩만 답하시오)?

가를 받는 이유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이 노인대학이다.¹⁶¹⁾

다. 노인대학을 통한 목회적 변화와 대외적 영향력

위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대학은 본 교회의 교우들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도 교회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봉사 인원이 투입이 되고 있고, 이러한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교우들이 노인대학을 통해서 지역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인식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교우들 가운데는 그렇게 막대한 인원과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에 대해서 전도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 대한 회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답변이 제시될 수 있다. 한 가지는 대외적인 것으로서 노인대학이 직접적인 전도는 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노인대학을 통해서 결신자가 매주 생겨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끊임없는 봉사를 통해서 교회 이미지가 제고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간접적이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이고 있는 사실이다. 설문조사의 3번 문항은 본 교회가 주변 사람들로 부터 어떤 평을 받고 있는가를 묻는 인식도에 대한 평가이다.¹⁶²⁾ 즉 본 교회 교우들이 주변 사람들로 부터 보고 듣게 되는 '주변 사회의 간접적인 평가'라고 할 수가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대내적인 것으로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교우들 스스로가 가장 많은 보람과 가치 부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노인대학은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 이미지의 제고의 역할을 하므로 해서 선교의 좋은 발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교우들 스스로에게 봉사를 통한 보람과 가치부여를 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해서, 노인대학은 본 교회의 선교적, 목회적 변화에 긍정적 요소로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라. 문제제기

문제 제기는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바, 첫째는 노인대학에 대한 정체성의 문

161) 본 교회에 대한 호의적 인식의 구체적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노인대학에 관련된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인 16.3퍼센트이다.

162) 설문조사의 3번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는 무응답 37.6퍼센트, 호의적 인식이 53퍼센트 정도이다.

제다. 본 교회의 상당수 교우들이 노인대학이 전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1년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70-80명에 달하는 봉사 인원이 매주 마다 투입 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고 있는가? 하는 회의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질문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제기되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 속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포함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고, 노인 대학은 일반 노인대학과 다르다는 것이고 교회에서의 노인대학은 결국 전도를 위한 것이고, 선교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의 제기인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선교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선교가 될 것인가? 라는 의문과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회사용의 문제다. 노인대학의 특성상 많은 불신자 노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대중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대중가요나 일반적인 강좌를 포함하게 되고, 특히 교회 사정상 본당(예배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교회당의 세속적 사용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해를 하고 있지만 몇몇 교우들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는 본 교회가 풀어 나가야 할 숙제라고 할 수가 있다. 교회당 사용의 문제는 교회의 장소의 협소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이므로 열외로 하고, 첫 번째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는 노인대학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사회봉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서 3장에서 논의한 바 있는 '교회의 사회봉사 공동체' 에서 고찰했던 것은 교회의 사회봉사가 명목적인 선교의 도구가 되어서 교인 확보차원의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조짐은 이미 어느 정도 보여 지고 있는데, 본교회의 주변의 여러 교회들이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상당 부분에 있어서 중복이 되고 있는 현실은 자칫 교회 간의 과당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은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대학의 활동이 명목적인 노인 선교 또는 명목적인 전도의 한 일환으로서 이해가 되는 한 노인대학은 노인 쟁탈의 이미지를 남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노인대학은 현재 본 교회 지역관내에 있는 중형 규모의 교회들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본 교회 지역관내에서는 노인들의 이동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화요일은 본 교회 참석을 하고, 수요일은 인근 다른 교회, 목요일은 또 다른 교회로 순회하면서 참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역교회들의 산발적이고 중첩된 사회봉사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연합사역으로 통합된다면 지역사회를 향해서 더욱 더 성숙된 교회상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이런 모습은 선교의 좋은 모델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실질적 선교, 원시안적 전도를 위해서는 순수한 사회봉사로서의 노인대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노년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사회를 위해서 진정성 있는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의 성격이 분명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교회들 간에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체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진정한 사회봉사의 확립'을 위한 대화와 교류의 장이 열려야 할 것이다.

2. 아버지 학교에 대한 평가

가. 아버지 학교의 의의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아버지 학교의 표어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 학교는 한마디로 가정 치유, 부부치유의 대중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적 치유 프로그램은 아닐지라도, 많은 숫자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그룹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 안에는 8-10명 단위의 소그룹이 구성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 각 소그룹에는 리더가 있어서, 리더가 모든 진행과 치유 상담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아버지 학교의 첫째 날 주제는 아버지의 영향력, 둘째 날 주제는 아버지와 남성, 셋째 날 주제는 아버지의 사명, 넷째 날 주제는 아버지의 영성, 다섯째 날 주제는 아버지와 가정이 된다. 이와 같이 아버지를 중심 주제로 하는 치유 상담적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아버지의 순기능적 역할과 역기능적 역할을 잘 알게 해주므로 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 특별히 소그룹을 통해서 같은 처지의 아버지들이 만나고 소통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반드시 그 날 그 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제가 주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들에게, 또한 아내에

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편지를 쓰게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자기 가족에 대한 칭찬을 20 가지씩 써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쓰인 편지는 전체 모임에서 낭독을 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참여자들은 많은 감동과 함께 직접 간접으로 공감과 치유의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다.

나. 아버지 학교의 특징

아버지 학교는 온누리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서 불을 지폈지만, 지금은 전국적이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대한 조직이 되었다. 이렇게 아버지 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확산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범(凡) 교회적이라는 점이다. 교단, 교파, 개교회를 넘어서서 다양한 개인들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모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조직적이고, 풍성한 재정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아버지 학교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을 때 달라지는 면들은 유니폼을 착용하게 되고, 인사할 때 항상 서로 포옹을 한다. 모든 호칭은 형제, 자매라고 한다. 모임 때 마다 아버지 학교의 구호를 외친다. 기도모임과 뜨거운 찬양으로 해서 첫 번째 경험했던 분위기를 회고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리고 시대에 어울리는 감성적인 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넷째는 운영의 순환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사람은 스태프로 봉사하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과 권면을 받게 되고, 여기서 많은 경우 헌신하게 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은 풍성한 스태프를 구성하게 된다. 여기서 많은 인적 교류와 함께 인재풀이 형성되고, 이들이 다시금 아버지 학교의 여러 분야에서 헌신하게 되는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 설문조사를 통한 조사 결과

아버지 학교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와 참여도를 묻는 질문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자아실현(4/19), 영향력 증대(3.8/21), 재미(3.6/14), 소속감(4/14), 생존감(4.2/11) 등이다.¹⁶³⁾

163)) 참조 자아실현: 삶의 보람을 얻었다 영향력 증대: 남을 칭찬해주고 세워주었다 재미:많은

여기서 앞의 숫자는 5점 만점에서의 기준이므로 만족도가 되고, 뒤의 숫자는 응답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이므로 참여도를 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끌고루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참여도 수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아버지 학교가 주로 30-40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영향력 면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특히 자아 현과 소속감, 생존의 영역에서는 평균치가 4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학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상당한 충격적인 경험을 했고, 그것은 생활로 이어져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에 있어서 매우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라. 아버지학교의 치유 상담적 효과 및 교회의 변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미 확인 되고 있는 것은 자아실현과 소속감, 그리고 생존에서 높은 수치를 말해 주고 있었다. 자아 실현영역은 아버지 학교에 참여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보람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소속감은 남과 좋은 관계를 맺은 것을 의미하고, 생존의 영역은 살아갈 소망을 얻은 것을 의미한다.

특히 생존의 영역은 4.2라는 최고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여자가 삶의 조건에서 그만큼 절박했던 상태였던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부부관계에서,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세태를 반영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높았지만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있어서는 너무나 무지했던 아버지의 역할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심각한 역기능적인 상태에 있는 가정들이 적지 않았던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아버지가 변화되므로 해서 삶의 보람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하는 생존 영역의 수치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인구자도 일찍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바가 있고,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많은 치료를 경험했고, 특별히 본인의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것을 깨닫고 배웠다. 소속감: 남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 생존: 살아갈 소망을 얻었다-문제가 해결됐다.

치유의 효과를 경험했던 적이 있다.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했던 일들은 실제 가정에서 매우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가족전체의 치유와 함께 가족 상호간의 관계개선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학교 참여자들의 자아실현과 소속감에 있어서의 높은 수치는 교회 생활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부부간의 치유와 함께 부모-자녀 간의 관계 개선을 경험하게 된 가족은 자연스럽게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교회생활에 참여자로서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자아실현을 경험한 참여자는 보다 더 큰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교회생활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마. 맺음말

아버지 학교는 교회내적으로는 가정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중대한 요소를 만족시켜 줄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도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왜냐 하면 가정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문제는 믿는 가정이든 안 믿는 가정 이든 상관없이 공통의 관심사이고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본 교회에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아버지 학교가 개설된 바가 있었고, 이 기간 동안 믿지 않는 가정의 아버지들이 참여를 하여 큰 변화를 체험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아버지 학교의 순서 중에는 마지막 시간에 결신(calling)의 시간이 있어서 아버지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에 결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이 있다. 이런 결신의 시간을 통해서 상당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역기능 가정,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문제가 끊임없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아버지 학교는 그런 사회를 향해서 매우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본 교회가 모범적 사례로 벤치마킹할 앞서가는 몇 교회를 선정해서 그 교회의 봉사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지역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더구나 교회가 지금까지의 영혼 구원만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봉사를 통한 대 사회적 접근을 하면서 영혼 구원을 하고 있는데, 교파를 초월하여 그 사명을 지역마다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교파를 초월하여 성격과 배경이 전혀 다른 네 곳의 지역 교회를 선정해서, 교회 공동체의 특성과 사역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사회봉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정된 네 곳의 교회는 서울 도림교회, 서울 광명교회, 안산 다문화 교회, 영등포 광야교회이다.

1. 도림교회

도림교회는 일찍부터 지역사회 속에서의 사회봉사에 교회의 비전을 두고 시작하여 오늘 우리사회에서 선구자의 역할과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가. 도림교회의 사회봉사 목적

도림교회는 지역 사회봉사를 위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지역 사회봉사 센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 봉사 및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이로써 주민 생활을 향상시키고 복음을 더욱 전파하여 지역주민과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¹⁶⁴⁾ 그리고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방침으로 지역 사회봉사 센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주민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 주민들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봉사한다. 교회와 지역 사회의 바른 관계를 도모하여 교회는 지역 사회를 위해, 지역 사회 속에 있는 '우리 교회'라는 인식을 심화시킨다. 온 교회가 직접, 간접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나아가 민주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한다¹⁶⁵⁾고 그 방침을 정하였다.

164) 정해우, “교회의 사명으로서의 사회봉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2), 11.

165) Ibid., 12.

나. 도림교회의 역사와 지역 환경

도림교회는 1926년 설립되었고, 77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로서 예장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다. 성도 출석수는 약 3천명의 대형교회로서 현재 유의웅 목사가 담임하고 있다. 도림교회는 한국 교회들 가운데 지역 사회봉사에 관하여 하나의 모범사례로서, 교회 사회봉사의 대명사로 내세울 수 있다.

도림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한국의 대표적 공업지역을 상징하는 영등포구에 속해 있고, 교통의 요지이고, 정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자리잡고 있는 지역으로서 공업기능과 주거 기능이 혼합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도림교회 주변인 도림동은 각종 공장 건물이 밀집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공장들은 이전되었고 아파트 단지로 변화되었으나, 아직도 영세민의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도림교회는 교회설립 초창기 시절부터 영세민들을 향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의 방편으로 일찍부터 사회봉사에 눈을 뜨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교파를 초월하여 사회봉사에 관한한 대표적 교회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 도림교회의 사역

도림 교회는 지역 사회에 봉사하기에 앞서 지역을 철저하게 연구를 하였고, 설문 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3차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가 도림교회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는데, 도림교회는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지역 사회봉사를 하게 되었다. 또한 도림 교회의 모든 봉사는 지역 사회봉사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역 사회봉사 센터의 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로 교육사업이 있는데 교육사업에는 아동교육, 청소년 교육, 장년교육으로 나뉘는데 아동교육 사업에는 어린이집과 아이들의 방과 후 공부방이 있고, 청소년 교육사업에는 토요 봉사학교와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 등이 있으며, 장년 교육으로는 컴퓨터교실, 서예교실, 취미교실, 성교육교실, 연극, 주부대학, 한글학교, 노인학교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로 지역 사회 사업이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역 주민을 위하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우선

신용협동조합이 있고, 소암 장학회를 통한 장학사업과 결식자 무료급식 사업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영세노인과 독거노인 등을 위한 무료 경로식당을 영등포 사회복지과와 함께 연계하여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민들을 위해 장서 13,000여권을 구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대출하는 도서관도 열려 있고, 모랫말 이야기라는 제호로 1988년에 창간하여 교회와 지역을 증개하고 있는 지역신문도 발행되고 있다. 그리고 나눔사업으로서 사랑의 저금통, 도림 미용봉사단, 수지침 봉사단, 토요 봉사학교 등이 있으며, 불우시설과 소외된 이웃들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사랑의 현장 갖기 프로그램도 있다. 또한 녹색 살림터에는 알뜰 시장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농촌 교회의 유기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활용품 및 환경 상품 판매를 하는 녹색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든 수익금은 모두 사랑의 현장 갖기 기금으로 적립한다. 그리고 환경 캠페인이 있는데, 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 세미나와 환경 캠페인을 개최한다.

셋째로 지역 사회봉사를 위한 연구 사업이 있다. 사실 사회봉사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것이 연구 사업부분이다. 이 연구 사업은 도림교회의 사회봉사센터의 질을 높은 수준의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 개발,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 이는 운영부 내에 있는 정책 개발팀에서 담당한다.

도림교회의 지역 사회봉사는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의 봉사가 아닌 교회와 봉사와의 유기체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교회와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림교회의 봉사의 사례는 교회에서의 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닌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능력을 볼 수 있다. 더구나 도림 교회의 성도들만의 봉사가 아닌 지역민들 모두에게 열려져 있고 참여케 함으로써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도림교회를 통해 보게 된다.

2. 안산 다문화 교회-국경 없는 마을

안산 다문화교회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특수한 영역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교회는 1990년에 안산 외국인 노동자 상담센터 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고, 안산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은 너무나 열악하였고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열악한 지역에 당시 신학교를 갓 졸업한 박천웅 전도사에 의해서 안산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목회가 시작이 된 것이다.

가. 다문화 교회의 목회 비전¹⁶⁶⁾

처음에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피해를 입고 천대받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상담센터로 시작이 되었으나, 2006년부터 이 상담센터가 이주민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서, 안산 다문화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목회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다문화 교회의 목회적 비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이 된다.

박천웅 목사의 하나님나라 이해는 다음과 같다.¹⁶⁷⁾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의 회복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서 확산되어가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다. 넷째, 하나님 나라는 나눔과 연대이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 약자들도 주인으로 초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박 목사의 하나님 나라 사상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현재적 하나님나라(Kingdom of God-already)를 토대로 하는 바, 이것은 이 땅에서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이주민 노동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아래 있는 하나님나라의 백성들이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권리와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나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안산 다문화 교회의 특징은 국경 없는 마을 이라는 개념에서 고스란히 찾아 볼 수가 있다.

나. 국경 없는 마을의 개념

국경 없는 마을이란 개념은 1997년에 호적법이 남성 중심에서 양계 혈통주의로 개정 논의가 되면서 다문화 가정에도 희망의 싹이 시작됐다. 그 동안 국제 결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마치 사생아 취급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을 한 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관심이 결국 수많은 가정들을 살리는 국경 없는 마을의 개념으로 발전이 된 것이다.¹⁶⁸⁾ 국경 없는 마을의 목적은 이렇다. 한국 사회에서 소수

166) 박천웅, *이주민 신학과 국경 없는 마을 실천* (서울: 국경 없는 마을,), 263.

167) 박천웅, *이주민 신학과 국경 없는 마을 실천*, 264

168) Ibid., 280

자로 존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보호와 다수자로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변화, 그리고 소수자와 다수자가 함께 하는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박천웅 목사는 국경 없는 마을은 문화적 사고운동 이라고 규정한다.¹⁶⁹⁾ 즉 지역 사회의 차별문화, 배타문화, 소외문화, 경쟁 문화를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경 없는 마을 공동체는 존재 방식에서 다문화 적이고, 관계 방식 에서는 공동체 적이며, 삶의 방식에서는 협동적인 문화의 추구이다. 또한 박 목사는 국경 없는 마을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국경 없는 마을은 인권존중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한다. 또한 소수자와 다수자가 공존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식의 개혁이 수반되는 의식개혁운동 이라는 것이다. 사실 기존의 문화적인 차별은 권력과 돈의 지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지배의 결과로 생겨난 열매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경 없는 마을은 주민 조직 운동이고, 사회 실천 운동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¹⁷⁰⁾ 현재 이 국경 없는 마을은 안산 원곡동의 이주민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전체를 포괄하고 있을 정도로 확산이 되어 있고, 이것은 원래 거주하고 있던 원곡동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 박천웅 목사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고, 장기간의 설득과 관계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박 목사는 “국경 없는 마을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마을의 형성은 주민 자치 행정의 협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¹⁷¹⁾고 한다. 지역사회의 통합과 다문화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민과 전문단체의 협력을 들고 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주체가 형성되는데 원주민과 이주민 그리고 상인들이 제일 주체라고 하면 행정기관이 제이의 주체가 되고, 전문가 시민단체가 제 삼의 주체가 되어서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의 보완관계가 이루어지므로 해서 국경 없는 마을의 공동체 형성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 다문화 교회의 사역

안산 다문화 교회의 사역은 프로그램 위주의 사역이라기보다는 이주민들의 의식

169) Ibid., 282

170) 박천웅, *이주민 신학과 국경 없는 마을 실천*, 286

171) Ibid., 292

변화와 원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자체가 중요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주 노동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구조에 접근하고, 주민 회의에 참석하게 만듦으로 인해 자발적이고 주체적 의식을 함양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주 노동자의 날을 지정해서 축제를 개최하여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유도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 무료 진료, 직업안내, 인권 및 노동상담, 여가시설 제공, 취미 교육, 문화공연 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 교회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국경 없는 마을 주민학교, 국경 없는 마을 원곡동 신문 발행 사업, 원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청소사업, 설맞이 국경 없는 마을 축제 등이 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안산 월드컵 대회가 있고, 이주 노동자 길거리 문화 카페 사업, 그리고, 이주 노동자와 주민 만남의 밤 등의 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온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이주 노동자들은 38.1퍼센트가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를 하고 나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고, 나머지 60퍼센트는 갈등을 느끼거나, 장기 체류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에 장기 체류자가 되면서 한국어도 잘하게 되고, 기능공이 되어서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인력으로 체류하게 된다. 이러한 이주민의 거취문제에 대해서 원주민들은 이주민들의 장기 거주에 대해서 66.7퍼센트가 찬성을 하고 있고, 장기 거주자들에 대해서 영주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결국 이주민들과 원 거주민들과의 관계가 그만큼 좋아지고, 다문화 사회가 건전하게 통합되어 가는 한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3. 광염교회

‘감자탕 교회’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광염교회는 서울 상계동에 위치하고 있다. 조현삼 목사의 리더십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회봉사는 우리 사회에 많은 도전과 신선한 충격을 준 바가 있고 또 하나의 새로운 사회봉사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가. 광염교회의 역사와 주변 상황

광염교회는 1992년에 설립되어 20년의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서울 도봉구 상계 1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젊은 교회이며 조현삼 목사가 담임하고 있다. 예장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으며 매주 3천명 이상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이다. 교회가 위치한 상계 1동은 기존 주택단지와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로 양분되어 있고, 광염교회는 주로 젊은 연령층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주로 중하류 수준의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광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현삼목사의 목회 철학은 '사람'이다. 장학, 전도, 선교, 구제 등 모든 사역의 초점이 사람을 키우고, 양성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투명한 목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다. 또한 광염교회의 대 사회적 봉사는 한 지역만을 위해 봉사하는 국지적인 봉사가 아니라 '파이프 교회론'을 실천하는데 교회는 흘러 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파이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천재지변이 일어난 곳은 물론 아프리카의 난민촌이라도 찾아가 봉사를 하고 있으며, 교회 재정을 잔액 100만원을 남기지 않겠다는 목회원칙을 세워놓고 실천하고 있다.

나. 광염교회의 목회 비전

광염교회의 10대 비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세계에서 전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둘째, 국내외에 100개 이상의 광염교회를 설립하는 교회, 셋째로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 넷째, 일천만장 이상의 전도지를 전하는 교회, 다섯째, 우리나라에서 구제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여섯째, 100명 이상의 고아와 과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 일곱째, 일반 가정 이상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드는 교회, 여덟째,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닮은 인재를 가장 많이 양육하는 교회, 아홉째, 100명 이상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 열째, 100명 이상의 사회 각 분야 최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 이런 목회 비전은 소위 파이프 목회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다.

다. 광염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역

가장 특징적인 몇 가지 사역들을 든다면, 첫째로 긴급 재난구호단(한국기독교 연합 봉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역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와 함께 현장에서 만들어졌다. 그 후 한국 기독교 연합 봉사단이란 이름으로 긴급 재난이 발생한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재난을 당한 지역과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 둘째, 사랑의 과일나누기로 매년 설과 추석에 가락시장의 선한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과일들을 수해 지역이나, 영등포 쪽방, 원자력 병원, 나사로의 집 등 15군데로 나누어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다. 셋째, 사랑의 집으로 2002년 12월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헌금 전액을 어려운 가정에게 사랑의 집을 마련해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제 1호는 모녀 가정에게, 제 2호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미션하우스라고 이름하여 살게 하였고, 제 3호는 안과 질환으로 인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부자가정을 위해 준비하였다. 또한 제 4호는 광염학사라고 하여 어려운 환경출신의 대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집이다. 제 5호는 외국인 형제를 위하여 마련되었고, 제 6호는 여학사로 준비되었으며 앞으로도 사랑의 집은 계속 지어질 것이다. 넷째, 장애우와 떠나는 가을여행으로 마련되었고 매년 가을에 축제를 벌이는데 그 명칭은 '예수축제'이다. 그 축제사랑에 하나가 바로 '장애우와 함께 떠나는 가을 여행'이다. 지금까지 6년째 계속 되고 있으며 전담 부서인 '이웃사랑부'를 신설하였다. 가을 여행에는 100-200명의 장애우와 그들을 돕는 그만큼의 성도들이 필요한데, 매년 200-400여명이 함께 여행을 떠난다. 이런 여행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버리고, 서로가 동반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다섯째, 목유사란 가족들을 남기고 미리 세상을 떠난 유가족을 돕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2002년 강원도 강릉 지하개척교회에서 한 젊은 목회자가 처자(어린 3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다. 이후 광염교회는 목회자들의 유가족을 돕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여섯째, 광염 노년부는 1997년 4월부터 세분의 가난한 노인들을 섬기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120 여분의 노인들을 섬기고 있다. 이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세례를 주어 천국백성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광염 노년부는 봉사하고 있다. 일곱째, 사랑부는 2000년 6월부터 시작되었는데 불편한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작게 시작하고 있는 부서이다. 여덟째, 평안부는 교회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부서로서 서

을 시립노인 요양 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광염교회에서는 주일에 교역자를 파송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이들을 광염교회 평안부라고 칭하고 있다.

광염교회의 사역은 일반 교회에서 하는 지역사회봉사와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결코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파이프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라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하겠다는 광염교회만의 독특한 사회봉사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4. 영등포 광야교회

광야교회는 1987년 6월에 임명희 목사에 의하여 설립된 교회로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신 측에 소속되어 있다. 광야 교회는 영등포구 영등포 2동 즉 영등포 역 옆에 자리잡고 있다. 광야 교회는 일반 교회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평범하지 않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광야교회와 같은 사역은 특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영등포 광야교회의 현황 및 목회 비전

요즘에 영등포 역 주변은 대형 백화점 및 쇼핑센터가 생기면서 옛날의 자취를 잃어버리게끔 하였지만 그러한 도시의 화려함 뒤서 아직도 옛날의 허름하고 낡은 건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곳이 유명한 영등포 역 사창가를 비롯한 쪽방¹⁷²⁾들이 있는데 좁은 쪽방과 거리 노숙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서울의 별천지 동네인 것이다. 옛날 김진홍 목사의 활빈교회가 청계천에서 힘든 사역을 하였듯이, 이들 지역에서도 매일같이 술과 싸움의 연속인 난장판 같은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사창가 있는 곳에 광야교회가 들어선 것이다. 이 교회의 교인들은 노숙자, 독거노인쉼터 가출인 등을 포함하여 약 1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야교회는 노숙자를 비롯하여 가정에서 상처 입은 자들과 방황하는 자들을 위한 광야 종합 복지센터¹⁷³⁾를 건립하여

172) 쪽방이란 0.7평 남짓한 비좁고 숨막히는 공간으로 각자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곳으로 보증금 없는 월세, 일세를 내고 생활이 빈곤한 소외계층 즉 노숙자, 갈 곳 없는 방랑자, 가출인, 외국인 노동자 등 최하층의 빈민들이 살아가는 곳으로 일명 우범지대라고 불리기도 하며 우리나라 영등포를 비롯한 안산 등지에 쪽방이 있다.

173) 광야복지센터 안에는 남녀 별도의 쉼터와 한방치료실, 목욕시설, 세탁시설, 스트레스 해소실 등을 갖춘 복지시설을 의미하며, 복지센터의 건립을 위한 대지를 구입하였다.

하였고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회의 최고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 데, 감사하게도 현재 광야교회는 대지를 구입하여 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있다. 또한 광야 교회를 이끌어가는 임명희 목사의 교회관은 파도타기 교회로 설명할 수 있다. 보통의 사람들은 파도를 만나면 두려워하여 파도 속에 파묻혀 허우적거리지만 어려서부터 바닷가에서 자라 수영을 잘하는 목사는 연속적인 파도타기와 같이 커다란 시험과 난관을 타고 넘으면서 역경을 헤쳐 나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할 수 없는 특수 사역일 수도 있지만 한국 교회가 지역마다 그 지역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다면 내일의 한국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광야교회에서 노숙자들에 노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일 년 예산이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중 자체 예산과 후원금 그리고 구청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의 광야교회는 최근 들어 구청 등이 도움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부분은 후원금으로 유지되고 있다.

나. 광야 교회의 사회봉사 사역들

광야교회의 사역은 노숙자 쉼터로 노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하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노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들의 영혼도 구원한다는 목표를 함께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예배의 처소이자, 노숙자들의 숙식처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100여명의 노숙자가 교회당을 비롯한 3군데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다. 만약 교회가 이들을 말쑥과 예배와 숙식으로 돌보지 않는다면, 그 불쌍한 사람들은 어떠한 희망도 미래도 없이 지금과 같은 어두운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야 교회의 적극적인 돌봄과 관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희망과 함께 미래를 꿈꾸며 자립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 둘째, 쪽방 상담소이다. 이곳에서 노숙자들인 쪽방에 사는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의 사역이 매주 펼쳐지고 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8시 서안복음병원과 서울대 병원 팀이 방문하여 는 내과진료를 하고 있다. 이 시간대에 전남대 치대 팀의 치과 진료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매주 화, 목, 금요일과 주일에는 한방진료를 하며 이미용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광야 교회는 목욕과 세탁시설을 상담소 안에 설치하여 매일같이 쪽방 및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식사는 주민들과 교회 가족들에게 하루 세끼를

제공하고 있다. 대민 서비스로서 가난하고, 힘없는 주민들의 생활고와 민원 문의를 해결해 주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신청을 접수받아 생활고에 허덕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 밖에도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복원시켜 주는 일과 알코올 중독자들의 내적 치유 프로그램 및 쪽방 장애인 무료 금강산 관광,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 쪽 방 주민 도배 행사, 쪽 방 출신 합동결혼식, 화요일 밤 영등포 역내에서의 예배와 식사 제공 등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5. 맺음말

도림교회, 안산 다문화교회, 광염교회, 광야교회 네 곳의 교회를 선정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도림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사역을 감당하므로 사회봉사를 감당하는 전통적인 교회공동체의 모습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광염교회와 광야교회는 기존의 전통적 의미의 틀에서 벗어나서 그 지역사회가 요구하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역을 계발하고, 사역 방향을 제시하므로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탁월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안산 다문화 교회는 일찍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시작하므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 시대 사회에 매우 의미 있는 사역들을 전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지금까지 명성제일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대학과, 아버지 학교, 알파코스를 통하여 명성제일 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봉사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네 교회의 사회봉사를 살펴보면, 본 교회의 사회봉사의 현주소를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고찰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사회봉사는 자기만족 또는 자기 위안의 한 방편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아래 다음 장에서는 교회의 대안적 사회봉사의 제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5 장

대안적 사회봉사의 제안

본 장에서는 현재까지의 봉사활동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 추구하고 나아가 갈 진정성 있는 사회봉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봉사 공동체로서 교회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대안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를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우선 우리 사회가 속해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진단과 함께 사회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된 조류와 문제들을 살펴보므로 해서, 그것에 걸맞은 목표와 논의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에서의 봉사공동체의 신학적 탐구 에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언급하였던 개방형 가족공동체를 보다 깊이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해서 이 가족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발성과 지속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봉사공동체의 속성을 탐색하고 또한 우리 사회의 진단을 통해서 특징적인 조류를 살펴보고, 거기에 걸맞은 봉사 공동체의 대안으로서 가족교회 공동체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1 절 우리사회의 진단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교회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주로 대교회, 중소교회로 확산되면서, 대교회는 사회봉사관을 따로 건축하고, 사회봉사 전담 목회자를 두고, 전문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담당해왔다. 이 교회들이 했던 사업들은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욕구를 조사해서, 그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 예로서 어린이 집, 유치원, 장학사업, 공부방, 도서관, 노인학교, 주부대학, 결혼식장 대여 등의 형태가 대중을 이루었다.

2천년대 들어서면서 포스트모던 시대로 명명이 되고 있는 이 시대는 몇 가지의 특징적 성향으로 설명될 수가 있다. 2천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다원화의 특

정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분야는 노인, 환경, 싱글족, 이혼 가족,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더붙어서 교회 구성원과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한 지원까지도 고려되고 있고, 더 나아가 국제적인 영역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장단기 선교활동으로서 의료 봉사활동, 학교 건물 지어주기, 놀이터 만들어 주기, 기초 생활 환경 마련해주기 등의 사역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은 이미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교회 조직의 인적, 물적 전문적 지원 및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불가결 하게 되었다.¹⁷⁴⁾

사회적으로는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의 노동의 종말시대에서¹⁷⁵⁾ 노동이 감소하는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가 제 3부문이라는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데, 제 3부문의 특징은 민간 차원의 자원 봉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회는 국가나 기업이 제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발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있다. 특별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회봉사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다.¹⁷⁶⁾ 본 단락에서는 보다 시대에 적절하고 사회에 걸맞은 봉사를 위해서 이 시대의 사회적 조류를 논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 프로그램을 탐구하고자 한다.

첫째는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그 대안에 대해서 둘째는 다문화 시대와 그 대안에 대해서 셋째 남북한 통일을 준비해야하는 통일 준비시대와 그 대안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1. 고령화 시대의 진입

한 세기 전만 해도 우리 사회의 평균수명은 35세에 불과했고, 그 때는 100세가 넘게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노후에 대한 대비도 고려대상이 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평균 수명은 당시의 배가 훨씬 넘었고, 고령화 사회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게 되었다. 이런 고령화 시대는 전 세계적인 조류가 되고 있다. 이미 미국은 40년 동안에 증가한 인구 가운데 85세 이상 고령인구가 30퍼센트

174) 손정위, *기독교 정신과사회봉사* (대구: 계명대학교출판사, 2007), 241.

175) Jeremy Rifkin, *노동의 종말*, 이영호 역 (서울: 민음사 1996), 20.

176) Ibid., 347. 제 3부문의 활동은 미국 같은 경우 매우 활성화 되어 있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시민단체,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 자문위원회, 청년단체, 의용소방대, 지역 자치 위원회와 같은 자발적 봉사단체들이다.

증가하였고, 일본은 40년간에 100세 이상 인구가 100배나 늘었다. 177)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2003년 통계청에 의하면 2026년 한국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퍼센트를 넘게 되는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은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위치하게 될 것이다.

초고령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인층은 물론이고 전체 사회 구성원이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후를 건강하게 안락하게 보내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유병장수 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장수 자체가 달갑지만 않은 시대가 되는 것이다.¹⁷⁸⁾

가. 고령화 시대의 노인 건강

노인의 건강 문제는 최근 노인의 삶의 질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 지표가 되고 있다. 노년기의 삶의 질은 자신의 청장년기의 생활 혹은 사고 유형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 노년이 되면 경직성, 조심성이 증가하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많아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서 수용을 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노인들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왜곡되기 쉬운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만족감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¹⁷⁹⁾ 노년기의 삶의 질은 결국 어떤 여가활동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노년기의 여가 활동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노인들의 사회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수 있다. 노년기 여가 활동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논의가 있다.

커밍스와 헨리(Cummings & Henry)의 사회유리설에 의하면 노년기는 사회로부터 유리 되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하는 논점으로 노인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 보다는 위안과 휴식의 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논의는 장차 도래하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설득력을 가지기가 힘들다. 다른 하나는 뉴가르텐과 해비거스트(Neugarten & Havighurst)의 '사회활동이론'으로 노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177) 조성남, *에이지 붐 시대-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도전*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2004), 173.

178) Ibid., 177.

179) Ibid., 260.

역할에서 후퇴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사회활동의 축소에 대한 저항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사회활동 이론은 노인을 적극적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여가활동을 사회의 일부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노인여가 활동에 있어 매우 긍정적 해결점을 시사해주고 있다.¹⁸⁰⁾

노인의 여가활동과 종교생활은 좋은 연결점이 되고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 허정무 교수는 종교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외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종교활동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망이 형성되어 노년기에 오기 쉬운 무소속감, 고독감등을 덜어줄 수 있다. 또한 인간 관계망은 비상시에는 사회적지원망이 되어 필요한 물질적 도움이나 상담 등을 제공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둘째, 종교를 갖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다. 셋째, 개신교의 경우에 한정해 볼 때 금주, 금연 그리고 몸에 해로운 음식에 대한 절제와 통제는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건강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¹⁸¹⁾

다. 평생 교육으로서의 노인교육의 필요성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은 노인에 대한 이해와 대책을 심도 있게 추구하고 실행해 왔던 종교기관들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종교기관에서 시행하게 될 교육의 영역을 허정무는 6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신체적 특징과 변화를 종교적 이해를 통해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교육. 둘째, 신체적 상실감을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 셋째, 죽음에 대한 이해와 준비. 넷째, 은퇴와 같은 직업 상실을 창조적 활동으로 승화. 다섯째, 경제적 상실과 독립심의 상실을 독립적 거처를 마련. 마지막 여섯째는 다양한 상실의 복합성이 신앙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¹⁸²⁾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과거와 달리 평균 수명의 획기적인 연장으로 인해서 고령화 시대는 더 이상 먼 훗날의 현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서

180) 조성남, *에이지 붐 시대-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도전*, 263.

181) 허정무, *노인교육학개론* (서울: 양서원, 2007), 323,

182) Ibid., 327-329.

시작되었다. 더욱이 노인이 되고 나서부터 노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인이 되기 전부터 노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 사회는 평생 교육의 시대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사회는 평생 학습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고령사회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노인교육은 이 시대에 중요한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이상 그것은 평생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는 노인교육은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0년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여자 노인의 89.8퍼센트(초등학교 32.4퍼센트 이상, 무학 57.4퍼센트)이상, 남자 노인의 경우는 여자 노인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인 59.2퍼센트(초등학교 36.2퍼센트 상, 무학23.0퍼센트)이상이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갖고 있다(통계청, 2001).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노인들이 훨씬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음으로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교육 수준이 낮은 한국의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평생교육으로서 노인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라. 한국 노인교육의 현황: 복지위주의 노인교육

한국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미 2007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퍼센트가 되는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8년 혹은 더 빨리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퍼센트를 차지하는 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로사상이 해체된 현 상황에서 노인의 이미지는 점차 더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노인들은 젊은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 젊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소수자, 혹은 무력하고 무기력하여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약자로 여겨지고 있다. 매스 미디어 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령사회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생산성의 저하와 젊은 층의 노인에 대한 부담의 증가를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노인들은 이런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와는 다르다고 저항하기 보다는 이런 이미지에 대해 침묵하거나 아니면 이런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노인들로부터 '늙은 게 무슨 힘이 있나?', '자식한테 부담되지 않게 얼른 죽어야지' 등

의 말을 듣게 된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젊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노인 본인에게 있어서도 노인이라는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노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노인의 병약함, 외로움, 의존성 혹은 무기력함을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혹은 무기력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음악, 무용, 가요, 민요, 교양, 오락, 건강관리, 교양강좌, 건강 체조, 예절교실, 여행 등이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학습자가 되는 노인들은 프로그램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서, 주어진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한다. 노인들은 프로그램이 그들의 현재의 교육적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의 경우 역시 노인들을 자신들의 배움에 책임을 갖고 있는 주체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동반자로서 노인들을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노인들 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다양성-다양한 계층, 다른 성, 다양한 경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노인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계획,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정효는 교회에서의 노인교육 목회를 연구하면서 노인교육의 목적으로서 신앙성장, 자아 통합, 사회 재통합 교육¹⁸³⁾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교회에서의 노인교육은 기독교의 진리를 파악함으로써 신앙발달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삶속에서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 영역에서의 발달과정을 통해서 자아 통합의 과정이 일어나고, 주체적 봉사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와 함께 하는 삶을 구현하고 젊은 세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사회재통합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¹⁸⁴⁾ 이러한 노인교육을 위한 교회의 기본적 사명중 하나는 나눔과 실천을 통한 사회봉사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체적인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2. 다문화 사회의 진입

오늘 우리 사회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의 하나가 국제화, 세계화이고, 이런

183) 이정효, *신학사상 한국교회의 노인교육목회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4), 257.

184) Ibid., 258.

현상들이 우리 피부에 와 닿게 되는 것은 많은 외국인들을 주변에서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일변도의 외국인들을 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위 제삼국이라고 불리었던 나라들로부터 유입된 많은 외국인들을 접하게 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다문화 가족은 4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는 결혼 이민자들로서 우리 국민의 배우자들이다. 이들은 2010년 현재 67개국 18만 2천 명 정도가 된다.¹⁸⁵⁾ 이들 대다수는 외국인 여성배우자이고, 국제결혼에 의해서 생성된 가정과 그에 따라서 형성되는 공동체는 특수한 문화계층을 형성하게 된다. 둘째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그들은 한국에서 최대 5년간 살수가 있고, 5년 후에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가 6개월 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이들이 180개국 55만 명이 넘고 있다. 세 번째가 유학생들인데 175개국 8만2천 명 정도 되고 있다.¹⁸⁶⁾ 이들은 한국의 학문과 문화를 자신의 고국에 전파할 우리의 우군이라 할 수 있고 장차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어서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가 북한 이탈주민 즉 새터민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수가 현재 2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¹⁸⁷⁾ 이들 모두가 다문화 사회를 이루는 주된 구성원들이고 이들이 우리의 봉사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문화 시대는 단순한 사람과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문화와 문화의 결합 내지는 충돌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다문화 가정, 다문화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숙고하고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다.¹⁸⁸⁾

가. 다문화 사회의 원인

오늘 우리 사회에 다문화 시대, 다문화 사회라는 말이 빈번하게 들려지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저 저 유럽이나, 서구국가들 가운데서나 있었던 다문화라는 말이 이제는 우리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들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시대가 달라졌고, 다문화시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이미 다가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현정은 이런 다문화 사회의 원인을 우리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185) 이성미, *다문화 코드* (서울: 생각의 나무, 2010), 28.

186) Ibid., 29.

187) Ibid., 30.

188) 장미영 외, *다문화 사회 바로서기* (서울: 글솟대, 2008), 11.

서 생기게 되었다고 말한다.¹⁸⁹⁾ 1960-70년대에 당시의 사회적 조류는 '둘만 낳아 잘기르자'였다. 즉 산아제한 운동을 전 국가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채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급속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인구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현정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 국민의 기저를 이루는 혈연중심 사회와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¹⁹⁰⁾ 고 언급하고 있다.

문제는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막을 만한 확실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각종 장려책을 시행하지만 가시적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인구감소는 산업인구의 고갈로 이어지게 되고, 필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급격한 유입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흔히들 말하는 여권신장을 부르짖는 여성들의 '출산 거부 현상'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이를 많이 낳아서 기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부부가 합의에 의한 단산의 결정이 더 큰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출산율을 끌어 올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안 제시는 다문화 시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절실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¹⁹¹⁾

나.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요구 사항

이현정은 세 가지 차원에서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개인적 차원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¹⁹²⁾ 즉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과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 다름 자체를 이해하는 다양한 노력과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사회적 시스템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문화가 묵살되든지, 무시되어야 하는 일방적 문화 교육이 아니라, 쌍방향성의 문화교육이 필요하다.¹⁹³⁾ 또한 세계화에 발맞

189) 이현정, *우리의 미래 다문화에 달려있다* (서울: 소울메이트, 2009), 100.

190) Ibid., 101.

191) Ibid., 104.

192) Ibid., 132.

193) Ibid., 187.

추기 위해서는 차별의 문화가 철폐되어야 하고, 다문화 가정들이 함께 모여 사는 집성촌 형태의 주거문화는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 특히 고등학생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존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는 결코 다문화의 자녀들이 정착될 수가 없고, 대안학교와 같은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 차원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는 다문화 공동체가 공존하고 있으므로, 각 공동체가 대립과 갈등 보다는 다양한 퓨전 문화로 문화적인 혁명이 생길 수 있다.¹⁹⁴⁾ 즉 다문화는 풍부한 창의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다. 실제로 앞서 4장에서 살펴본 모범적인 봉사 공동체 중에 '안산 국경 없는 마을 공동체'의 경우 다문화 교회의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노동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울리고 공존하면서, 창의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남북통일 시대의 진입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하는 과정의 하나가 남북통일의 과정이다. 통일이라는 것은 단순한 땅의 통일, 정치적 통일이 아닌 사회적 통일이나 문화적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독일의 통일이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사회에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이 2010년 기준 2만 명 수준으로 늘었고, 앞으로도 상당 수준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탈북민의 증가가 명확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 하여야 할 것이다.

가. 남북한의 이질성 문제

남북통일 문제자체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 보다도 더 치밀하고 시급하게 준비하여야 할 문제는 통일 이후에 남북한이 어떻게 혼란 없이 사회통합을 이룰 것이라는 문제이다. 이라는 문제는 이미 통일을 이룬 나라들인 베트남, 예멘 그리고 독일의 경우를 통해서 보아 왔다. 이들 국가들은 통일에 대하여 남북한 보다 훨씬 많은 준비를 한 나라들 이지만 이들 모두는 하나같이 정치적 통일은 사회적 분열의 시작임을 우리

194) 이현정, *우리의 미래 다문화에 달려있다*, 217.

에게 알려 주었다.¹⁹⁵⁾ 남북한의 서로 다른 정체체제와 경제제도는 사회 성원의 행동 양식과 행동규범, 역사해석, 삶의 가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이질성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이질적인 사회, 문화적 특성은 통일 과정뿐만 아니라 통일 후에도 겪게 될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수가 있음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통일의 과정을 먼저 겪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현재의 상황을 '한 국가, 두 사회'라는 공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반도 통일 연구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¹⁹⁶⁾ 이러한 남북한의 심각한 이질성은 통일의 가능성을 매우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나. 통일 시대의 탈북민의 역할과 현황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 사회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이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한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낭만적 호감도, 사회주의에 대한 일방적 폄하도 부적절하다. 그래서 통일의 전단계로서 상대방을 잘 알고, 상대방이 가진 것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사회의 내부의 변화를 살피는 일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북한을 가보지 않고도 장시간 만남이 가능한 북한 주민, 즉 탈북민들의 남한 경험을 통해 통일 후의 사회적 문제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¹⁹⁷⁾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탈북민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이 되어왔다.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재외 탈북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입국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한으로 입국하는 탈북자의 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이범성은 이렇게 말한다.

현정부는 탈북자 정착지원 방향을 단순히 '보호'로부터 자립, 자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대로 탈북자에게 자립 자활의 의지를 높여주는 것만으로는 현실에서 한계가 있어 보인다. 탈북자들에게 자립자활의 의지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¹⁹⁸⁾

195) 박영신의, *통일 사회 통합 하나님 나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43.

196) 이범성, 같은책. p. 60

197) Ibid., 61

198) 이현정, *우리의 미래 다문화에 달려있다*, 63

탈북민을 위한 적응 훈련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원의 교육은 개인의 성향과 능력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교육하면서 실제 큰 실효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탈북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에서 자치단체 별로 적응 프로그램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어서 재정과 효과 측면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범성은 다음과 같이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며, 민간단체들이 자발성은 있으나 자체 영세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은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원은 종합적인 정착 지원단체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정착 교육만을 담당하고, 기타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정부조직이나 민간단체와 협력해야 할 것이다.¹⁹⁹⁾

이범성의 이런 지적은 매우 적절하고, 자발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봉사 공동체로서 교회를 들 수 있다. 앞서서 독일의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살펴본 대로, 자발성과 지속성을 겸비하는 것이 디아코니아의 실현에 중대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탈북민을 위한 디아코니아 사역에 있어서 자발성을 지닌 교회의 역할이 보다 극대화 되고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국가 기관과 봉사 공동체 상호간에 전문화된 네트워크의 형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가 있다.

명성제일교회에서는 탈북민 봉사를 위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탈북민들의 대부분이 남한사회에서 적응에 실패하고 전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는 탈북민들 스스로의 문제도 있었지만, 탈북민들 정착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탈북민 훈련 기관 또는 정부 해당기관의 잘못된 인식과 시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북민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이 모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범성은 사회 통합을 위한 탈북자 이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진다. 북한 사람만이 사회 통합교육 대상자인가?²⁰⁰⁾ 이런 질문은 탈북민들에 대해서 남한 사

199) 이현정, *우리의 미래 다문화에 달려있다*, 63

회가 정해 놓은 기준을 따라서 그들에게 적용하도록 강요해오지 않았는지? 에 대한 반성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남한사회의 삶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있고, 지독한 생존경쟁에 짓눌려 있다. 남한의 교회들 역시 남한 사회를 인간미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길로 선도하지 못할 뿐더러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정신에 함몰되어서 본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누가 누구를 가리켜 나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할 것인가?²⁰⁰⁾

이 지적은 참으로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가 없고, 한국교회가 통일시대에 있어서, 또는 탈북민들 앞에 내어 놓을 아무런 대안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시대의 연습 또는 전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탈북민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탈북민들만을 대상으로 훈련을 할 것이 아니라, 탈북민을 둘러싸고 있는 관련 기관과 후원단체, 자원 봉사 단체, 교회 등을 망라해서, 그들에게도 탈북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맺음말

탈북민 사역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사회봉사적 차원이고 둘째는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거시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봉사의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적절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고,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직적이고 폐쇄적이고, 남한 사회와의 동질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은 자기 정체성의 모호함으로부터 오는 불만을 누적시키고 있다. 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교회의 도움과 후원이다. 이범성은 교회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 복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해야 한다고 한다. 그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교방법이란 통일 이후의 재사회화

200) 이현정, *우리의 미래 다문화에 달려있다*, 64.

201) Ibid.

(再社會化) 과정에서 개인과 두 사회가 당면하게 될 악을 제거하고 편협한 교리적 차원이 아니라, 에큐메니칼 교회가 동의하는 신학적 기반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평화, 정의, 창조질서의 보전을 실천하는 일에 북한주민과 남한주민이 협조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다.²⁰²⁾

제 2 절 명성제일교회 사회봉사의 반성

앞에서 살펴본바 봉사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지녀야 할 요소는 자발성과 적합성, 지속성을 지적한 바가 있다. 자발성은 디아코니아 사역에 있어서 일반 국가 사회복지와 구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다. 지속성의 문제는 교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와 디아코니아의 사역이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차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서, 지속적인 사역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디아코니아 사역 150주년 백서에서는 미래의 디아코니아 사역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를 중요한 주제로 언급하고 있다. 디아코니아는 국가 사회 안에서 사회 정치적 공동책임이 인식된다. 즉 디아코니아는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넘어서서 사회정치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다. 즉 연대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사회를 책임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참여한다²⁰³⁾고 했다. 또한 동역자들에게 동기를 유발한다.²⁰⁴⁾ 세계적 차원에서 디아코니아를 인식한다.²⁰⁵⁾ 고 했다. 이러한 독일교회의 고백과 언급은 디아코니아 사역의 중요성과 함께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사역이 되어야 할 것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지속성의 문제는 교회자체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기도 한다. 본 논문의 서론에서 본인은 두 가지 화두를 논한바가 있다.

첫째는 외부적인 동기로서 한국교회의 성장 정체와 함께 신뢰성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다. 즉 사회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고, 표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봉사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성경적 근거와 함께 신학적인 고찰을 통해서 탐구하므로 진

202) 이현정, *우리의 미래 다문화에 달려있다*, 65.

203) 독일개신교연합, *신학과 실천*, 홍주민 역 (서울: 한국디아코니아연구소, 2006), 75.

204) Ibid., 105.

205) Ibid., 117.

정한 사회봉사를 시행하는 봉사공동체로서의 교회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봉사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 사회봉사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봉사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탐구하는 것이다.

둘째는 명성제일교회의 내부적인 요인이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듯이 본 교회도 봉사 인원의 고갈로 인해서 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회봉사가 분명히 필요하고, 선한 사역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많은 인원들이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봉사, 식당봉사, 구역장 사역, 남녀 선교회 모임 등이 주된 이유가 된다. 성도들은 이런 봉사를 더 귀중한 사역으로 생각하고 비중 있게 다루게 된다. 물론 교회자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배와 친교라고 하는 교회론적 타당성과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서 공동체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유영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와 유리되고 고립된 이기적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를 반성해본다. 그리고 교회공동체의 여러 모습 가운데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당장 필요한 디다케와 케리그마의 기능은 강조되었지만, 봉사하는 디아코니아의 모델과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²⁰⁶⁾

독일교회도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존재 표현이며 사회상이다. 말씀 선포처럼 디아코니아는 교회를 이끄는 하나의 축²⁰⁷⁾이라고 디아코니아의 교회적 근거를 표명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대부분 케리그마(말씀선포)와 디다케(교회교육)와 코이노니아(교제)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디아코니아(사회봉사)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케리그마와 디다케와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성장과 확장에 있어서 매우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해서 디아코니아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디아코니아 활동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과 확장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디아코니아로서의 사회봉사는 교회 자체를 운영하고 움직이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206) 유영권, *21세기 기독교공동체의 비전 한국사회와 공동체* (서울: 다산출판사, 2008), 46.

207) 독일개신교연합, *신학과 실천*, 123.

해야 하고, 사회봉사의 대상이 설정되어야 하고,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명성제일교회가 현재 하고 있는 사회봉사에 대한 반성이다. 교회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봉사에 대한 문제점과 미비점들을 분석하고, 보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화점식 점포 나열식의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색을 갖추기 위한 봉사가 되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명분에 치우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둘째 따라가기 식의 봉사라고 할 수 있다. 타교회가 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타교회가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본받고 따라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 지역에서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 현실에 부합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셋째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우리의 실정과 현실 인식을 토대로 해서, 진정한 봉사는 어떤 봉사인가를 생각해보게 된다. 진정한 사회봉사로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까지 해오던 것이니까' 라든지, 다른 교회와의 경쟁이 봉사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봉사공동체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육신 적인 근거위에서, 교회의 표지가 되는 디아코니아를 실천하고 표현하는 공동체를 추구하고자 한다.

제 3 절 명성제일교회를 위한 사회봉사의 방향 제안

앞서서 우리 사회의 진단에 있어서 '고령화 사회 진입' 에서 고찰 한 바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사회봉사는 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고찰한 것은 노인층에 대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다. 국가 사회 차원에서는 당연히 사회복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절실할 것이다. 노인성치매 환자라든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국가사회 차원에서의 돌봄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사회복지 차원만이 아니라, 보다 더 광범위한 영역에 까지 국가 사회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인의 문제는 노인성 치매나 질환만이 노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

문이다.

1. 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봉사의 방향 제안

고령화 사회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은 이제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영적인 건강까지도 연관이 되어서 전인적인 건강을 노인세대에게 이루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도 있게 추진되고, 이루어져야 할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세대의 평생교육'이 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될 때 노인성 치매나 질환도 비례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고령화 사회는 건강한 노년 세대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복지'와 '평생교육'이 보다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서서 우리는 독일의 비헤른이 주장했던 교회공동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자발성과 지속성이 상호보완을 이루는 봉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재 한국은 노인 복지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 왔다. 국가 차원에서 노인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많은 영역에서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당수 많은 노인성 치매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치유를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운영이 되는 경우 국가로부터 개개인 환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해서, 재정은 국가로부터 지출되고 개인에 대한 돌봄의 사역은 교회 공동체가 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국가와 교회가 동역하고 상호 보완하는 시스템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시스템은 앞서 독일의 디아코니아 제도의 근간이 된 비헤른이 주장한 자발적 신앙인 연합체의 성격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 교육에 있어서의 평생교육을 잠깐 언급한바 있다. 현재 국가사회 차원에서의 노인 복지는 치매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자들에 한정되어 있다. 차후에는 이런 국가 사회의 복지제도가 '노인교육의 평생교육' 영역에서도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생교육의 질이 높아질수록 치매라든지, 노인 건강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 질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저렴해질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평생교육의 영역에서는 이미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 안에 노인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교회의 봉사공동체적 인프라가 국가 차

원의 항구적 지속성을 가진 인프라와 결합이 될 때 자발적 신앙 연합체로서의 디아코니아가 고령화 사회의 중대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노인 평생교육'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본다. 앞서서 살펴본 바 노인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적합한 사회봉사로서 '평생교육으로서의 노인교육'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본 교회의 노인대학은 이미 10년 이상을 시행해오고 있고, 이에 대한 평가는 윌리엄 글라서의 선택 욕구이론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나온 바가 있다. 그러나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노인에 대한 더욱 더 깊은 이해와 고찰을 토대로 하여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첫째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인대학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정효가 '노인교육목회'를 통해서 제시한 발달 과정인 '신앙교육 단계, 자기통합단계, 재사회화 단계'에 입각한 프로그램이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상당수의 프로그램은 일반 경로당에서 시행하는 경로잔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용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노인대학에서는 신앙교육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신앙교육 단계를 위해서 본 교회는 노인층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교재 발굴과 시청각교육, 기독교 영화 상영, 노인중창단 활동, 자체기도회 등의 활동을 개발하고자 한다. 자기 통합단계로서 노인 대학의 봉사인원 일부를 노인들 자체에서 수급하는 것과 적절한 수준에서 외부사회 봉사(예: 독거노인 방문, 급식전달 등)에 노인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재사회화 단계로서 젊은 세대, 자녀 세대와의 소통과 대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노인들이 가진 재능과 은사를 자녀들을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활용하고,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하고,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는 '평생 노인 교육'이라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현재 잠재적 고령화 사회의 대상이 되는 연령층에 대해서도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교회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웨마학교의 경우는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말씀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노인층이 손자, 손녀에게 성경말씀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참여시키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도들이 노인층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준 노인층, 즉 노인 세대를 앞두고 있는 세

대들 부터 대상으로 하프로서 평생교육 차원으로서의 노인 교육이 가능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2. 통일 시대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본 교회에서는 2010년도에 이미 탈북민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날 및 추석 위로잔치를 실시한 바가 있다. 여기서 나타난 평가는 일시적이라는 점이고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보다 지속적이고 기능화 된 사회봉사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탈북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고찰해야 할 것이다.

탈북민들의 대부분은 북한으로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사명감 내지,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탈북민들은 장차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매우 훌륭한 선교의 자원이고 봉사의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탈북민에 대한 이해와 그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좋은 씨앗이 될 수가 있고, 실제로 본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탈북민 공동체 일원 가운데서는 신학교에 지원해서, 장차 탈북민 선교와 북한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

가. 탈북민 쉼터

새터민들은 탈북하고 남한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과정이 ‘하나원 교육’ 과정이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12주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기본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너무 나도 열악하고, 하나원의 과정 만으로는 남한 사회에서 살아갈수 있는 소양이나 지식은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태어나면서 부터 20년, 30년 이상을 북한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유래 없는 ‘공산주의 일인독재 체제’ 밑에서 교육받고, 적응해왔던 사람들에게 단 12주의 교육만으로 남한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현재 진행 되고 있는바 하나원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각지역으로 흩어지는 새터민들을 상대로 각 지역에서는 ‘탈북민 쉼터’ 제도가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탈북민을 위한 민간 차원의 지원 센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무상의무 교육제, 무상의료제 등으로 자녀양육의 부담이 덜했던 새터민

부모들은 북한에서와는 다른 남한 사회의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과 편이한 양육방식으로 당혹해 하며 경제적이며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된다. 자녀양육의 부담은 새터민 부모들에게 경제적 문제와 건강 문제로 인해서 심화된다. 새터민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는 남한 가정의 부모들과 다를 바가 없으며 새터민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뒷바라지를 마다하지 않는다.²⁰⁸⁾ 따라서 이들 새터민들에게 남한 교회에서의 지원 봉사는 매우 필요한 봉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환경속에 있는 새터민 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본 교회에서는 탈북민 지원을 위한 ‘쉼터’의 개념에 입각해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쉼터에서는 예를 들면 직장 알선, 상담센터 운영, 육아 보조, 자녀양육을 위한 등의 활동을 통해서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정착과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된다. 본 교회에서는 수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 ‘아기학교’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상담 센터와 육아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더 나아가서는 탈북 청소년층의 대안교육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 탈북민 홈스테이 프로그램

국내 입국한 새터민들은 탈북 동기, 입국 경위등을 조사받은 후 사회적응 교육시설인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기관(하나원)에 입소해서 일정 기간 사회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3개월 동안 기초적 소양교육과 함께 취직 및 주민등록, 임대주택 알선 등 정착준비를 마친 후 거주지를 배정받고 사회로 진출하게 된다. 이때부터 새로운 남한의 생활이 시작된다. 이 때 일정액의 정착 지원금이 지급되며 일정 기간 취업알선과 의료 및 생활보호, 지역 안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적응 교육기간 동안 하나원에서는 일반 가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일종의 홈스테이라고 할 수가 있다. 실제적으로 남한의 가정과 연결되어서 1박2일을 지내면서 실질적인 남한 사회생활을 익힐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가정과 만남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추후 좋은 인적 네트워크로 발전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남한 가정에서도 그저 단순한 교회 알림, 사회봉사 차원이 아니라, 탈북민

208) 조정아, *새터민의 문화 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6), 281.

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는 기회로 삼아야 하고, 장차 통일시대의 북한선교의 한 기초를 쌓아가고 있다는 사명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 4 절 대안적 봉사 공동체로서 가족교회 공동체의 탐구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는 현상들을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보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직장(直葬)-아무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서 장례도 없이 곧장 화장을 치른다는 의미-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이다. 앞서 살펴본바 고령화 사회, 다문화사회, 통일준비 사회라고 하는 시대의 조류 속에서 교회가 제시해야 할 대안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가족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다.

1. 가족교회 공동체의 정의 209)

가족교회 공동체의 개념은 성경적인 근거로서 '공동체적 존재로 피조된 인간성'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권문상은 “신약성경의 개방형 공동체를 제시하면서, 그 속성을 가족적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 수평적 섬김의 공동체 의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그분의 꿈이었던 공동체를 실현하게 하셨다. 그러나 구약의 공동체는 지리적인 제한이 있었다. 개방형 공동체는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제시되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방형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야 비로소 구현되었다”²¹⁰⁾고 한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에 대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때 사회학적 공동체 이해가 명료해지며 동시에 성경적 공동체 해석이 확실해진다”²¹¹⁾고 한다.

권문상은 이 삼위일체적 공동체를 바탕으로 가족 교회 공동체를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언급하였고, 구약과 신약을 거치면서 공

209) 여기서 가족의 개념은 혈연관계의 가족개념 보다는 포괄적의미로서 성경에서 정의(定意)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서 영적, 수평적관계로 맺어지는 가족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210) 권문상, *부흥 어께인 1907*, 221.

211) Ibid., 238.

동체의 형태가 발전하고 진화해온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족적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신약에서는 코이노니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고 한다. 현용수는 유대인 가족 공동체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 강력한 뿌리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착안해서 ‘가족 공동체’를 교회의 시대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제기한다.

유대인은 신약시대 2천 년간 이방 땅을 유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자손손 전수하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고, 교인도 유대인이 많았는데 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안디옥교회나 고린도교회 같은 초대교회들은 이방선교는 성공했으면서도 가족이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자손손 전수하는데 실패했는가?²¹²⁾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원인을 제시한다. “초대교회는 이웃전도와 세계선교만을 강조했다. 성령 충만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데 전심전력했다.... 따라서 자연히 가정의 중요성이나 자녀들에게 말씀 전수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즉 가정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²¹³⁾고 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쉘마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가족 공동체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권문상은 성경적 계시 공동체를 우리 민족에게 정착시키는 해법으로 가족이라는 문화개념 속에서 찾아내고 있다. 즉 우리 민족 속에 흐르고 있는 가족 문화를 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적 문화로, 적용, 순화하게 되면 새로운 창조적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일례로 창세기에 나오는 계대 문화를 들고 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형의 대를 잇기 위해 동생이 형수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당대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셨음을 보게 된다²¹⁴⁾고 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가족 인가? 하는 질문에서 공동체 교회의 키워드가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가족교회의 유사한 형태라고 할수 있는 신약의 가정 교회를 먼저 고찰하면서 현대 서구 가정교회도 이러한 고고학적이고, 성경적인 근거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로버트 뱅크스(Robert Banks)는 바울서신의 공동체성을 논하면서 “ 바울은 공동

212) 현용수, *부모여 자녀를 제자삼아라* vol. 2, (서울: 쉘마, 2002), 199.

213) Ibid. p.200-201

214)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258

체에 대해 논의 할 때 자주 은유를 사용한다”²¹⁵⁾고 했다. 즉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건축되는 건물로 비유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 뱅크스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가족으로 비유한 것은 다른 어느 은유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바울의 가족은유는 공동체에 대한 그의 사상의 정수를 나타낸다.”²¹⁶⁾ 고 했다. 권문상은 “가족교회는 초대교회의 혈연과 지연을 초월한 개방형 코이노니아 공동체와 가장 한국적 정서인 가족주의 문화를 접목한 문화 친화적 공동체²¹⁷⁾”라고 설명한다. 가족교회의 강력한 특성은 문화적 친화성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에 매우 친화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가족교회 공동체의 효용성

오늘날 한국 사회의 해악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 분파주의, 집단 이기주의와 같은 병폐 현상들은 거의 다 유교적인 가족주의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 한국 교회의 깊은 뿌리와 전통에 대한 대안으로 가족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가족주의로 인한 폐해를 뒤집어서, 오히려 가족주의를 적극적인 의미로 성경에 입각한 가족교회 공동체로 재해석하므로 진정한 한국화 내지는 토착화의 작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권문상은 가족교회의 능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첫째는 인간이 서로에게 사랑 받고 싶어 하고,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한다는 사회적 본연의지를 ‘가족의식’ 아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 집단에 소속하고 싶은 마음, 곧 소속감을 가장 잘 구현시킬 수 있다고 한다.²¹⁸⁾ 둘째 가족교회는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를 벗어나게 한다. 그러므로 교회갈등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²¹⁹⁾

현용수는 자녀교육의 관점에서 가족공동체의 효용성을 강조한다. “신약의 중심 주제가 구원을 위한 복음이라면 구약의 중심주제는 선민 교육, 쉼마 즉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약의 중심주제인 복음은 구원의 열쇠라면, 구약의 중심주제

215) Robert Banks, *바울의 공동체사상*, 장동수 역 (서울:IVP, 2007), 95.

216) Ibid., 97-98.

217)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271

218) Ibid., 290

219) Ibid., 291

인 선민교육, 웨마는 자녀교육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²²⁰⁾고 한다. 현용수의 웨마 교육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전수가 이루어지는 가족 공동체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3장에서 살펴본바 스나이더는 ‘DNA 비유’로서 교회 공동체를 설명한바가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DNA를 다섯 가지의 핵심적 요소로 제시한다. 첫째는 예배와 선교의 DNA 둘째는 유기체적 교회생활, 셋째 예배와 친교의 DNA 넷째 사도적 DNA 다섯째는 대항 문화적 DNA 이다. 그는 하트랜드 크리스천 공동체를 예로 제시하면서 교회의 DNA 비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바, 이 DNA라는 개념 속에는 이미 가족적인 공동체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²²¹⁾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가족교회 공동체의 또 다른 효용성을 살펴보면 가족공동체는 봉사공동체로서의 적합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독일교회의 비헤른이 주장했던 세 가지의 봉사 공동체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²²²⁾ 자발성과 지속성이 봉사공동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자발성과 지속성을 균형있게 유지하고,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랬을 때 가족교회로서의 봉사공동체는 ‘가족’이라는 속성 속에는 자발성과 지속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있다고 할 수가 있다. 자발성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섬김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동기유발이 있게 될 때 자발성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다. ‘가족 공동체’는 자발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동기 유발적 요소를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지속성에 있어서도 그렇다. 지속적인 봉사가 가능한 원동력은 끊임없는 지지와 격려와 결속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 교회 공동체는 태생적으로 섬김과 사랑의 구조적 요소를 가졌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오는 끊임없는 긍정적 격려와 지지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봉사가 가능한 공동체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족교회 공동체를 고찰해 본 바를 토대로 해서 다문화 사회, 통일 준비시대의 대안적 공동체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220) 현용수, *부모여 자녀를 제자삼아라* vol. 1 (서울: 웨마, 2002), 81.

221) Howard Snyder, *교회 DNA*, 132-137.

222) 홍주민, *디아코니아학 개론* (오산: 디아코니아 연구소, 2008), 199.

제 5 절 다문화 사회에서 한 대안으로서 가족교회 공동체의 고찰

다문화 시대에서도 가족 교회 공동체는 빛을 발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문화 시대는 다종교 시대가 필수적으로 동반 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슬람 종교의 급격한 팽창은 다문화 시대의 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다문화, 다종교 시대에 기독교의 정체성이 위협 당할 수밖에 없다. 이미 이슬람 문화는 유럽을 잠식하고 있고, 2011년 7월에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총기테러 사건도 이러한 이슬람 종교의 급격한 팽창에 대한 반발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 다문화 사회에서 국가의 정책-기독교와 비친화적 현실

다문화 사회, 다종교 사회의 부작용과 충격을 이미 겪고 있는 서구 유럽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다문화 사회의 문제는 남의 문제만이 아니라, 곧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도 밀어닥칠 현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우리 사회도 다문화의 물결이 밀어닥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진입을 했고, 또한 저출산 현상과 독신주의의 유행 현상이 겹쳐지면서, 우리 사회의 인구는 급격한 감소를 하게 된다는 것이 많은 통계자료가 말해주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가 되었고, 이런 고도 산업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 인력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정책, 사회의 현상은 결코 기독교 친화적일 수가 없고, 한국교회는 국가 정책이나 사회 현상에 의해서 그 미래가 좌지우지 되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이고, 다양한 종교가 혼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 국가사회가 쏟아내는 정책들은 기독교 선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반 교회적, 반기독교적 정책을 쏟아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예로서 이슬람의 금융자본을 끌어들이는 수크크 법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시도라든지, 경제 논리, 정치 논리의 의해서 제도나 법이 운용되므로 해서 기독교 가치관에 위배가 되고,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시대 사회의 조류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는 우리 한국 교회 자체가 기존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결코

다문화 사회를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한국 교회의 대응

안산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다문화사회 속에서 매우 바람직한 공동체를 이루어낸 국경 없는 마을 공동체의 사역을 고찰해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 첫째로 그 공동체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우르고, 함께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다. 약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들의 문화를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들 가운데 종교로 접근하지 않고, 문화로, 나눔의 자세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셋째로 원주민들(원곡동 주민들)과의 관계를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이다. 원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서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고,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 나감으로써 원주민들과의 장벽을 해소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그 국경 없는 마을 공동체 안에는 현재 수십 개 국으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들 속에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 언어가 혼재 있지만, 서로 서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지만, 이슬람 회당이 들어서지 않았다. 그것은 이 국경 없는 마을 공동체를 계획하고 주도하고, 이루어 나간 사람은 박천웅 목사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도 않았다. 그는 철저히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 속에 체화되고, 문화화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한다.

박 목사의 국경 없는 마을 공동체는 비록 언어와 문화와 종교가 다른 이방인들로 구성 되어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부모와 자녀 됨이 나타나는 가족교회 공동체와 부합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사회를 이루게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결혼을 통해서 주류 문화 속에 들어 온 사람 다문화 가정이나, 유학으로 편입된 사람들에게 한국교회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적 공동체로서 가족교회 공동체는 적절한 대안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맺음말

다문화 시대와 함께 떠오르는 문제 중의 하나가 무슬림의 출현이고, 이 무슬림과의 관계문제와 선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를 일찍 경험했던, 유럽의 경우, 무슬림의 엄청난 이주와 함께 기독교의 교회는 엄청난 감소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 공동체로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안산 국경 없는 마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동체의 경우 무슬림 국가 출신의 노동자들이 다문화 공동체를 접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다문화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박천웅 목사의 한 체험은 좋은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산업연수제도 폐지를 주장하면서 단식투쟁을 하던 중, 외국인 노동자와 이슬람 종교지도자인 이맘이 찾아 왔다. 일행을 따라온 양손이 잘린 외국인 노동자 하나가 생수 두병을 내놓았다. 목사님 단식하는데 저희가 할 일을 목사님이 고생하십니다. 라고 했다. 그 이후에 성탄절 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다. "목사님 저는 이슬람 모스크의 이맘입니다. 크리스마스라 찾아왔습니다"라고 했다.²²³⁾

결국 다문화 사회에서 대안은 소수자로, 사회적 약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다문화 사회 구성원들에게 성경적인 접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섬김과 나눔과 희생의 자세가 철저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나그네에 대한 배려와 약자에 대한 섬김과 긍휼의 자세가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소통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가족 공동체'로서 의 다문화 공동체가 그 대안적 공동체로서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6 절 남북한 통일 준비시대의 대안공동체로서 가족교회 공동체 고찰

남북한 통일 시대는 이제 머나먼 미래가 아니라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조짐으로 인해서 현실화 되고 있다. 장차 통일의 한축이 될 북한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능한 것은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경험을 미루어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 체제 속에서

223) 박천웅, *이주민신학과 국경 없는 마을 실천* (안산: 국경 없는 마을, 2006), 243.

살아오다가 남한에 정착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통해서 장차 북한사회와 남한사회가 통합될 때 겪게 되는 문제점을 미루어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정재영은 탈북자의 사회의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점들을 제공해주고 있다.²²⁴⁾ 그 중 몇 가지를 보면, 북한사회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는 북한의 일상생활의 관심은 오로지 먹는 문제라고 답한 것이 63퍼센트로 나타나고 있고, 사회주의에서 배운 미풍양속으로는 협동과 배려가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²²⁵⁾ 남한사회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는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 80퍼센트 이상의 수치로 표현되고 있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조사에서는 교회가 남한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에 대해서 67퍼센트, 남한의 교회들이 통일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가 68퍼센트를 보여준다.²²⁶⁾ 이런 수치들은 탈북민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와 교회가 매우 긍정적인 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조성돈은 탈북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한 재사회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²²⁷⁾ 이 논의 과정에서 통일 이후의 대안 공동체를 모색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북한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북한사회의 공동체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사회의 공동체는 첫째 왜곡된 공동체라고 한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공동체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만, 실상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라기보다는 공산당이 중심이 되고, 김정일 일인 독재체제에 대한 충성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라기보다는 학습된 전체주의라고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²⁸⁾

조성돈은 기독교는 대안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북한주민은 기독교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북한사회에서는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종교를 비판해야 하고,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매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선교사라는 말만 들어도 떨 정도이고, 남한에서 반공교육을 받는 것처럼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탈북민들이 탈북한 이후에 만난 기독교에 대한 의식은 이렇다. 탈북민들은 탈북

224) 정재영, *통일 사회통합 하나님나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22.

225) Ibid., 123.

226) Ibid., 137.

227) 조성돈, *교회의 신뢰회복을 통한 한국교회의 공공성 확립, 공공신학-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섬김에로의 초대*, 141.

228) Ibid., 154.

한 이후에 중국을 비롯한 제 3국에서 교회를 접했다. 유일한 도움의 창구가 교회이기 때문이다. 증언에 의하면 탈북자들의 90퍼센트가 교회를 찾고, 그런 연결이 남한으로 들어올 때까지도 잘 유지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상당수가 교회 생활을 유지 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오랜 기간 동안 북한에서도 생활 총화 같은 제도로 엮매여서 살던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남한에 왔는데 또 교회에서 조차 자꾸 사람을 엮어매니까 심적으로 반항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내어놓고 교제를 나누자고 하니 그것도 북한의 과거가 생각나서 싫다는 것이다.²²⁹⁾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한국교회가 아무런 대책 없이 탈북민들을 수용하는 과정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들인 것이다. 탈북민들에 대한 깊은 고민과 통찰이 없이 남한 사회에서 하던 행위를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할 때 거기에는 필히 부작용과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성돈은 통일 이후에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실제적으로 탈북자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로서 새로운 가치체계나 규범을 제공하는 준거 집단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제기한다.

과연 남한의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재사회화의 장으로서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교회자체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건전한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지금과 같이 자본주의적인 사고와 구조로는 통일이후의 사람들을 품고 변화 시켜나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의 첫걸음은 건전한 공동체로서의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다.²³⁰⁾

우리가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에 한국교회는 어떤 대안적 공동체를 보여

229) 조성돈, *교회의 신뢰회복을 통한 한국교회의 공공성 확립, 공공신학-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섬김에로의 초대*, 159.

230) Ibid., 164.

주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남한 사회에서의 기존의 대형교회 위주의 교회 공동체는 결코 적합한 대안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성돈의 언급대로 기존의 대형교회는 이미 자본주의 토양 속에서, 경쟁구도 속에서 버티고 성장해온 패러다임에 매어있기 때문에 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통일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장차 북한을 선교대상으로 했을 때 과연 어떤 형태의 공동체가 바람직할 것인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과 가장 근접하고, 가장 유사한 속성을 지닌 사회가 탈북민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탈북민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비교적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논점에서 생각할 때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공동체는 바로 가족 공동체 라는 것이다. 그들이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이유는 바로 진정한 공동체의 부재이다. 2011년 현재 우리사회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이 2만 명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문제는 이미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유입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들에게 적절한 대안을 아직까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저 물량공세로,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시하고, 직업을 알선하는 정도인 것이고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는 공산주의 보다 훨씬 우월하므로, 너희가 여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라는 식으로 남한사회 곳곳에 풀어놓고 방치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만져주고, 마음을 들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이고, 이런 공동체가 부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

본 교회는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활동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앞서 소개한 바가 있다. 그러나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끼리 함께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것이다. 남한 사회 속에서 그들은 이방인 아닌 이방인으로, 동족 아닌 동족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탈북민 공동체 형성이다. 함께 북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탈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엄청난 시련과 상처를 함께 아파하고, 울어줄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다. 그 공동체는 남한의 교회들과는 전혀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그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패러다임의 교회를 가르쳐

주고, 강요한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와 똑같은 교회를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적합한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적합한 교회상, 공동체상을 제시하고, 그들을 돌봐 줄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한국 교회의 몫이고 역할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교회가 대안적 공동체를 먼저 형성하고, 이것이 파급되고, 이식(移植)될 수 있는 모델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있는 작업이 가족교회 공동체로서 구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가족 교회 공동체의 형성은 건강한 한국교회를 지향하고, 고령화 사회, 다종교 다문화 시대, 또한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사회 속에서, 많은 문제점을 살피며, 한국 교회가 제시할 수 있는 한 방향으로서 ‘가족교회 봉사 공동체’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제 7 절 맺음말

본 연구자가 살펴본 바 가족교회 공동체는 좀 더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가족교회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많은 유용성과 효력은 보다 더 깊이 고찰이 되고, 조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약성경 곳곳에서 성도의 공동체를 규정하는 호칭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혈연관계의 가족을 뛰어넘는 영적관계의 가족을 말해주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마12:50)” 하였고, 사도바울은 디모데를 일컬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딤후1:2)”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을 지칭할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호칭들은 혈연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맺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전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미 우리 시대에 시작된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 다문화 사회와 통일 준비시대 속에서 제시되어야 할 대안적 봉사 공동체를 가족 교회 공동체라는 패러다임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추후에 우리는 가족교회 공동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함께 가족교회 공동체가 실제로 운영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3장에서 거듭해서 논의 했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교회상을 추구하고자 한다. 진정한 가족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발성과 지속성을 함께 지닌 봉사공동체로서

의 교회상이 이루어지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대안으로 제시할 공동체의 패러다임을 추구하고자 한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전도나, 선교라는 것이 매우 문제시 되는 용어가 될 수 가 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접근은 문화적인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고, 한국 사회에 문화가 기독교 문화는 성경적인 가치와 정체성을 접근,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가 속해 있는 통합 교단의 2011년도 주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다. 곧 한국교회의 신앙 전수는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문화에 대한 접근이 있다. 그들은 어디를 가나,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은 문화와 더불어서 그들의 신앙이 그대로 전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문화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틀이 있어야 한다. 그 틀은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어떤 세상의 물결과 사회조류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틀은 바로 가족이라는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이라는 틀을 유지하게 될 때 그 속에는 생존과 생활을 영위해나가기 위한 가치가 있고, 또한 문화가 있다. 가족이라는 틀과 성경적인 가치를 지닌 기독교 문화가 함께 융합이 될 때 거기에는 자발성과 지속성이 함께 존재하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족교회 공동체 속에 함축되어있는 자발성과 지속성, 그리고 가족 친화성이라는 요소는 오늘 우리 시대의 주된 조류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다문화 시대, 통일을 대비하는 시대 속에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봉사 공동체의 필요한 요소들과 부합되고 있음을 고찰해 보았다.

고령화 시대의 평생교육으로서의 노인교육, 다문화 시대의 다문화 사회를 향해서 제시할 수 있는 가족적 친밀성과 섬김의 요소, 탈북민들의 상처와 고통을 아우를 수 있기에 적합한 '가족교회의 공동체성'은 탈북민 선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족교회 공동체 성은 이미 3장에서 논의되고, 강조했다던 것처럼 진정성 있는 봉사 공동체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나눔과 섬김과 희생'의 덕목을 핵심 가치로 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 다문화 사회, 통일 시대에서의 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제 6 장

결 론

본 논문은 ‘사회봉사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질수 있다. 하나는 ‘사회봉사’에 대한 고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봉사를 실행할 ‘봉사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연구이다.

2장에서는 사회봉사의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보므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의 사회봉사를 파악하고,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사회봉사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행동 규범으로서의 근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봉사’에 대한 성경적 고찰은 구약과 신약에서 사회봉사에 대한 개념과 당위성을 살펴보므로 사회봉사는 하나의 선행이나 베품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면 당연히 나타나고 보여야 하는 모습으로서 사회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봉사공동체의 신학적 고찰’을 통해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론적 기반을 생각할 수 있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공동체로서, 선교적 공동체로서, 나눔과 섬김이 공동체의 DNA가 되어서 사회봉사를 하기에 적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해서 봉사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교회론적 근거를 세울 수 있었다. 이 교회론적 근거가 세워지므로 목회철학과 시대 사회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지므로 해서, 목회적 실천 목표가 세워질 수 있었다. 교회론적 근거와 시대 사회에 대한 통찰을 양측으로 해서 목회적 근거가 세워지고 지역사회를 향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 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섬기는 명성제일교회에서 시행하는 3가지 프로그램을 윌리엄 글라서의 욕구 이론에 근거해서 평가하므로 목회적, 선교적 측면에서의 유용성

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호응도와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5장에서는 본 교회에서의 사회봉사를 반성하면서 3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다 본질적인 사회봉사 공동체로서의 교회상을 추구하고, 대안적인 사회봉사로써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봉사가 단순히 교회나 성도개인이 시행하는 전도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목회철학과 하나님 나라 비전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가 봉사공동체서의 교회론의 기초가 되어서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동시대적의 대안적 공동체로서 역할과 전망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는 사회봉사라고 하는 내용보다도 그것을 담고, 시행해야 하는 공동체자체의 초월적 성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봉사 공동체로서의 공동체 성 즉 초월적 성격을 회복할 때 경험적 현실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봉사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성경적, 신학적 탐구를 거치면서 거듭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는 현실사회 속에서 초월적 하나님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다.

교회가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부정하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그 자체가 초월성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정한 ‘봉사공동체로서의 교회상’을 확립하게 될 때 자기 존재, 자기 구현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기능하게 될 것이다. 2장에서 ‘사회봉사의 성경적 근거’와 3장에서 ‘봉사공동체의 신학적 탐구’를 통해서 얻게 된 통찰과 5장에서 다루었던 가족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본 명성제일교회의 공동체의 비전을 재음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도공동체로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 된 교회의 지체로서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표방하고자 한다. 교회의 세계화이면서 세계교회의 지역화이다.

둘째로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는 교회의 기독교적 근거를 ‘예수가 주인이 되는 교회’로 설정하므로 해서 교회의 모든 비전과 목적이 예수로 부터 시작되고, 예수의 정신, 예수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과 나눔의 삶을 ‘교회의 DNA’로 삼고자 하는 모토가 되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가 자기가 주인 되는 공동체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3장에서 고찰했던 바와 같이 우리 사회와 교회내의 많은 갈등과 문제가 유교적 집단 이기주의에 기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기적 집단주의의 근본은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속한 집단이 주인이 되는 것에서 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자기가 주인이 될 때 교회를 좌지우지 하고, 주도권 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모든 직분은 계급화가 되고, 모임은 정치집단화 되고, 인간관계는 정치모임이 된다. 자기가 주인이 되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한 반발과 갈등이 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는 ‘가족교회 공동체’ 속에 임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의 주인 되심을 추구하고, 고백하는 공동체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셋째 “가정과 심령이 복 받는 교회”는 가정과 영혼이 하나의 지체로서 연결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교회 공동체의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性) 이라고 할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은 ‘교회의 코이노니아’만 아니라, ‘가정의 코이노니아’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5장에서 시대적 조류를 고찰하면서 우리 사회의 세 가지의 괄목할 만한 현상으로서 고령화 사회, 다문화 사회, 통일 준비 사회를 언급하였다. 오늘날 수많은 문제가 가정의 부재, 부모와 자녀의 깨진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재로부터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한 대안적 공동체로서 ‘가족교회 공동체’를 고찰했고, 그에 대한 가능성과 효능에 대해서도 탐구해 보았다.

본 교회에서는 이런 대안적 공동체에 입각한 목회철학을 설정하고, 그 목회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안적 공동체로서 교회가 지녀야 하는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의 세 가지 요소에 섬김과 봉사의 정신이 DNA처럼 스며들고, 녹아들어서 그것이 사회봉사 공동체로서 민족과 사회 앞에 표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록 1

설문조사지

설문조사 내역(명성제일교회) 실시일자: 2010년 10월 15일

아래 설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명성제일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 매우 많이 2) 많이 3) 보통 4) 적게 5) 전혀 안 한다

2. 주변 사람들(신자, 불신자 포함)로부터 우리 교회가 어떤 평을 받고 있는지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있다면 어떤 평을 받고 있습니까?

1) 매우 좋다 2) 좋다 3) 보통 4) 별로 안좋다 5)아주 나쁘다

4. 좋다면 어떤 면에서 좋은지? 나쁘면 어떤 면에서 나쁜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교회가 어떤 봉사를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노인대학, 아버지 학교, 아기학교, 알파코스, 영어클래스, 국내선교부, 탈북민 위로잔치 및 홈스테이 중에서 순서별로 3가지씩만 답해주세요)

6. 그 프로그램이 좋았던 이유 231)

(5가지 이유 중 해당 난에 점수를 매겨주세요: 5점만 점 중 몇 점?)

항목설명: 자아실현-내 삶의 보람을 얻었다 영향력 증대-남을 칭찬해주고 세워 주었다 재미-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다. 소속감-남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 생존-살아 갈 소망을 얻었다(문제가 해결됐다).

1) 노인대학

자아실현 () 영향력증대() 재미 () 소속감() 생존()

2) 아버지학교

자아실현 () 영향력증대() 재미 () 소속감() 생존()

3) 아기학교

자아실현 () 영향력 증대() 재미 () 소속감() 생존()

4) 알파코스

자아실현 () 영향력 증대() 재미 () 소속감() 생존()

5) 국내선교

자아실현 () 영향력 증대() 재미 () 소속감() 생존()

6) 탈북민 선교

자아실현 () 영향력 증대() 재미 () 소속감() 생존()

7.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많이 해야 할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도 포함)

231) 이 항목은 윌리엄 글라서의 선택이론에 입각한 인간의 다섯 가지 욕구를 도입한 것으로서 봉사에 참여한 교인들이 봉사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 5가지 측면에서 수치로 표현되는 조사라고 할 수가 있다.

부록 2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총 85명으로서 주로 봉사 참여에 적극적인 교사와 구역장들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설문조사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명성제일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많이: 3 (3.5퍼센트) 많이: 25 (29.4퍼센트) 보통: 46 (54.1퍼센트)
적게: 10 (11.7퍼센트) 전혀 안 한다: 0 무응답: 1(1.1퍼센트)

2. 주변 사람들(신자, 불신자 포함)로부터 우리 교회가 어떤 평을 받고있는지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 38 (44.7퍼센트) 없다: 46 (54.1퍼센트)

3. 있다면 어떤 평을 받고 있습니까?

매우 좋다: 4 (4.7퍼센트) 좋다: 27 (31.7퍼센트) 보통: 14(16.5퍼센트)
별로 안 좋다: 1(1.1퍼센트) 아주 나쁘다: 0 무응답: 32 (37.6퍼센트)²³²⁾

4. 좋다면 어떤 면에서 좋은지? 나쁘면 어떤 면에서 나쁜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응답: 32(37.6퍼센트)

좋은 면: 노인대학: 6(7퍼센트)

각종봉사: 5(5.8퍼센트) 교회이미지: 3(3.5퍼센트)

목사님설교: 3(3.5퍼센트) 분위기: 3(3.5퍼센트) 아기학교: 2(2.4퍼센트)

232) 무응답이 많은 이유는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등학교 장학금: 2(2.4퍼센트) 치유프로그램:2 (2.4퍼센트) 전도활동:2 (2.4퍼센트)

알파: 1(1.1퍼센트)

나쁜 면: 지역선교 부족: 1 초신자 관심 부족: 1 주일학교 자녀 관심부족: 1

5.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교회가 어떤 봉사를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노인대학, 아버지 학교, 아기학교, 알파코스, 영어클래스, 국내선교부,

탈북민 위로잔치 및 홈스테이 중에서 순서별로 3가지씩만 답해주세요)

노인대학: 70(82.4퍼센트) 알파: 41(48.2퍼센트) 아버지학교: 38(44.7퍼센트)

아기학교: 28(32.9퍼센트) 탈북민 선교: 26(30.6퍼센트)

국내 선교 봉사: 18(21.2퍼센트)

영어 공부반: 12(14.1퍼센트)

6. 그 프로그램이 좋았던 이유

(5가지 이유 중 해당 난에 점수를 매겨주세요: 5점만 점 중 몇 점?)

항목설명: 자아실현-내 삶의 보람을 얻었다 영향력 증대-남을 칭찬해주고 세워 주었다 재미-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다. 소속감-남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 생존- 살아 갈 소망을 얻었다(문제가 해결됐다).²³³⁾

1) 노인대학

자아실현(2.9/23) 영향력증대(3.5/20) 재미 (3.3/24)

소속감(3.8/16) 생존(3.5/10)

2) 아버지학교

자아실현(4/19) 영향력증대(3.8/21) 재미(3.6/14)

233) 이 항목에서 앞의 수치는 응답한 사람들이 느낀 정도(5-1점)를 합산해서, 응답자 숫자로 나누는 수치이므로 응답자들의 느낌의 평균점수라고 할 수가 있고, 뒤의 수치는 참여자의 수치이므로 다른 프로그램과의 참여도를 비교할 수가 있다.

소속감(4/14) 생존(4.2/11)

3) 아기학교

자아실현(3/8) 영향력 증대(3.2/15) 재미 (3.5/13)

소속감(3.3/13) 생존(2.7/7)

4) 알파코스

자아실현 (3.6/27) 영향력 증대(3.9/28) 재미 (3.5/30)

소속감(4.1/27) 생존(3.9/16)

5) 국내선교

자아실현(3.5/12) 영향력 증대(3.8/16) 재미 (3.7/6)

소속감(4/8) 생존(3.3/7)

6) 탈북민선교

자아실현(3.6/10) 영향력 증대(3.6/16) 재미(3.7/9)

소속감(3.9/8) 생존(3.4/11)

7.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많이 해야 할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도 포함)

학교선교(청소년을 위한 공간제공): 11

카페운영(문화센터 개념): 6

아버지 학교: 7

국내선교: 8

탈북민 선교: 6

금홍사역(노숙자봉사): 8

노인대학: 8

아기학교: 4

성경공부 다양화: 4

노인실버 타운: 4

교회홍보행사(절기행사): 2

지역선교(구제포함): 8

알파: 8

영어클래스: 3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 장대기. *현대사회에서공동체는 가능한가?*. 서울: 아카넷, 2001.
- 정원범. *사회선교, 목회, 21C*. 서울: 한들출판사, 2006.
- 고범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4.
-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성남: 브니엘, 2006.
- 기독교정신과 사회봉사 편찬위원회. *기독교정신과 사회봉사*. 대구: 계명대학교, 2007.
- 김명용. *현대의 도전과 오늘의 조직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 _____.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 김성철. *교회사회복지실천론*.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3.
- 김영자. *통일논단: 탈북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교육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필요성과 역할*. 서울: 북한연구소, 1999.
- 김옥순. *디아코니아학 입문*. 서울: 한들출판사, 2010.
- 김은수. *사회봉사와 하나님 나라*. 전주: 선교신학회, 2002.
- _____. “서구교회의 디아코니아 역사와 과제.” *선교신학* 19권. 전주: 선교신학회, 2008.
- 김장대. *기독교사회복지학*. 서울: 진흥, 1998.
- 김철영. *라인홀드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와 사랑과 정의의 구조*.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1995.
- 김한옥. *기독교사회봉사의 역사와 신학*. 서울: 실천신학연구소, 2006.
- 남정우. *선교란 무엇인가?*. 서울, 세키나, 2010.
- 맹용길. *기독교 윤리 사상*.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1.
- 박동현. “구약성서의 사회봉사.” 이삼열 편. *사회봉사와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 _____. “구약성서에서의 사회봉사.” *사회봉사의 실천과 봉사*. 서울: 한울출판사, 1999.
- 박영호. *기독교사회복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 박종삼. *교회사회 봉사 이해와 실천*. 서울: 인간과 복지, 2000.

- _____.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와 디아코니아신학.” *사회선교, 목회, 21C*. 서울: 한들출판사, 2006.
- 성종현. “예수와 디아코니아.” *성서학 연구원 심포지엄 15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성서학 연구원, 1997.
- 손인웅. “교회의 사회봉사를 통한 사회변혁.” 김종렬 편. *새 천년을 향한 한국교회의 목회 패러다임: 교회의 사회봉사(디아코니아)*. 서울: 한들출판사, 1999.
- 유영권. “21세기 기독교공동체의 비전.” *한국사회와 공동체*. 서울: 다산출판사, 2008.
- 유의웅. *한국교회와 사회선교*.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6.
- 유태규. *라인홀드 니버에 있어서 사회정의*. 군포: 한신 대학 대학원, 1982.
- 이삼열.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2.
- 이성희. *미래목회 대 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 이종수. *한국사회와공동체*. 서울: 다산출판사, 2008.
- 이형기. *교회와 사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7.
- 임성빈. “한국교회의 사회참여와 공공신학.” *공공신학-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섬김에로의 초대*. 서울: 예영, 2009.
- 임희모. “교회본질 회복에 있어서 사회봉사의 역할.” *한국기독교 신학 논총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_____. “제 3세계 사회봉사적 통전선교.” *선교신학 12권*. 전주: 한국선교신학회, 2002.
- _____. “성찬과 사회봉사.” *선교신학 5권*. 전주: 한국선교신학회, 2002.
- _____. *한국교회의 일치, 갱신, 선교*. 서울: 한들출판사, 2003.
- 장미영, 이수라, 고은미. (*다문화 사회*) *바로 서기: 여성결혼이민자 한국 적응 프로그램연구*. 서울: 글솟대, 2008.
- 장성배. “사회봉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구조의 갱신.” *선교신학 5권*. 전주: 한국 선교신학회, 2002.
- 정원범. *21세기 문화와 문화선교*, 서울: 한들출판사, 2008.
- 정재영. “한국교회의 공공성회복을 위한모색.” *공공신학-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섬김에로의 초대*. 서울: 예영, 2009.
- 조성남. *에이지 붐 시대-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도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_____. “교회의 신뢰회복을 통한 한국교회의 공공성 확립.” *공공신학-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섬김에로의 초대*. 서울: 예영, 2009.

조정아.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최종렬. *21세기 문화와 문화 선교*. 서울: 한들출판사, 2008.

허정무. *노인교육학개론*. 서울: 양서원, 2007.

홍치모. “영성운동의 역사적 고찰.” *신학지남* (1989 봄).

황순환.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디아코니아정신.” *선교신학* 5권. 전주: 한국선교신학회, 2002.

황홍렬. “사회복지 디아코니아/사회봉사와 선교.” *선교신학* 5권. 전주: 한국선교신학회, 2002.

2. 번역 서적

Bonhoeffer, Dietrich. *나를 따르라*. 허혁 역. 서울: 한기독교서회, 1975.

_____. *기독교윤리*. 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_____. *옥중서신*. 고범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Bosch, J. David, *선교신학*. 전재욱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5.

_____.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Brunner, E. *정의, 사회질서*. 전택부 역. 서울: 평민사, 1980.

Clinebell, H. J. *목회와 지역사회*. 오성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Hoekendijk, J. C. *흘어지는 교회*. 이계준 역. 서울: 기독교서회, 1990.

Jeremy, Rifkin. *노동의 종말*. 이영호 역. 서울: 민음사 1996.

Kü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4.

Möltmann, J.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박봉량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Snyder, Howard A. *교회 DNA*. 최형근 역. 서울: IVP, 2006.

Snyder, Howard.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0.

Stott, John.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한화룡 역. 서울: 두란노 서원, 1982.

- Sweet, William. *미국교회사*. 김기달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 Watkins, Darrel R. *기독교 사회봉사입문*. 노영상역. 서울: 콤파출판사, 2003.
- Weber, Robert E. *그리스도교 커뮤니케이션*.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5.
- Yancey, Philip.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김동완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1.

3. 외국 서적

- Bradshaw, B. *Bridging the Gap: Evangelism, Development, and Shalom*.
Monrovia: MARC, 1993.
- Harrison, Everett F., ed. *Baker's Dictionary of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0.
- Lawrence, Richards. *Expository Dictionary of Bible Word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5.

Vita of
Young Chul Park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Myungsung Jeil Church, Suwon

Personal Data:

Birthdate: February 28, 1956
 Birthplace: Busan, Korea
 Marital Status: Married to Kim Bok Hee
 with 2 Children, Eun Ji and Seung Eun
 Home Address: # 644- 402 , Shinwon Apt, Youngtong Dong,
 Youngtong Ku, Suwon
 Denomination: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September 10, 1991

Education:

B. A.: Aju University, Suwon, 1980
 M. Div.: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89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1

Personal Experience:

2005 to present Senior Pastor of
 Myungsung Jeil Church, Suwon
 2000 to 2004: Senior Pastor of
 Gyesuri-Presbyterian Church, Siheung

1994 to 2001:

Assistant Pastor

of Myungsung Church, Seoul